





| SRI-기본-2022-03 |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5060대(신중년) 여가 활성화 방안

Promoting Leisure Participation For 50s and 60s (New Middle-Aged)  
in Response to A Super Aged Society

송화성·김본·이경서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송화성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김본 (동국대학교 공동연구원)  
이경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 연구 자문위원(가나다순)

- 김경민(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반정화(서울연구원 성평등인권센터 센터장)  
윤소영(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수진(경기연구원 연구기획부 연구기획부장)

© 2022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김선희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2년 09월 30일  
**발행** 2022년 09월 30일  
**ISBN** 979-11-6819-067-2(92330)

---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송화성·김본·이경서. 2022.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5060대(신중년) 여가활성화 방안」. 수원시정연구원.

---

비매품

## 주요내용 및 정책제안

### ■ 주요내용

- 65세 이상 연금수령자(기존 고령자)와 대비되는 5060대(신중년)의 특성 및 노후관 상이 확인. 기존 세대 대비 교육수준 및 경제력이 높으나 시간적 여유 부족, 여가인식과 수요가 높으며 자아실현 욕구 높기에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준비 필요
- 2010년 대비 2019년 국내 50대의 소득 및 교육수준이 높아졌으며, 여가 및 취미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후에 보다 적극적인 여가생활 영위 희망, 그러나 수원시 50대는 60대 대비 문화참여 빈도 저조
- 65세 이상 고령자와 차별화되는 5060대(신중년)의 여가 프로그램 제공, 교육에서 사회 공헌까지 여가생활 주기 및 제약 고려한 맞춤형 여가 제안
  - 50대, 은퇴 전 노후 준비 목적, 시간적 측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여가와 일의 균형 잡힌 삶을 위해 제공
  - 60대, 여가 경력 개발할 수 있는 심층 여가기회 제공 목적, 단순 취미활동에서 나아가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으로 확장, 사회적 역할 부여
  - 70대, 신체적·인지적 노화를 고려한 물리적 환경 및 돌봄 제공, 물리적 여가제약 완화

### ■ 정책제안

- ① (5060대의 실태파악을 위한 여가 조사 실시) 중앙 조사결과와 비교 가능, 각 조사년도 별 상이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5060대의 차별성 및 집단 내 다양성 파악 가능
- ②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여가활동 지원) 생애 주요 사건인 은퇴 기준, 은퇴 전 준비차원의 여가접근성 완화 및 제고, 은퇴 후 여가활동을 일자리와 연계 가능한 심층과정 제공
- ③ (수원시 특성을 반영한 여가 콘텐츠 구성) 문화여가에 수요가 높은 수원 5060대의 여가 특성을 반영한 수원시만의 5060대 여가 콘텐츠 구성, 여가 참여율 및 만족도 증진
- ④ (타 세대가 함께 소통·공존할 수 있는 여가 환경 구축) 어르신들의 방문 제약요인을 고려하여 세대 간 소통 가능한 원스톱 이용시설 개발
- ⑤ (시민 여가전담부서 혹은 통합 조직 구축)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진척관리 및 성과관리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여가 업무의 관리 및 제공 기대



# 국문요약

## ■ 서론

### ○ 연구의 배경

- 전 세계적으로 기대수명 증가 및 인구의 고령화 가속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후 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특히 여가활동이 노후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됨에 따라 은퇴 전후 여가준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
- 2019년 기준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고령화 사회 진입 전이었던 수원시의 영통구 또한 202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수원시의 초고령사회에 선제적 대응 필요
- 5060대는 노후준비의 과도기로 이전 세대 대비 여가인식 및 자아실현, 교육 욕구가 증가하는 등 기존의 노인과 차별화된 특성이 존재함에 따라 새로운 준비 필요

### ○ 연구의 목적

- 기존 고령자와 구별되는 5060대 여가 실태 및 특성 파악을 통한 맞춤형 여가활성화 방안 모색
- 돌봄 위주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복지적 차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나아가 5060대 여가 환경 조성의 방향성 도출

## ■ 5060대 및 고령자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

- 여가 생활주기에 따른 5060대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5060대 집단 내 상이한 특성이 존재함에 따라 단순 성인기 노인기 구분이 아닌 보다 세분화된 여가주기별 특성 반영 필요
- 고령자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신체적 기능 감퇴, 반응능력 저하 및 의존성, 우울 증상 증가로 물리적 환경 및 돌봄이 중요한 반면 5060대는 은퇴 전환기로 예방적 차원 여가 교육이나 사회참여·공헌 등을 통한 역할 부여
- 5060대는 사회 및 가정 내 역할로 인한 시간부족, 고령자는 건강악화 및 이동의 한계 등 신체적 노화로 인한 여가 제약이 발생하는 등 여가 제약 요인 차이
- 경력개발 및 몰입도 높은 진지한 여가 참여로 활동의 전문성 및 지속성 제고, 사회공헌으로의 확대 중요

## ■ 5060대 여가 환경 분석

### ○ 5060대 여가 시장 및 동향

- 2022년 기준 대부분의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맞이했거나 준비 중으로 이들의 노후준비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상
- 각국의 베이비부머는 공통적으로 인구 규모가 크며 높은 경제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과 함께 이전 세대에 대비하여 여가 관광 수요의 증대 확인
- 실버산업, 고령친화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여가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 5060대(신중년) 여가 관련 정책

- 5060대를 칭하는 신중년이라는 용어는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 베이비부머의 은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연금수령자인 기존 고령자와 구분되는 5060대의 여가 정책 부족
- ‘신중년(5060) 경력설계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과 같이 5060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는 대부분 일자리 중심의 정책으로 여가 내용 부족
- 기존의 고령자를 위한 여가 정책 환경은 대부분 65세 이상을 중심으로 한 돌봄 서비스 및 물리적 하드웨어 개선 위주의 사업 실시

### ○ 국내외 5060대(신중년) 여가 조성 사례

- 수원시 신중년 여가시설과 노인복지관의 이용 대상이 60세를 기점으로 구분되나 실제 운영이나 제공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세대별 구분 모호
- 일의 비중이 높은 5060대를 위한 여가의 시간 및 물리적 접근성 확대 중시
-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함께 본격화된 디지털 정보화 사회 속 신중년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 은퇴 전 세대에게는 노후 준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은퇴 후 세대에게는 사회참여나 사회공헌 등 심층적 여가활동으로의 확장을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사건에 따른 구분된 여가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

## ■ 5060대(신중년) 관련 조사 및 분석

### ○ 5060대 여가실태

- 전국 5060대를 대상으로 한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 결과, 2010년 대비 2019년 50대의 여가 관심 및 노후 여가 의향은 증가한 반면 자녀에 대한 관심은 감소
- 국민여가활동 조사를 통한 5060대의 여가활동 실태 및 추이 분석 결과, 적극적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동반 유형 증대
- 수원시 사회조사 결과, 전국 대비 수원시 5060대의 문화예술 활동의 높은 참여율 확인

### ○ 문화여가 패턴 분석

- 수원시사회 조사결과 수원시 5060대는 전체 연령 대비 문화예술 활동에 많이 참여하여 개별적 활동이 아닌 전반적 참여유형에 대한 연구 필요
- 베이비부머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학력/소득 등 사회경제적 자원 및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 등 유형별 차이 존재 확인 및 이에 따른 4개의 문화여가활동 유형 도출
- Class1(소극적 문화여가참여자) 문화여가생활 향유에 소극적인 이들을 위한 홍보 및 여가교육 선행 및 취미개발부터 일상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여가 접근성 제고
- Class2(문화관광객)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 외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경험 제고
- Class3(문화관람객) 단순 문화예술 관람에서 직접 참여하는 활동으로 문화예술 향유 수준 및 단계 상승 도모
- Class4(문화예술가) 개인의 전문성을 타인에게 나누는 사회공헌 및 사회 참여의 기회 제공

## ■ 결론 및 정책제언

### ○ 결론

- 기존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차별화된 5060대 및 5060대 집단 내의 여가수준·욕구 및 제약 등 상이한 차이 특성 확인
- 본 연구는 교육에서 사회공헌까지 여가생활주기 및 제약을 고려한 수원 특성에 맞는 5060대 맞춤형 여가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

○ 정책제언

- 타 세대 대비 5060대의 차별성 및 집단 내 다양성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여가 조사 및 통계 실시
- 생애주기 및 사건에 따른 여가제약 및 요구 등의 차이를 고려한 개인의 생애주기·사건에 따른 단계별 여가활동 지원
- 문화·예술 활동에 수요가 높은 수원시의 5060대의 특성을 반영한 수원시 맞춤형 5060대 여가 콘텐츠 구성
- 5060대의 여가수요 및 여가 제약요인을 반영한 타세대가 함께 소통·공존할 수 있는 여가 환경 구축을 통한 여가 접근성 및 만족도 제고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시민 여가전담부서 혹은 통합조직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여가 업무의 관리 및 제공

주제어: 신중년, 5060대, 생애주기별, 여가수요, 제약요인, 여가환경 구축

---

## 차 례

---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 범위 .....	5
2. 연구 방법 .....	6
 <b>제2장 문헌 분석</b> .....	 <b>9</b>
제1절 개요 .....	11
제2절 여가생활주기 .....	12
1. 개념 .....	12
2. 신체적·심리적 발달 특성 .....	14
3. 지속·몰입기 내 집단 구분 .....	15
제3절 여가 제약 .....	17
1. 개념 .....	17
2. 고령자(65세 이상) .....	18
3. 5060대 .....	19
4. 고령자(65세 이상) 대비 5060대 .....	20
5. 시간 부족 및 정보 소외 .....	21
제4절 여가 단계 .....	22
1. 개념 .....	22
2. 5060대 여가 단계 .....	24
제5절 시사점 .....	25

<b>제3장 환경 분석</b> .....	<b>27</b>
제1절 시장 분석 .....	29
1. 국외 .....	30
2. 국내 .....	32
3. 수원시 .....	33
제2절 정책분석 .....	35
1. 국외 .....	35
2. 국내 .....	39
3. 수원시 .....	44
제3절 사례 분석 .....	47
1. 시설 .....	48
2. 프로그램 .....	55
제4절 시사점 .....	64
1. 시장분석 시사점 .....	64
2. 정책분석 시사점 .....	65
3. 사례분석 시사점 .....	65
<b>제4장 5060대(신중년) 관련 조사 및 분석</b> .....	<b>67</b>
제1절 5060대(신중년) 여가 실태 .....	69
1. 분석 개요 .....	69
2.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요구 조사 .....	70
3. 국민여가활동조사 .....	72
4. 수원시 사회조사 .....	76
제2절 문화여가 패턴 분석 .....	80
1. 분석개요 .....	80
2. 연구방법 .....	83
3. 연구결과 .....	87
제3절 시사점 .....	92
1. 5060대 여가실태 분석 .....	92
2. 문화여가패턴분석 .....	95

<b>제5장 결론</b> .....	<b>101</b>
제1절 종합 분석 .....	103
1. 연구 분석 .....	103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	106
제2절 정책적 제언 .....	107
1. 5060대의 실태파악을 위한 여가 조사 실시 .....	107
2.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여가활동 지원 .....	109
3. 수원시 특성을 반영한 여가 콘텐츠 구성 .....	110
4. 타 세대가 함께 소통·공존할 수 있는 여가 환경 구축 .....	111
5. 시민 여가전담부서 혹은 통합 조직 구축 .....	112

## 표 차례

〈표 2-1〉 문헌 분석 개요 .....	11
〈표 2-2〉 5060대 여가생활주기 특성 .....	16
〈표 2-3〉 여가 제약 .....	17
〈표 2-4〉 고령자 여가 제약 .....	18
〈표 2-5〉 5060대 여가 제약 .....	19
〈표 2-6〉 고령자(65세 이상) 대비 5060대 여가 제약 .....	20
〈표 2-7〉 여가 단계 개념 .....	23
〈표 2-8〉 5060대 여가 단계 .....	24
〈표 3-1〉 분석의 개요 .....	29
〈표 3-2〉 각국 베이비부머 개념 .....	30
〈표 3-3〉 미국 베이비부머 관광/여행 트렌드 .....	31
〈표 3-4〉 유럽 베이비부머 관광/여행 .....	31
〈표 3-5〉 정책 분석의 개요 .....	35
〈표 3-6〉 노년관광서비스규범 .....	37
〈표 3-7〉 유럽 Age-Friendly Tourism .....	38
〈표 3-8〉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40
〈표 3-9〉 신중년(5060) 경력설계 안내서 .....	41
〈표 3-10〉 무장애 관광도시 4대 핵심 요소 .....	43
〈표 3-11〉 고령친화도시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	44
〈표 3-12〉 고령친화도시 세부과제 .....	44
〈표 3-13〉 수원시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	45
〈표 3-14〉 5060대 여가 사례 .....	47
〈표 3-15〉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컴퓨터 프로그램 .....	51
〈표 3-16〉 수원시 신중년이모작지원센터 대표 프로그램 .....	52
〈표 3-17〉 광교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	54
〈표 3-18〉 Spring in Tuscany, Italy Stay-Put Holiday 여행 프로그램 .....	58
〈표 3-19〉 수원시정연구원 사내동아리 운영 현황 .....	59
〈표 4-1〉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개요 .....	70
〈표 4-2〉 국민여가활동조사 개요 .....	72
〈표 4-3〉 국민여가활동조사 표본 특성 .....	73
〈표 4-4〉 가장 많이 참여한 세부 여가활동 상위 5순위 .....	74

〈표 4-5〉 5060대 가장 중요한 여가 정책 1순위 .....	76
〈표 4-6〉 수원시 사회조사 개요 .....	76
〈표 4-7〉 2019 수원시 사회조사 표본 특성 .....	77
〈표 4-8〉 수원시 5060대 공연 및 스포츠 관람활동 .....	78
〈표 4-9〉 수원시 5060대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	78
〈표 4-10〉 수원시 5060대 지역별 필요 공공시설 .....	79
〈표 4-11〉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개요 .....	81
〈표 4-12〉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3차년도(2014) .....	81
〈표 4-13〉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여가활동 항목 .....	83
〈표 4-14〉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문화여가활동 선택 항목 .....	84
〈표 4-15〉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	87
〈표 4-16〉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3차년도(2014) 응답자 가치관 .....	87
〈표 4-17〉 문화여가활동 잠재계층분석 모형 적합도 .....	88
〈표 4-18〉 베이비부머의 잠재계층별 문화여가활동 참여 .....	89
〈표 4-19〉 문화여가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	89
〈표 4-20〉 문화여가유형별 근로 특성 .....	90
〈표 4-21〉 문화여가유형별 손자녀 유무 .....	90
〈표 4-22〉 문화여가유형별 건강 상태 .....	91
〈표 4-23〉 문화여가유형별 여가 만족도 및 노후 여가 의향 .....	91
〈표 4-24〉 실태 분석 종합 .....	94
〈표 4-25〉 문화여가유형별 특성 종합 .....	96
〈표 4-26〉 잠재계층유형별 시사점 .....	99
〈표 5-1〉 수원시 사회조사(2014, 2019) 문화여가 부분 설문 문항 .....	107
〈표 5-2〉 5060대 여가 실태조사 추가 항목(안) .....	108
〈표 5-3〉 수원시 5060대 관광 콘텐츠 구상(안) .....	110
〈표 5-4〉 광고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2022) .....	111
〈표 5-5〉 수원시 주요 관광자원 소관 부서 / 수원시 여가 관련 부처 .....	112

---

## 그림 차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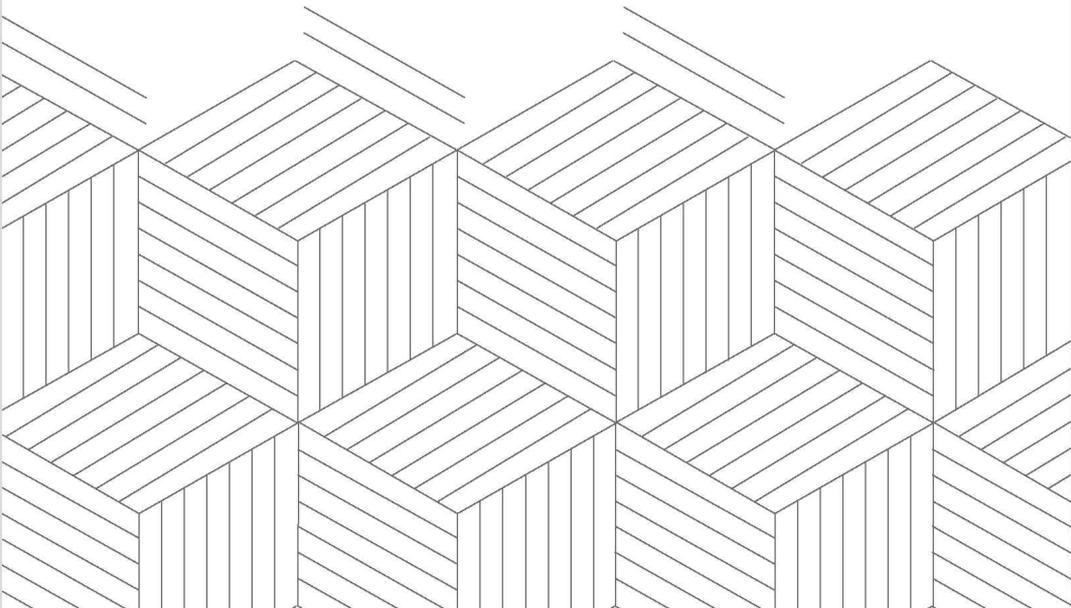
〈그림 1-1〉 연구배경 .....	4
〈그림 1-2〉 지역적 범위 .....	5
〈그림 1-3〉 내용적 범위 .....	6
〈그림 1-4〉 연구수행체계 .....	7
〈그림 2-1〉 생애주기 .....	13
〈그림 2-2〉 여가생활주기 .....	14
〈그림 2-3〉 여가제약 비교 .....	20
〈그림 2-4〉 여가 단계 .....	22
〈그림 2-5〉 문헌 분석 종합 .....	26
〈그림 3-1〉 2020년 5060대 인구 비중 .....	32
〈그림 3-2〉 국내 베이비부머 고령층 편입 추이 .....	32
〈그림 3-3〉 수원시 5060대 인구 비중 추이(2015-2020) .....	33
〈그림 3-4〉 수원시 행정구별 5060대 인구 비중 변화(2015-2020) .....	34
〈그림 3-5〉 영국의 여가정책 변화 .....	36
〈그림 3-6〉 열린관광지 .....	46
〈그림 3-7〉 서울시 50플러스포털 홈페이지 .....	48
〈그림 3-8〉 서울시 50플러스 운영체계 .....	49
〈그림 3-9〉 서울 50플러스, 세대 소통 프로그램 .....	50
〈그림 3-10〉 세대통합 프로그램 .....	51
〈그림 3-11〉 수원시 특색 여가프로그램 .....	53
〈그림 3-12〉 팔달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 .....	53
〈그림 3-13〉 광고노인복지관 동아리 .....	55
〈그림 3-14〉 프로그램 사례 분석 개요 .....	55
〈그림 3-15〉 어르신 체조 프로그램 .....	56
〈그림 3-16〉 어뮤즈트래블, 시니어 돌봄 여행 .....	57
〈그림 3-17〉 SDT, All-inclusive여행 .....	58
〈그림 3-18〉 노후 준비 특강 .....	60
〈그림 3-19〉 캠퍼스 100% 활용하기 프로그램 .....	61
〈그림 3-20〉 신중년 커뮤니티 활동 .....	61
〈그림 3-21〉 전래놀이 자격 과정 .....	62
〈그림 3-22〉 시니어모델 아카데미 .....	63
〈그림 3-23〉 스마트폰 활용 특강 .....	63

〈그림 4-1〉 분석 자료 .....	69
〈그림 4-2〉 50대 학력 및 경제 상황 .....	71
〈그림 4-3〉 50대 여가 관심 및 의향 .....	71
〈그림 4-4〉 2014년, 2019년 5060대 여가활동 참여 .....	74
〈그림 4-5〉 5060대 여가활동 동반자 .....	75
〈그림 4-6〉 2014년, 2019년 5060대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	75
〈그림 4-7〉 수원시 5060대 여가활동 참여 .....	77
〈그림 4-8〉 연구모델 .....	85
〈그림 4-9〉 유형별 문화여가활동 참여 .....	89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인 기대수명 증가('90 65.6세 → '20 72.6세) 및 인구 고령화 가속화(65세 이상 고령자 '20년 대비 '50년 2배 증가) 추세에 따라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UN, 2020). UN의 고령화 분류 기준(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 고령화 사회, 14%이상 고령사회, 20%이상 초고령화사회)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21). 특히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소요 기간은 25년(2000년~2025년)으로 타 국가(프랑스 154년, 미국 94년, 일본 36년 등) 대비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전국 261개 시군구 42%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 기준 전국 유일 고령화 사회 진입 전이었던 수원시 영통구의 65세 이상 비율이 2020년 7.2%로 나타나며 수원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행정안전부, 2020), 이에 따른 대응이 요구된다.

2025년 기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령인구의 대표주자는 베이비부머세대이다. 5060세대의 대표주자인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맞이 격인 1955년생이 2020년부터 65세 고령층으로 진입하였다. 2017년 정부는 베이비부머세대를 포함한 5060대를 '신중년'으로 명명하고 스스로 노인이라 여기지 않는 기존 '노인'과는 다르다는 해당 세대에 대한 이해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의 '신중년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높은 학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의 건강과 노후 및 여가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만의 콘텐츠를 구매하며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으며 노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한다(매거진 한경, 2020.10.26.). 특히 맞벌이 가구 증가와 함께 황혼 육아가 늘어나며 육아편의를 위해 부모 근처로 젊은 세대가 이주하고 있으며, 영유아시장의 '큰손'으로 조부모 즉 50·60대인 신중년이 부상하고 있다(송화성, 2019). 이와 같이 활기찬 노년과 자아실현을 위한 여가 소비와 함께 '황혼육아'로 인한 영유아의 주 양육자로 신중년을 주목하고 있다.

평균 수명 증가로 은퇴 후 주어지는 기간은 약 20년~30년으로 이는 8만~10만 시간이다(김병숙, 2012). 이는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긴 시간으로 은퇴 후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1) 대상 및 시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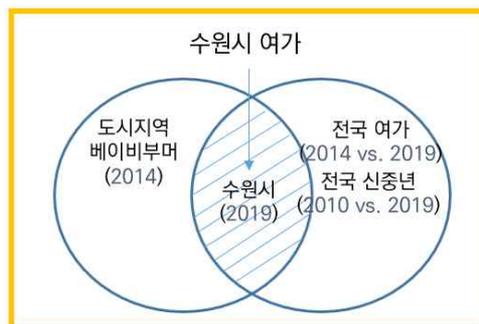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적 범위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은퇴 전·후 집단 5060대인 신증년이다. 신증년을 대표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까지 출생한 집단으로 해당 세대의 은퇴가 가시화됨에 따라 2013년 이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해당 세대는 2022년 기준 59세~67세로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진입하여 노후준비 연구 대상으로 부적합하다. 따라서 고용노동부(2017)가 명명한 신증년 즉 경제활동인구 중 가장 연령이 높고 노년기 진입 직전의 은퇴 전후를 포함하는 50세~69세로 대상을 확장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 비교대상인 신증년과 대비한 기존 ‘고령자’는 65세 이상<sup>1)</sup>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4년부터 2019년으로 한정 짓는다. 2014년도는 베이비부머가 50대로 구성된 연도이자 이들의 은퇴에 관한 사회적 관심 증폭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해당 세대를 연구하여 노후준비차원에서 해당 세대를 살펴볼 수 있다. 한편 2019년은 코로나 발병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여가수요 및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며 베이비부머세대가 편입된 60대의 여가 추이를 보기 용이하다.

#### 2) 지역적 범위

해당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그림 1-2>과 같이 전국 차원에서 수원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베이비부머, 전국 여가 및 전국 신증년, 수원시 등 총 4개의 2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림 1-2> 지역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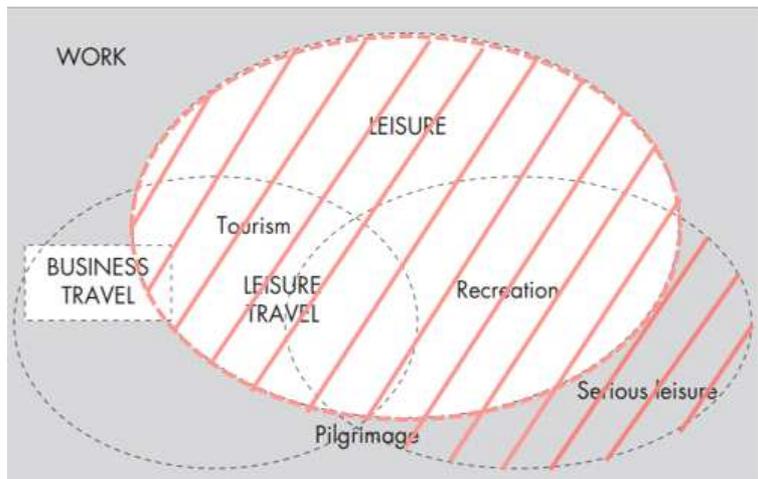


1) 기존 고령자인 ‘노인’은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한 기준나이 만65세인 연금수령자로 해당 연령 기준으로 1964년에 도입해 2022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3) 내용적 범위

본 연구에서 여가의 범위를 <그림 1-3>과 같다. 여가를 레크리에이션과 관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Hall & Page(2007)의 모델에서 진지한 여가를 일반 여가(취미 및 관심영역)와 구분해서 경력개발을 통해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면 본 연구는 여가의 개념에 진지한 여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여가를 검토하였다.

<그림 1-3>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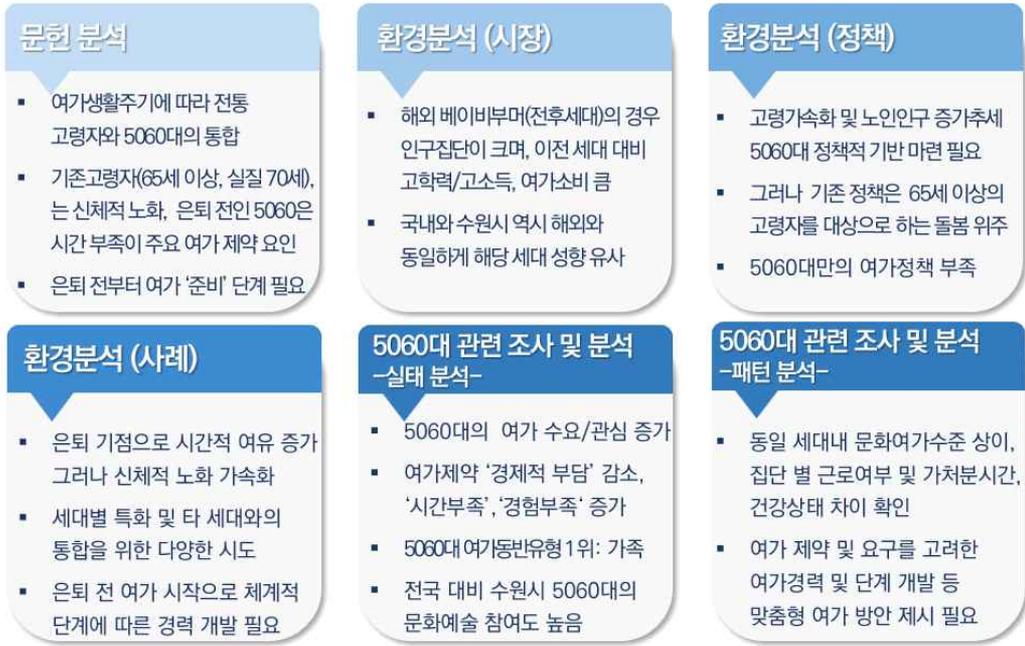
자료: Hall & Page(2007)를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재구성

##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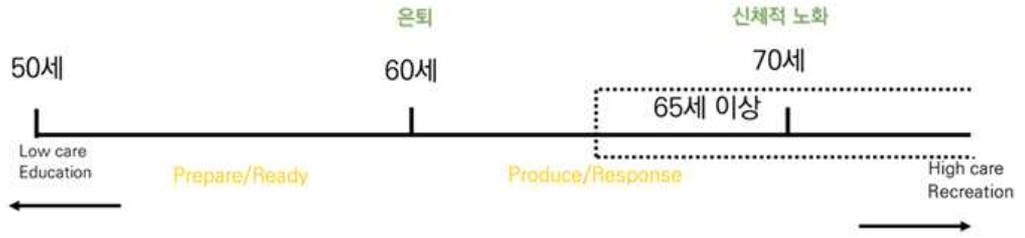
본 연구의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을 포함한 연구수행체계는 <그림 1-4>와 같다.

먼저 여가생활주기·여가제약·여가단계 등에 대한 문헌 분석을 통해 5060대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시장·정책·사례 등의 환경 분석을 통해 연금수령자로 정의되는 65세 이상 기존 고령자와의 비교를 통해 신중년의 여가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였다. 셋째 5060대(신중년)의 여가 실태 및 문화여가패턴분석,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해당 세대의 이해를 제고하였다. 분석자료는 국민여가·여행실태조사,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베이비부머 패널 조사, 수원시 사회조사 등이며, 2차 자료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특성과 집단 내 차별점을 도출하여 5060세대의 여가선택 및 결정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여가수요자로서 수원시 신중년 여가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4〉 연구수행체계



**65세 이상 고령층과 차별화된 5060대의 여가 프로그램 마련,  
교육에서 사회공헌까지 여가생활주기 및 제약 고려한 맞춤형 여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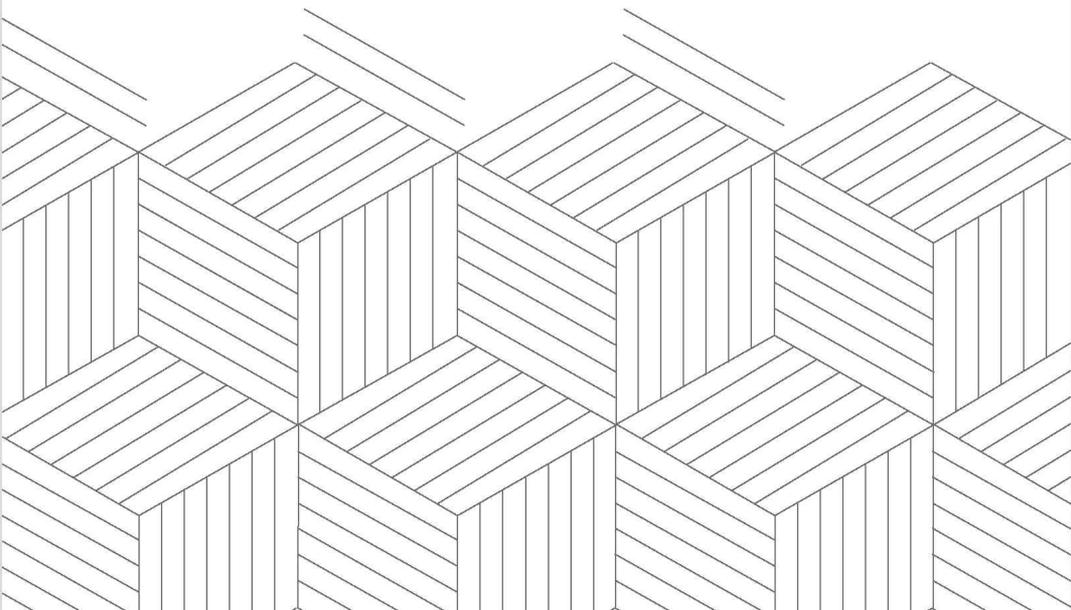


- |  |  |   |
|--|--|---|
| <b>50대 여가 프로그램</b>   | <b>60대 여가 프로그램</b>   | <b>고령자 여가 프로그램</b>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퇴 전 노후를 준비하는 세대를 위한 노후 준비 프로그램</li> <li>시간적 측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회성 프로그램</li> <li>여가-일 균형잡힌 삶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심층적 여가 기회 제공</li> <li>단순 취미활동을 넘어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으로 확장</li> <li>사회적 역할 부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적/인지적 노화를 고려한 물리적 환경 및 돌봄</li> </ul> |



# 제2장 문헌 분석

- 제1절 개요
- 제2절 여가생활주기
- 제3절 여가제약
- 제4절 여가 단계
- 제5절 시사점





## 제2장 문헌 분석

### 제1절 개요

5060대의 생애주기와 여가제약 검토를 통해 5060대 여가생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세대 간 차이(5060대, 고령층) 및 집단 내(50대, 60대) 차이를 비교하여 5060대의 특성을 구분하였다.

여가생활주기는 생활영역에 사용하는 시간, 즉 학습 중심인지, 일/가정 중심인지, 여가 중심인지에 따라 여가활동 단계(참여·확장기, 선택·집중기, 지속·몰입기)를 구분하여 5060대의 여가주기 특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Kelly & Godbey, 1992; 윤소영, 2010). 생애주기는 성인기와 노년기로 구분되며 연령에 따라 다시 세분화하여 세대 간 및 세대 내 차이를 정의하였다.

한편, 여가제약은 여가참여에 방해가 되는 요인(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을 구분하여 5060대의 차별화된 제약 특성을 파악하였다. 여가제약은 여가 비참여 원인을 밝히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에 유용한 이론이다. 마지막으로 여가 단계는 여가활동의 단계(일상적 여가, 프로젝트형 여가, 진지한 여가, 여가 전문화)에 따라 개념을 소개하여 5060대가 여가의 단계적 상승을 목표로 할 근거가 되는 이론이다.

〈표 2-1〉 문헌 분석 개요

구분	내용	필요성
여가생활주기	생애주기에 따른 여가활동 단계 구분 1단계-참여·확장기(여가체험의 확대) 2단계-선택·집중기(여가체험의 지속) 3단계-지속·몰입기(제2의 여가경력 개발)	여가생활에 접근한 주기로 5060대를 여가 지속몰입기로 구분하여 집단 특성 및 집단 내 차이 시사
	여가 참여에 방해가 되는 요인 구분 내재적 제약(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제약) 대인적 제약(대인관계에서 오는 제약) 구조적 제약(환경 등 외적인 제약)	여가생활주기에 따른 여가제약, 취약계층인 고령자와 다른 5060대 제약 특성
	정보화 시대 진입으로 인한 디지털 소외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기술은 필수 역량
여가 단계	몰입도 높은 여가활동 특성 구분 일상적 여가, 프로젝트형 여가, 진지한 여가, 여가 전문화	여가 단계 상승으로 여가 활동의 전문성 및 지속성 제고

자료: 선행연구 종합하여 연구자 재구성

## 제2절 여가생활주기

### 1.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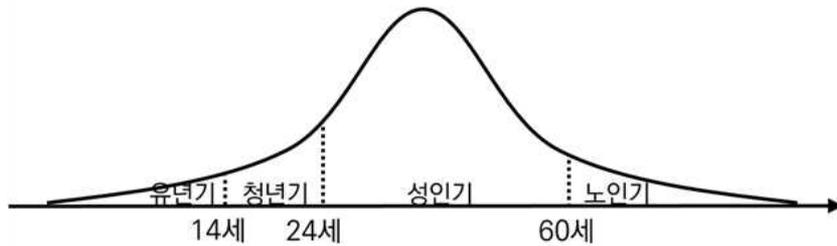
20세기 여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가를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발달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여가는 개인의 발달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이 아닌 전체 생애주기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Kelly & Godbey, 1992). 여가생활주기는 생애주기에 따른 여가생활의 특성을 반영한 이론으로 개인의 일생을 단계별 과정으로 접근하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5060대를 구분함에 있어 그 차이가 있다(윤소영, 2016). 생애주기는 50대와 60대를 성인과 노인으로 구분하였으나 여가생활주기는 5060대를 같은 단계로 보았다(Levinson, 1986; 김애순, 2006; 윤소영, 2016). 여가생활주기는 생활시간에 기준을 두는데, 여가, 일, 학습, 가정의 네 가지 생활영역 중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이 50세부터 증가하여 50세 이상을 여가 중심의 생활구조로 보았다(윤소영, 2010; 2016).

#### 1) 생애주기

생애주기는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전 생애의 단계별 과정을 의미하며 그 단계를 유년기(0-13세), 청년기(14-23세), 성인기(24-59세), 노인기(60세 이상)로 구분하였다(Levinson, 1986; 김애순, 2006; 윤소영, 2016). 이러한 주기의 구분 기준은 보편적인 교육과 사회활동 등 발달 과업에 따른 것이다. 유년기는 가장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로 학습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형성된다. 이 시기는 학교 교육을 통해 중요한 인지적 및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다음 단계인 청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인지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로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정체감을 형성한다.

50대를 포함하는 성인기는 신체적 건강이 서서히 감퇴하기 시작하며 직업과 가정 내 역할 수행으로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대인관계 사회참여 등 적응력이 중요하고 친밀감 형성의 과업을 갖는다. 60대가 속한 노인기는 건강 악화, 경제력 약화, 역할상실 등 심리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며 지나온 삶을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자아통합의 과업을 갖는다.

〈그림 2-1〉 생애주기



자료: 윤소영(2016)에 의거 재구성

## 2) 여가 생활주기

여가생활주기는 생활주기에 따른 여가생활의 특성을 반영한 여가 발달단계로 참여·확장기(1단계), 선택·집중기(2단계), 지속·몰입기(3단계)로 구분한다(윤소영, 2016). 여가는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교육, 일 등 다양한 삶의 영역과 연관되어 유년기/청년기, 성인기, 노인기로 나누어 해당 발달시기에 맞춘 단계적 구분이 필요하다(Kelly & Godbey, 1992). 이에 윤소영(2016)은 각 시기별 생활영역(학습, 일, 가정,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을 바탕으로 생애주기와 차별화된 단계를 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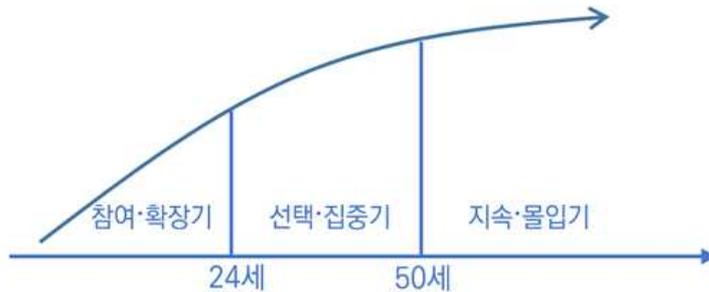
참여·확장기는 출생부터 23세까지 포함하여 여가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기로 경험, 기술 및 지식을 확장시키는 여가경력 개발 단계이다. 이 시기는 학습 중심의 생활구조를 가지며 다양한 여가활동 체험을 통한 경험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선택·집중기는 24세에서 49세까지 포함한다. 일과 결혼 등 주요생애사건으로 인해 기존의 여가환경 범위가 변화하고 자신만의 여가활동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시기이다. 일과 가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여 일/가정 중심의 생활구조를 가진다. 이 시기에 심신의 활동이 최고로 발휘되는 시기이며 신념/노력에 대한 여가유능감이 고조되는 주기이다.

마지막으로 5060대가 속한 지속·몰입기는 50세 이상 모든 성인을 포함한다. 이 주기는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단계를 거쳐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중요한 시기이다(윤소영, 2016). 50세 이상 성인은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 50세 이후를 여가 중심의 생활구조로 보았다.

세분화된 구분으로 50대(성인후기)와 60대(노인초기)의 특성과 과업을 소개하였는데, 50대는 은퇴 후 생애를 위한 설계 및 여가생활 양식을 구축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 시기에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부부관계 재구조화를 경험(김애순, 2015)할 수 있어 부부 여가생활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60대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추구하며 신체적 노화로 인해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 추구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적절한 여가생활 탐색이 필요하다.

〈그림 2-2〉 여가생활주기



자료: 윤소영(2016)에 의거 구성

## 2. 신체적·심리적 발달 특성

5060대는 기존 고령자(65세 이상)와 다른 특성을 보여 이러한 차이를 발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5060대는 성인 후기부터 노인 초기까지 포괄하여 고령자와 다른 신체적 발달단계를 거치며 이와 관련된 심리적 변화에도 차이가 있어 이를 검토하였다.

### 1) 생애주기

5060대는 고령자(65+)와 다른 신체적 심리적 발달 특성을 보여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고령자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신체적 기능 감퇴 및 환경에 대한 반응능력 저하(Anstey, Stankov & Lord, 1993; Holloszy, 2000; Bjorklund, 2018)를 경험하며 이와 관련되어 의존성과 우울증상 증가로 물리적 환경과 돌봄이 중요하다. 특히 노년 후기에 건강 악화 및 만성질환, 노인성질환이 증가하여 교육과 훈련을 통해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고 보청기나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상실을 보상하는 것이 중요하다(Bjorklund, 2018).

### 2) 5060대

반면 5060대는 은퇴 전환기로 예방적 차원의 교육과 사회참여/공헌을 통한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김애순, 2015; Bjorklund, 2018). 50대는 보편적으로 건강을 유지하지만 근거리 시력 저하나 폐경과 같은 신체적 변화를 겪으며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아직 은퇴 전 시기로 심리적 에너지를 일로부터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애순, 2015). 60대는 50대 대비 신체적 노화를 더욱 많이 경험하며 일반적으로 골밀도나 근육량 감소가 더욱 뚜렷해진다(Bjorklund, 2018). 또한 은퇴에 따른 역할상실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증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사회참여와 공헌을 통한 역할 회복이 있다(Andel, Silverstein & Kareholt, 2015).

### 3. 지속·몰입기 내 집단 구분

#### 1) 생애주기

성인후기(50대)는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단계로 중요한 시기이며(한경혜·이정화, 2012) 은퇴 후 삶에(늘어난 여가시간, 역할감소 등) 대한 교육을 통해 준비할 수 있다. 제2의 인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은퇴 후 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의 여가경험과 선호가 노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Andel, Silverstein & Kareholt, 2015) 여가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은 여가의 확장을 이루어야 한다. 자신의 원하는 여가를 즐기며 남은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기 위해 노후생애를 위한 인생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시기는 여가 측면에서 은퇴 후 생애설계를 하는 중요한 주기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50대는 가족관계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는데 가족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동반자로서 노후준비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가활동이 필요하다(Staudinger & Bluck, 2001). Carpenter & Patterson(2004)은 중년의 여가 참여 및 태도가 은퇴전후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10년 추적 조사한 결과, 중년기에 긍정적인 여가 참여 및 태도가 은퇴 후까지 지속되었고 성공적인 노년기 전환을 이루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가에 대한 고민, 특히 노년기 여가 준비가 중년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2) 60대(노인초기)

노인초기(60대)는 중년기보다 많은 신체 기능적 감퇴를 경험하며 은퇴 및 사회적 역할의 감소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Vu, Finch & Day, 2011; 김애순, 2015). 이 중 주요 생애사건인 은퇴는 수입 감소, 사회적 지위 상실, 유대관계 단절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재정적 및 심리적 은퇴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한경혜·김주현·백옥미, 2012). 은퇴 후 삶에 대해 긍정적이 태도를 가질수록 은퇴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은퇴에 따른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 50대가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변화를 많이 겪는 집단이라면 60대는 은퇴로 인한 변화를 가장 크게 경험한다.

이 시기는 여가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재편성할 수 있다(Kelly et al, 1986; Liechty et al, 2011). 은퇴로 인해 갑자기 늘어난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울감이나 고립감에 도움이 되어(강은나·김혜진·김영선, 2017; Iwasaki, Coyle & Shank, 2010) 역할의 상실을 경험한 초기 노인들에게 중요하다.

다양한 여가활동 중 특히 활동적이고 목적을 지닌 여가활동이 단순한 오락소비적 여가활동

에 비해 체력과 스트레스 대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김예성·하용용, 2015).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여가활동 참여가 삶의 의미를 되찾고 사회적 역할의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60대들은 여가의향과 다른 소극적 여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임정미, 2020) 여가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3) 70세 이상(노인후기)

70세 이상은 노인후기로 구분하며 이들은 신체적 쇠퇴와 함께 건강 악화를 가장 크게 인지한다(Nilsson & Fisher, 2006; Silverstein & Parker, 2002). Silverstein & Parker(2002)는 70대 이상 노인의 10년 간 여가참여를 연구한 결과 노인후기 건강의 쇠퇴가 여가참여율을 낮추었으며 낮아진 여가참여율은 다시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신체적 쇠퇴로 인해 여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가 시설을 쉽게 방문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신체적 쇠퇴 및 건강 악화는 특히 노인후기에 많이 발생하여 여가 참여에서 60대와의 차이를 보였다. 60대와 70대를 비교한 연구 결과 70대는 60대 대비 여가활동 중 신체적 활동(산책, 운동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더 나타내어 신체적 변화를 더 많이 경험하는 70대의 특성을 나타내었다(Heo et al, 2017). 따라서 노인후기에는 5060대와 차별되는 돌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표 2-2〉 5060대 여가생활주기 특성

구분	특성	선행연구
50대 (성인후기)	기존의 중년기 이후 새로운 삶의 성장 기간으로 재조명,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과정 필요	한경혜·이정화(2012) Carpenter & Patterson(2004) Infurna, Gerstorf & Lachman(2020) Parry & Shaw(1999) Staudinger & Bluck(2001)
60대 (노인초기)	여가를 통해 은퇴 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신체적으로 건강을 추구할 수 있는 활동 참여 확대	강은나·김혜진·김영선(2017) Cosgriff et al(2009) Iwasaki, Coyle & Shank(2010) Kelly et al.(1986) Strain et al.(2002)
70세 이상 (노인후기)	신체적 쇠퇴와 함께 건강 악화를 경험하며 여가 공간의 이동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여가 접근성이 중요	Heo et al.(2017) Nilsson & Fisher(2006) Silverstein & Parker(2002)

자료: 선행연구 종합하여 연구자 재구성

## 제3절 여가 제약

### 1. 개념

1980년대 여가제약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제약은 ‘참여의 장벽 (barriers to participation)’으로 정의되었다(Crawford & Godbey, 1987; Jackson, 1988). 여가제약은 여가 참여나 즐거움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여가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만족감을 제한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벽이 아닌 제약으로 표현되었다(Kay & Jackson, 1991).

일반적으로 여가제약은 내재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으로 구분된다. 각 제약의 내용 및 관련 연구는 <표 2-3>에 제시하고 있다. 여가제약에 있어 많이 연구되는 대상은 고령자이지만 5060대는 이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가제약 역시 다를 수 있어 두 집단의 여가제약을 검토한 후 비교하였다.

<표 2-3> 여가 제약

구분	내용	선행연구
내재적	시간 부족, 경험부족, 건강 문제(낙상에 대한 두려움), 동기/관심 부족	Crawford et al.(1991) Chick & Dong(2003) Lee et al.(2012) Puybroeck et al.(2017) Smith(1987)
대인적	동반자 부재, 타인과 상호작용, 다중역할	Crawford et al.(1991) Kuykendall et al.(2018)
구조적	경제적 부담, 이동의 한계, 프로그램시설 부족, 지식/정보 부족	Crawford et al.(1991) Godbey et al.(2010) Lee et al.(2012) Smith(1987)

자료: 선행연구 종합하여 연구자 재구성

## 2.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성인을 지칭하여 일부는 5060대와 중복되지만 고령자의 특성인 건강 악화는 앞서 언급하였듯 노인 후기(70세 이상)에 많이 경험하여(Fleischer & Pizam, 2002; Huber, Milne, & Hyde, 2018)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자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고령자의 건강 악화는 여가활동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으로 이어지며 연령의 증가와 함께 제약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여가 동반자의 부재(Gibson, 2002), 동반자의 질병으로 인한 여가 참여 능력 부족(예: 장시간 여행 또는 특정 활동 참여 어려움)(Huber, Milne, & Hyde, 2018) 등 대인적 제약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여건(김미경·김지은, 2017; Nyaupane, McCabe, & Andereck, 2008)으로 인한 제약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2-4〉 고령자 여가 제약

구분	내용	선행연구
내재적	건강악화, 안전 염려, 낮은 흥미, 관광하기에 나이가 많다는 개인의 인식	김미경·김지은(2017) Fleischer & Pizam(2002) Gibson(2002) Huber, Milne, & Hyde(2018) Nyaupane, McCabe, & Andereck(2008)
대인적	동반자(가족, 친구 등)의 부재, 동반자의 여가능력 부족, 가족의 반대/지지 부족, 많은 집안일	김미경·김지은(2017) Fleischer & Pizam(2002) Huber, Milne, & Hyde(2018) Nyaupane, McCabe, & Andereck(2008)
구조적	경제적 부담, 여가/관광(프로그램/시설) 부족, 지식/정보 부족(정보 획득의 어려움)	김미경·김지은(2017) Fleischer & Pizam(2002) Huber, Milne, & Hyde(2018) Nyaupane, McCabe, & Andereck(2008)

자료: 선행연구 종합하여 연구자 재구성

### 3. 5060대

5060대만을 대상으로 한 여가 연구는 제한적인 관계로 5060대를 포함하는 연구를 검토하였다. 고보숙·최병길(2010)은 50대의 여가제약을 분석한 결과 직장생활로 인한 시간적 제약 등 내재적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제약은 여가동기의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명확한 동기가 있으면 여가 제약을 상대적으로 낮게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내재적 제약으로 여가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인지할수록 여가 참여에 소극적인 것을 확인하여(Son, Kerstetter, & Mowen, 2009) 여가인식의 제고가 필요한 것을 나타내었다.

Gao & Kerstetter(2016)는 50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시간 부족과 같은 내재적 제약 외에도, 동반자 부족, 자녀의 지지 부족 등 대인적 제약을 확인하였다. 비슷한 결과로 조희태(2015)는 여가 동반자가 멀리 살거나 여가 동반자의 여가 기술 부족이 대인적 제약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여가 동반자의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50대에게서 정보 부족, 여가 프로그램의 질 낮음, 여가 시설 부족 등 구조적 제약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희태, 2015; Ullmann, 2011; Gao & Kerstetter, 2016). 특히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내재적 제약 및 대인적 제약보다 여가 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조희태, 2015) 구조적 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연령은 보편적인 생애 사건 경험으로 여가제약에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나 개인적 특성 중 하나이므로 기타 환경적 특성에 따라 여가제약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어 절대적인 구분 기준은 아님을 시사한다.

〈표 2-5〉 5060대 여가 제약

구분	내용	선행연구
내재적	시간 부족, 경험 부족, 소극적 성격, 건강 문제	고보숙·최병길(2010) Son, Kerstetter, & Mowen(2009) Ullmann(2011)
대인적	동반자(가족, 친구 등)의 부재, 가족의 반대/지지 부족, 보살펴야 할 가족의 존재, 많은 집안일	박지수·박경란(2009) 조희태(2015) Gao & Kerstetter(2016) Son, Kerstetter, & Mowen(2009) Ullman(2011)
구조적	경제적 부담, 여가/관광(프로그램/시설) 부족, 지식/정보 부족(정보 획득의 어려움)	조희태(2015) Gao & Kerstetter(2016) Son, Kerstetter, & Mowen(2009)

자료: 선행연구 종합하여 연구자 재구성

#### 4. 고령자(65세 이상) 대비 506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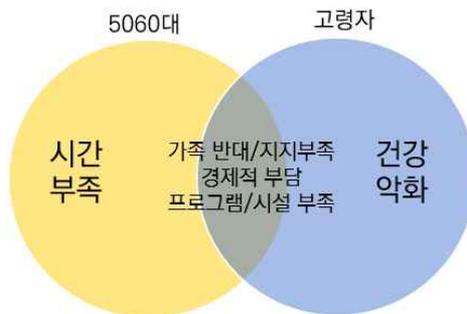
고령자 대비 5060대는 사회 및 가정 내 역할로 인한 시간 부족(고보숙 & 최병길, 2010; Ullmann, 2011)을 경험하는 반면 고령자는 신체적 노화로 인한 건강악화(Gibson, 2002; Huber, Milne, & Hyde, 2018)로 상이한 제약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표 2-6〉 고령자(65세 이상) 대비 5060대 여가 제약

구분	내용	5060대	고령자
〈내재적〉 Fleischer & Pizam(2002) Huber, Milne & Hyde(2018) Son, Kerstetter, & Mowen(2009) Gibson(2002) Ullmann(2011)	건강악화	×	○
	낮은 흥미	△	○
	시간 부족	○	×
〈대인적〉 김미경·김지은(2017) Son, Kerstetter, & Mowen(2009) Gao & Kestetter(2016) Nyaupane, McCabe & Andereck(2008)	동반자 부재	△	○
	가족의 반대/지지 부족	○	○
	보살펴야 할 가족의 존재	○	○
〈구조적〉 Nyaupane, McCabe & Andereck(2008) Fleischer & Pizam(2002) Huber, Milne & Hyde(2018)	경제적 부담	○	○
	이동의 한계	×	○
	여가 프로그램/시설 부족	○	○

자료: 선행연구 종합하여 연구자 재구성

〈그림 2-3〉 여가제약 비교



## 5. 시간 부족 및 정보 소외

앞서 설명한 전통적 제약 중 5060대가 마주한 주요한 생애사건에 의한 제약 및 시대적 변화에 의한 새로운 제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퇴는 집단 내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간적 제약과 연관되며 디지털 정보화 시대는 전통적인 제약에서 다루지 않는 새로운 제약인 정보 소외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 1) 은퇴와 여가

은퇴는 5060대가 경험하는 주요 생애사건으로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은퇴 준비가 은퇴 후 생활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latts et al., 2015; Wildman, Moffatt, & Pearce, 2018; 황남희 외, 2019).

은퇴 후 늘어난 여가시간의 만족도가 전반적 삶에 중요한 요인이므로(Janssen, 2004; 김미령, 2013; Lietchty, Genoe & Marston, 2015) 교육과 여가 경력 개발을 통한 여가영역의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연구결과 은퇴 전환기에 실시한 여가교육은 은퇴로 인한 역할상실과 신체활동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ietchty, Genoe & Marston, 2015).

### 2) 미래사회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060대의 주체적 삶을 위해 정보기기 활용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양현미, 2018; 강소랑 외, 2019; Fang et al, 2019). 정보기기는 자기개발, 정보 탐색, 자기표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능동적 여가 실천으로 이어진다. 랜선 여행이나 온라인 미술관 관람 등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 부족 또는 건강 문제 등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도 볼 수 있으며 여가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디지털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여가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가 증가하여(이상경·남윤희·고동우, 2016; 황현정·황용석, 2017; Zach & Lissitsa, 2016) 기기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60대 중 디지털 활용능력을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활용능력이 높은 수준인 60대가 여가/취미생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60대는 고령자 대비 모바일 등 디지털기기를 자주 접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5060대의 디지털 기기 이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PC보다 모바일 사용이 높게 나타나 모바일 중심의 여가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을 시사하였다(생애전환기 디지털에이징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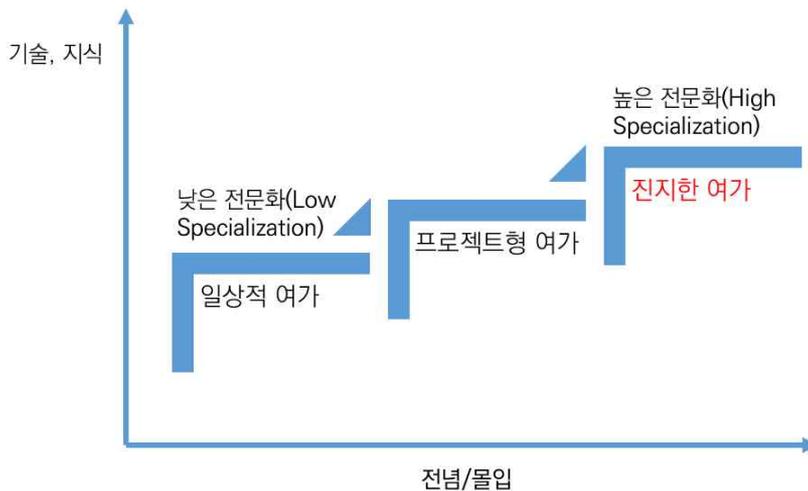
## 제4절 여가 단계

여가 단계는 참여자가 여가활동의 전문성을 높여 경력을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인 참여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이다(Bryan, 1977; Stebbins, 1982; Stebbins, 2017). 따라서 여가 단계를 높이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은퇴 전환기에 있는 5060대의 경우 변화하는 신체적 사회적 쇠퇴(근로역할 상실, 사회적 관계 축소 등)에 적응해야 하는 노후 준비를 위해 여가 단계 상승이 중요하다.

### 1. 개념

여가 단계는 참여 활동의 특성 또는 참여자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활동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상적 여가, 프로젝트형 여가, 진지한 여가로(Stebbins, 1982; Stebbins, 2017)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4〉 여가 단계



자료: Bryan(1977), Stebbins(1982)에 의거 재구성

일상적 여가는 훈련이 필요 없고 내재적 보상이 따르는 짧고 즐거운 활동을 의미한다. 국민여가활동 조사(2019)에서 나타난 국민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TV시청이나 만남 등이 일상적 여가에 해당된다.

프로젝트형 여가는 짧은 시간 동안 일회적/일시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호회 성과 발표나 특정체험 등이 포함된다. 일정수준의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활동으로 일상적 여가와 진지한 여가의 중간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Veal, 2017).

진지한 여가는 기술이나 지식을 획득하여 경력을 쌓아가는 활동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여가활동이다(Stebbins, 1986). 진지한 여가는 성취감과 자아실현이 보상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즐거움을 보상으로 얻는 일상적 여가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여가 단계는 일반인에서 전문가에 이르는 연속체로 정의되는 여가 전문화 개념이 있다(Bryan, 1977; Needham et al, 2013). 여가 전문화는 사용 도구나 기술, 활동 장소에 의해 전문화 수준이 표출되는데 관광에 있어 국내관광에서 해외관광으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전문화의 예시이다. 일반적으로 진지한 여가와 높은 전문화수준은 밀접한 관계를 보여 진지한 여가 참여가 전문화 수준 또한 높아진다(Scott, 2012).

〈표 2-7〉 여가 단계 개념

구분	특성	활동 예시	선행연구
일상적 여가	즉각적, 단기적, 유쾌한, 즐거운	휴식, 만남, 놀이	Stebbins(1982) Jones et al.(2001) Stebbins(2017) Veal(2017)
프로젝트형 여가	적당히 복잡한, 비밀회성, 창의적	생일파티, 축제	
진지한 여가	복잡한, 인내 및 노력, 경력 형성, 자아실현, 자아표현	승마, 자원봉사활동	
여가 전문화	사용 도구, 기술, 활동 장소에 의해 표출	국내관광 → 해외관광	Bryan(1977) Scott(2012) Needham et al.(2013)

자료: 선행연구 종합하여 연구자 재구성

## 2. 5060대 여가 단계

진지한 여가 참여는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퇴 전부터의 준비가 필요하다(Stebbins, 2013). 이와 같은 몰입도가 높은 진지한 여가는 여가 만족도 향상 및 삶의 질 제고를 낳기에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진지한 여가가 5060대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rown, McGuire & Voelkl(2008) 스윙댄스에 참여하는 60대들을 3년 반 동안 인터뷰한 결과 배움과 참여를 통해 여가 경력을 개발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을 발견하였다. 운동 또한 마찬가지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주기적으로 운동에 참여한 결과 진지한 여가로서 참여 지속성을 유지하였다(Codina, Pestana & Stebbins, 2020).

Siegenthaler & O'Dell(2011)은 골프에 참여하는 60대 이상 성인을 분석한 결과 골프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며 몰입도가 높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공적 노화를 이끄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건강에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 진지한 여가가 더욱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쇠퇴를 50대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60대에게 진지한 여가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여가의 중요성은 진지한 여가 또는 전문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관한 연구로 이어졌다. 승마를 통한 진지한 여가와 전문화 연구 결과 일상적 여가 활동에서 진지한 여가와 전문화의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안전, 시설, 비용 등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보경·노정희, 2017). 이와 같이 5060대의 세대 특성 및 집단 내 차별성을 고려한 요인을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획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5060대의 진지한 여가는 개인의 여가 전문성 및 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사회공헌활동으로 확대하여 활동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50플러스 센터, 2017).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자신의 여가 관심 분야를 알아야 하고 이는 교육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여가의 단계적 상승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표 2-8〉 5060대 여가 단계

구분	내용	선행연구
진지한 여가	일상적 여가와 구분되는 특징 제시, 여가 경력 개념 소개	Brown, McGuire & Voelkl(2008) Heo, Stebbins, Kim & Lee(2013) Codina, Pestana & Stebbins(2020)
여가 전문화	전문화(도구, 기술, 장소)의 수준을 구분하여 여가활동 단계 설명	김남희·오치옥(2018), Kwon, Cheung & Ahn(2021) Tian, Zhou, Qiu & Shang(2022)
진지한 여가 및 전문화	같은 활동에 대한 다른 단계 제시, 경력과 수준을 제고하여 향후(노후) 여가시간 만족도 제고	Tsaur & Liang(2008), Siegenthaler & O'Dell(2011) 김보경·노정희(2017)

자료: 선행연구 종합하여 연구자 재구성

## 제5절 시사점

여가생활주기, 여가제약, 및 여가 단계 이론적 개념 및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5060대는 고령자와 다른 주기별 특성 및 제약이 나타났으며(김애순, 2015; Bjorklund, 2018; Huber, Milne, & Hyde, 2018) 집단 내에서 또한 차이가 존재하여(Leitchty, Genoe, & Marston, 2015; 윤소영, 2016; Infurna, Gerstorf, & Lachman, 2020) 보다 세분화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과 달리 건강하고 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5060대를 위해 노후 준비 차원의 여가 교육 및 경력개발이 필요하며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및 신체적 제약의 완화를 통한 여가 단계 상승 도모가 필요하다.

여가생활주기는 5060대의 특성 및 집단 내 차별성을 시사하여 해당 연구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이전 여가생활주기에서 활동을 확장하고 집중했다면 50세 이상 성인은 마지막 주기인 지속·몰입기에서 여가활동을 유지함(윤소영, 2016)으로 타 세대와 구분되었다. 다만 여가의 확장을 이루지 못한 이들은 여가 지속·몰입기의 단계에서 제2의 여가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윤소영, 2016). 또한 동일한 5060집단 내에서도 50대는 성인 후기로 60대는 노인 초기로 세분화하여 집단 내 여가활동 특성과 과업을 소개하였다. 아직 은퇴 전인 50대는 노후 여가생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60대는 신체적 노화와 함께 은퇴에 따른 역할상실 등을 경험할 수 있기에 사회적 의미를 찾고 건강을 추구하는 여가 활동 참여를 권장한다(이철원,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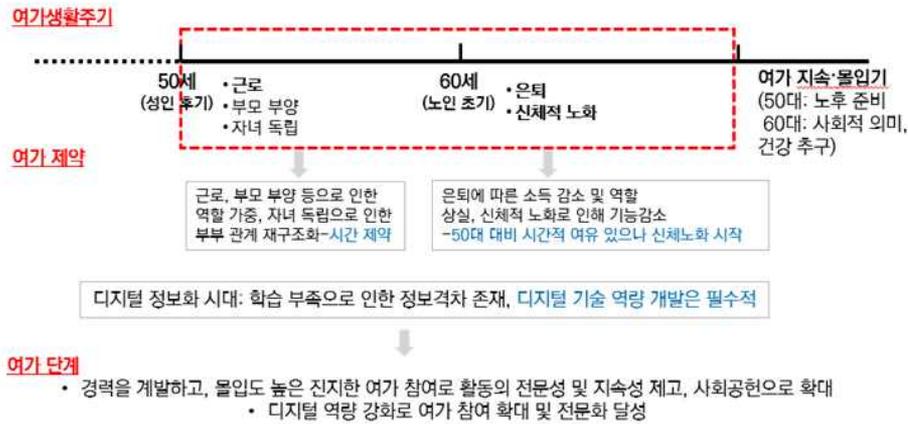
여가 참여에 있어 다양한 제약 요인을 마주할 수 있는데, 5060대는 주요 생애 사건인 은퇴 여부 및 신체적 건강에 의한 내재적 제약 차이를 나타내었다. 은퇴 전인 50대는 시간적 제약을 경험할 수 있으며 60대는 은퇴에 따른 역할상실 및 신체적 노화로 인한 기능감소로 50대 대비 시간적 여유는 있을 수 있으나 건강의 제약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은퇴 후 삶에 대해 미리 준비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은퇴에 잘 적응하여(Carpenter & Patterson, 2004; 한경혜·김주현·백옥미, 2012) 노후 준비가 중요함(Wildman, Moffatt, & Pearce, 2018; 황남희 외, 2019)을 시사한다.

이러한 전통적 제약 외에 시대적 특성으로 인한 제약 또한 존재한다.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기술은 생활에 필수가 되었다. 이에 여가의 접근과 활용을 위해서도 디지털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5060대의 여가 참여 확대를 위해 디지털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이상경 외, 2016; 양현미, 2018; 강소랑 외, 2019).

시간 부족 또는 건강 문제 등 여가 제약의 완화를 통해 여가의 단계적 상승을 이룰 수 있다. 근로자가 많은 50대는 낮은 여가 단계에 해당되어 이들을 위해 직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낮은 단계의 여가활동이 필요한 반면, 60대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에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지한 여가로의 단계 상승을 도모해야 한다(Scott, 2012; 김보경·노정희, 2017). 전문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공헌으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Stebbins, 2017). 더불어 디지털 역량 강화는 이러한 여가 단계를 높이는 데 도구가 되어 참여 확대와 전문화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양현미,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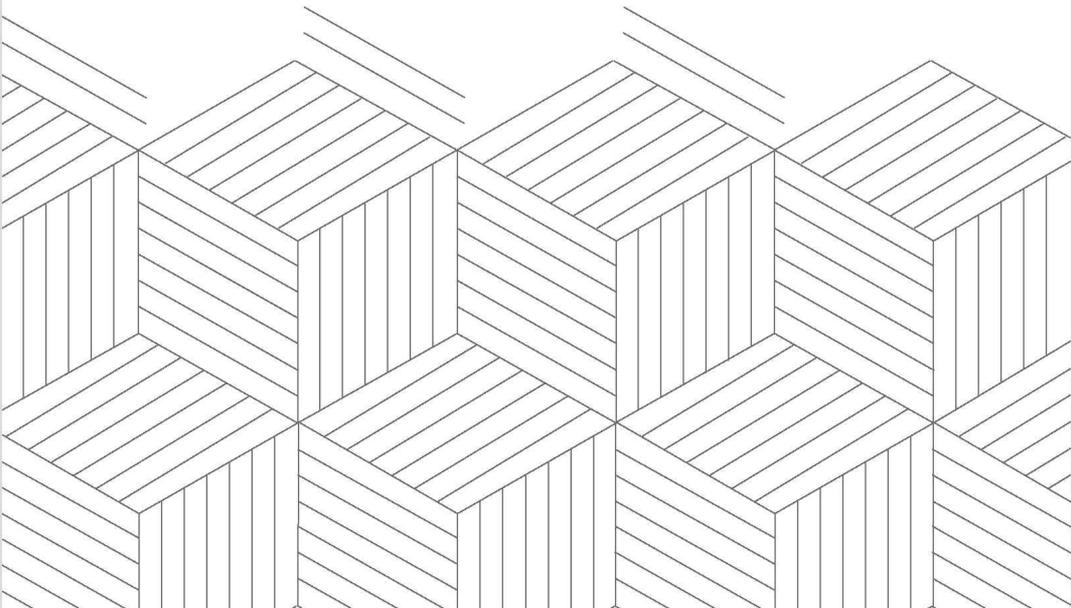
은퇴 전환기에 실시한 여가교육은 역할상실이나 신체활동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Lietchty, Genoe & Marston, 2015)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육과 경력개발을 통해 진정한 여가 지속·몰입기에 진입하고, 시간 부족, 건강 문제, 또는 정보격차로 인한 제약수준을 감소시켜 여가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제약을 극복하는 방안 모색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박지수·박경란, 2009).

〈그림 2-5〉 문헌 분석 종합



# 제3장 환경 분석

- 제1절 시장 분석
- 제2절 정책 분석
- 제3절 사례 분석
- 제4절 시사점





## 제3장 환경 분석

### 제1절 시장 분석

시장분석은 <표 3-1>과 같이 국외시장은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국내 및 수원시장은 5060세대를 중심으로 해당 세대의 특성과 수요를 검토하였다.

5060세대를 대표하는 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이다. 베이비부머는 일반적으로 전쟁 또는 국가적 위기 이후 태어난 대규모 인구집단으로 각국의 베이비부머 출생 시기는 상이하다. 따라서 국외 시장은 특정 시기를 고정할 수 없기에 공통된 개념을 가진 각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여가적 측면에서 해당 시장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여가의 영역 중 관광 시장을 분석하였다. 한편, 국내 및 수원시는 5060세대를 고정하여 해당 인구의 특성 및 지역별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표 3-1> 분석의 개요

구분		대상	내용
국외	미국	공통된 개념(전 후 세대)인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여가의 영역 중 관광 시장 분석	각국 베이비부머 연령
	중국		미국 베이비부머 관광/여행 트렌드 조사
	유럽		유럽 베이비부머 관광/여행 특성
			중국 베이비부머 관광/여행 특성
국내	신중년 세대인 5060대 (50-69세)	5060대를 보는 상반된 시각	
수원시		5060대 인구 및 특성	
		수원시 5060대 인구, 지역별 특성	

## 1. 국외

베이비부머에 대해 미국, 유럽과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화되며 출생한 세대를 칭한다. 미국과 유럽의 베이비부머는 1946~1964년 사이 태어났으며 1990년대 말부터 은퇴를 시작하였다(Howard Hogan&Deborah Perez&William Bell 2008). 미국 베이비부머는 전체 인구의 약 22%를 차지하며(Statista, 2022), 유럽은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0). 한편 일본은 1947-1949년 사이 태어난 세대로 덩어리를 뜻하는 ‘단카이(団塊)’세대라 불리며(Investpedia, 2021),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한다. 2007년 ‘단카이’ 세대의 은퇴와 함께 일본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했다.

중국은 전 후 세대가 아닌 ‘3년 기근(1958~1961년)’ 후 출생한 1962-1975년생을 ‘잉얼차우(嬰兒潮)’ 세대, 즉 베이비부머로 칭한다(중국사회보장학회, 2019). ‘잉얼차우’는 미국과 일본 베이비부머 대비 약 15년 늦게 태어나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이들은 2022년 기준 60세로 진입하였고 약 2억4천만 명으로 최대 인구 규모의 특성을 보인다.

각 국의 베이비부머는 공통적으로 국가적 위기 이후 태어나 경제적 성장을 이끌었던 이들이다. 이들은 인구 규모가 크며, 미국의 베이비부머는 미국 자산의 51%를 보유(Federal Reserve, 2022)하는 등 경제수준이 높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버산업 시장규모가 매년 두 자리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iiMedia Research, 2021).

2022년 기준 대부분의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맞이했거나 준비 중에 있기에 인구규모가 큰 이들의 노후준비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였다(Knickman & Snell, 2002; Johnson, Toohey & Wiener, 2016). 은퇴 후 늘어난 시간을 더 활기차고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베이비부머들의 여가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AARP, 2020), 퇴직 후 해당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참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표 3-2〉 각국 베이비부머 개념

구분	내용
미국,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비부머 (1946-1964)</li> <li>• 1990년대 말부터 은퇴 시작</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카이’세대 (1947-1949)</li> <li>• 2007년 은퇴와 함께 초고령사회 맞이</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잉아조’ (1962-1975)</li> <li>• 최대 인구 규모(2억4천만 명)로 60세 진입</li> </ul>

각국의 시장변화를 보면 먼저 미국의 베이비부머 관광/여행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는 타 세대 대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고 관광/여행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ARP, 2021). 〈표 3-3〉에 제시한 바와 2020년까지 관광/여행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으며 이는 연 평균 여행횟수는 변동해도 여행기간이 지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국의 베이비부머의 주요 여행목적은 가족과의 시간 향유, 일상탈출, 재충전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6년 이후 가족의 시간 향유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표 3-3〉 미국 베이비부머 관광/여행 트렌드

(단위: \$, 회,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관광/여행비용	-	-	-	6,395	6,621	7,800
연평균 여행 횟수	5.3	4.5	5.4	4.6	4.4	4.7
여행 목적 : 가족과의 시간	55	54	57	57	57	59
여행 목적 : 일상에서 벗어남	57	39	39	49	47	51
여행 목적 : 여유 및 재충전	54	42	38	47	48	45

자료: AARP Report(2015-2021), Travel Trends

한편, 유럽 베이비부머는 2025년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대 인구 집단으로 주목받고 있다(CBI, 2020). 이들 역시 미국 베이비부머와 같이 타 세대 대비 장시간 관광/여행을 하고 문화적 경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xpedia Group, 2017). 이들은 연평균 4~5회 여행을 가며, 이들 중 32%가 여가제약요인으로 건강을 꼽았으며, 15%는 자녀 없이 손자녀와 여행을 갈 것이라 응답하였다. 이 중 독일과 영국 베이비부머의 여행 특성은 〈표 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행 주요 목적으로 독일 베이비부머는 휴식(61%)을 답하였으며, 영국은 관광 및 유람(61%)으로 응답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타 세대 대비 여행기간이 1~2일 정도 더 길며 문화적 경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유럽 베이비부머 관광/여행

(단위: %, 일)

구분	여행 목적			여행 특성	
	휴식	친지 방문	관광/유람	여행 기간	문화적 경험 추구
독일	61	37	33	11.4	67
영국	51	45	61	9.4	70

자료: Expedia Group(2017), British Multi Generational Travel Trends

중국의 베이비부머는 2022년 기준 60세로 진입하였다. 2020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2.6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를 차지하며 이와 관련해 고령산업이 떠오르고 있다(중국 전문가포럼, 2021). 중국 기업정보 플랫폼 텐엔차(天眼查)에 따르면 2021년에 약 9,238개 고령산업 관련 기업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2020년도 5,717개보다 약 62%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관광분야에 대해서 노년관광 발전 현황 및 추세 연구(中国老年旅游产业发展现状和趋势研究)(2020)에 따르면 2050년 중국의 노인 인구는 4.8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3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60세 이상 고령관광 소비총액은 3.8백억 달러로 추정된다.

## 2. 국내

2020년 기준 5060대는 전체 인구의 약 30%로(통계청, 2021) 이 중 베이비부머는 5060대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5060대는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고용노동부,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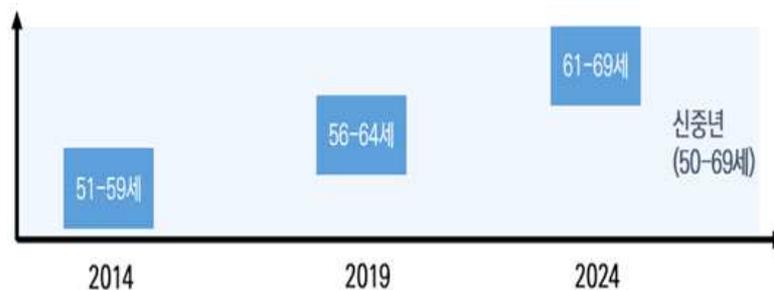
〈그림 3-1〉 2020년 5060대 인구 비중



자료 : 통계청(2021), 연령 및 성별 인구

2017년 8월 정부는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생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는 5060대를 신중년으로 명명하였다(고용노동부, 2017). 이후 이들 세대를 노후준비의 과도기로 이해하며 활기찬 5060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다(황남희, 2019).

〈그림 3-2〉 국내 베이비부머 고령층 편입 추이



그러나 여전히 5060대를 보는 상반된 시각들이 공존한다. 먼저 5060대의 은퇴로 세수 감소, 재정 악화, 일자리 부족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들 집단의 큰 규모와 연장된 평균 수명은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될 것이라 예상하며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조원희, 계봉오, 류재린,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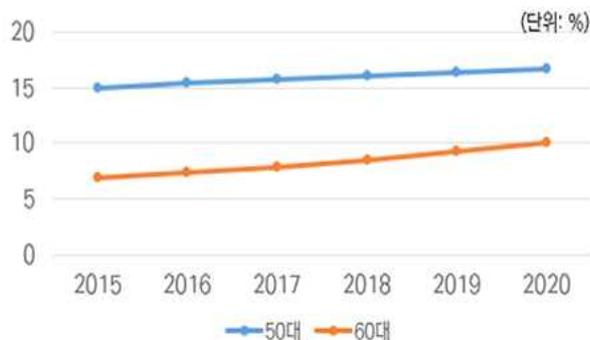
한편, 5060대의 축적한 인적, 경제적 자원과 구매력을 주목하여 실버시장을 확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소비주도층이 될 것이라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5060대는 이전 세대 대비 고학력, 고소득의 특성을 가진다. 또한 기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달리 자기 자신에 투자하고 유행에도 민감하며, 자신만의 취향과 브랜드를 좇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50플러스재단, 2020). 여가적 측면에서 5060대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자아실현 및 교육 욕구가 높다(임정미, 2020). 특히 은퇴 후 젊었을 때 하지 못한 일에 대해 새로 배우고자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고령친화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이 중 여가산업이 가장 높은 비중(36%)을 차지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

전체 인구의 약 1/3을 차지하는 거대인구집단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해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5060대는 그 전 세대와의 차이도 보이지만 각자의 소비성향과 노후관에 따라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집단 내에서의 차이도 살펴보아야 한다.

### 3. 수원시

수원시 5060대는 전체 인구의 약 27%를 차지하며 <그림 3-3>과 같이 전국의 5060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수원시, 2020). 50대와 60대 두 집단 모두 5년간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수원시의 관심이 요구된다.

<그림 3-3> 수원시 5060대 인구 비중 추이(2015-2020)



자료 : 수원기본통계(2020), 수원시 5060대 인구 비중 추이

수원시 행정구별 5060대의 인구 변화는 <그림 3-4>와 같으며, 팔달구,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 순으로 5060대 인구 비중이 높았다. 2015년 대비 2020년 증가율을 살펴보면 영통구(16.1%), 장안구(15.9%), 권선구(12.4%), 팔달구(9.4%) 순으로 영통구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영통구는 구민 평균연령 37.7세로(영통구청, 2022) 수원시에서 가장 ‘젊은’ 행정구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늦게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7%)에 진입하였다(통계청, 2021).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 역시 영통구 38.7명으로 팔달구 133.2명 보다 낮다(경인지방통계청, 2019). 한편 영통구는 고학력, 고소득자 비율이 높아(수원시 사회조사, 2021) 고령층과 차별화 되는 5060대의 세대 특성을 반영하였다.

<그림 3-4> 수원시 행정구별 5060대 인구 비중 변화(2015-2020)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장안구	0.230	0.241	0.252	0.267	0.280	0.292
권선구	0.229	0.237	0.245	0.255	0.267	0.277
팔달구	0.263	0.270	0.278	0.286	0.295	0.303
영통구	0.173	0.181	0.189	0.200	0.210	0.222

자료 : 수원시(2022), 수원시 사회조사

## 제2절 정책 분석

5060대를 위한 여가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계획 및 정책을 검토하였다. 검토의 대상으로는 ‘신중년 경력설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같이 5060대를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여가 정책과 함께 전 세대를 아울러 고령자의 생애사건에 따른 신체노화 등을 감안하여 연령별 특성에 따라 고령자 관련 계획을 분류·분석하였다.

〈표 3-5〉 정책 분석의 개요

구분	정책	내용
국외	(영국) 영국 중앙정부 여가 부서	여가 행정기구 설립,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여가지원 및 관리
	(중국) 노년관광서비스규범	60세 이상 노년관광 시장의 국가적 개입
	(유럽) Age-Friendly Tourism	자연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관광활성화
국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취미와 라이프 스타일 중심 접근
	신중년(5060대) 경력설계	활기찬 신중년을 위한 5가지 준비 제시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전 국민의 여가참여 기반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가참여 기회 보장
	무장애 관광도시	교통, 편의시설, 정보 접근에 제약 없는 관광도시 조성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노년의 가치를 실현하는 고령친화도시 제2기 중장기 계획 수립
	무장애도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장애도시 환경 추진
	열린관광지	맞춤형 정보 및 콘텐츠 제공을 통한 관광 편의 제고

### 1. 국외

#### 1) 영국

영국의 여가정책은 국민건강, 행복감 증가 및 사회범죄 감소를 목표로 삼고 발전해왔다 (snape,2019). 1970년대는 여가를 국민의 권리로 보고 전 국민의 균등한 여가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복지적 여가정책이 시행되었다.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청소년 비행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여가가 장려되었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시장 지향적 여가정책으로 변화하며 여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었다(Torkildsen, 2012).

여가에 대한 강조는 1973년 콕햄보고서(Cobham Report)의 권고에 의해 시작되었다. 전국의 여가시설을 여가센터로 통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여가행정부서(Leisure Services Councils)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부터 지방정부의 여가기구들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윤소영, 2007).

1992년 중앙정부의 여가관련 업무 전담 부서로 Department for National Heritage가 설립된 후 1997년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로 변경되었다. 또한, 여가관련 행정기구도 통합된 기구로 발전하였다. 1926년 설립된 Institute of Parks and Recreation, 1947년 설립된 Institute of Municipal Entertainment, 1956년 설립된 Industrial Sports Club Secretaries Association, 1983년 설립된 Institute of Leisure and Amenity Management가 2008년 연합하여 Institute for Sport, Parks and Leisure로 통합되었다. 이에 여가시설의 관리표준이 개선되었고 여가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여가 전담 부서의 신설 및 지속 운영은 여가의 국가 주도 모범사례로 많이 소개되었지만, 현지에서는 아직 전 국민의 여가발전에 있어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UK Active, 2022).

〈그림 3-5〉 영국의 여가정책 변화



## 2) 중국

중국의 베이비부머는 2022년 기준 60세로 진입하였으며, 베이비부머의 고령층 진입에 따라 표준성과 통합관리, 전문인력 배치, 은행과 보험 연계된 여행재무관리 등 소비촉진 등 노인관광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국가적 개입을 실행하였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중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관리되는 체제인 계획경제를 바탕으로 중국은 여가분야도 국가적 전략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지하였다(国家信息中心, 2016). 2014년 국무원 관광업 개혁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및 2015년 관광투자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는 노년관광에 중점을 두고 돌봄과 건강을 융합하여 다층화 및 다양화를 고려한 관광상품 개발을 독려했다. 다음 해인 2016년에는 관광청인 국가여유국(国家旅游局)에서 〈노년관광서비스규범旅行社老年旅游服务规范〉을 공포하여 세부적 행동강령을 제시하였다.

2) 국가여유국(国家旅游局)은 2018년 문화여유부(文化和旅游部)로 변경되었다.

노년관광서비스규범은 60세 이상을 위한 관광상품에 대한 세부적 규범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은 <표 3-6>와 같다. 대표적으로 60세 이상의 관광객이 100인을 이상으로 하는 단체여행 시 의사가 동행하도록 규범을 정하여 관광객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였다. 기타 사항은 크게 관광상품과 관광객을 위한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관광상품에 대한 내용으로는 고령자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고위험, 고강도의 관광은 제외하도록 하고 연속 3시간 이하의 활동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고 연속 2시간 이상의 버스 탑승을 제한하였다.

관광객을 위한 내용으로는 서면으로 여행상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이때 글자 크기나 글씨체 등을 알아보기 쉽게 배려하도록 하였으며 60세 이상의 관광객에게는 신분증, 응급약품, 소집 장소 등 여행에 필요한 서류나 물품이 기재된 체크리스트를 따로 제공하여 미리 여행 정보를 인지하고 준비하도록 하였다.

<표 3-6> 노년관광서비스규범

구분	내용
관광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노년관광객에게 적절한 관광지 및 관광활동을 선택하며, 고위험 또는 고강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선 안된다.</li> <li>• 날씨와 계절을 고려하여 연속 3시간 이하의 관광활동을 배정하고 점심시간 후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li> <li>• 버스 탑승 시간은 연속 2시간 이하로 하며 관광지마다 충분한 관광시간을 제공 한다.</li> <li>• 가이드 등 노년관광객을 상대하는 직원은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맞춰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li> <li>• 기차여행 시 야간 기차 또는 연속 8시간 이상 탑승 시 침대석으로 하고 1층으로 배정한다.</li> <li>• 버스 좌석은 여유 있게 예약하며 전체 좌석의 15%는 빈 좌석을 유지한다.</li> </ul>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상품의 내용과 비용 등 서면으로 제공하며 서면의 글자 크기, 글씨체 등 노년관광객이 읽기 편리하게 신경 써야 한다.</li> <li>• 온라인에 60세 이상을 위한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 전화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li> <li>• 안전고지서를 두 부 준비하여 노년관광객을 위해 설명한 뒤 이해한 것을 확인 후 서명, 사측과 관광객 각 1부씩 가져. 안전고지서는 관광활동의 잠재위험과 관광일정 중 주의사항 등 내용을 포함한다.</li> <li>•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체크리스트를 노년관광객에게 한 부 제공하여 신분증, 여권, 상비약품, 소집 장소, 시간 등을 미리 준비하게 하고 정보를 알게 한다.</li> <li>• 60세 이상 관광객 100인 이상인 단체관광은 의사가 동행하여 의약품, 치료, 상담 등을 제공하여 건강과 안전을 담당하게 한다.</li> </ul>

자료 : 旅行社老年旅游服务规范,(2016)

### 3) 유럽

유럽연합은 2011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여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Active and Healthy Ageing(EIP on AHA)을 만들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여가 부문에서는 Age-Friendly Tourism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170여개의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해당 정책의 핵심은 자연환경 활용 및 건강을 고려한 관광 활성화이다. 크게 물리적 환경 개선, 자연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건강상태를 고려한 관광정책 개발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먼저 주요 관광지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물리적 제약 완화를 제안하였으며, 둘째, 자연과 건강, 여가를 결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마지막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신체적 노화에 따른 제약을 고려한 고령자의 안정에 유념한 정책 등으로 상세 내용은 <표 3-7>와 같다. 유럽의 Age-Friendly Tourism은 고령자를 관광약자로만 보지 않는 동시에 많은 이들의 관심사인 건강을 결합하여 관광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특징이다.

<표 3-7> 유럽 Age-Friendly Tourism

구분	내용
물리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 관광지, 교통수단 등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방, 다이닝 룸, 정원, 주차장</li> <li>-침대 옆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li> <li>-조명의 밝기, 언어, 사인 등 적절하게 조절</li> </ul> </li> </ul>
자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과 건강, 웰니스를 결합하여 적극적인 고령자를 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을 활용한 관광은 삶의 질을 높이고 연령으로 인한 가벼운 신체적 증상에 도움</li> </ul> </li> </ul>
건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층의 만성질환 관리를 고려한 관광 안정성 유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용 중 약 관리, 디지털 건강 기록 및 관련 자료 소지 등 휴가 중 건강문제 대비</li> </ul> </li> </ul>



자료 : 유럽연합 홈페이지(<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ip-aha>)

## 2. 국내

###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국내에서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15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및 추진해왔다. 2020년 정부는 넓고 두터워지는 고령층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5060대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을 목표로 한다.

해당 계획 중 5060대 관련 정책으로는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부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의 세부 과제로는 평생교육의 다양화 및 확대, 은퇴·고령층 교육 제도화 추진, 신중년의 여가 기회 확대 등을 제시하며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지원하고 은퇴 후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등의 신중년 노후준비 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사회참여의 방안으로 전문 봉사활동 활성화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활동이 아닌 전문분야의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지원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는 세대 간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스마트 돌봄 기술 개발, 고령친화센터 등의 고령친화사업 육성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전 세대가 공존하며 활발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사회를 도모하였다. 연령통합이란 사회적 역할이 연령이 아닌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다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Peter Uhlenberg, 2000).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가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당 계획은 기존 연령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조정하고 모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기술혁신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표 3-8〉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모두의 역량 발휘	인구구조 변화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퇴 후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등 활성화</li> <li>• 중앙-지방, 민간-정부간 협업을 통해 지역 내 필요 사회서비스 활성화</li> <li>• 신중년 여가 기회 확대(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관광여행 기회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 연령 구분 없이 취미와 라이프 스타일 중심 접근</li> <li>• 세대 간 교류 확대: 기술전수, 자산공유 등</li> <li>• 기존 인구규모에 맞춰진 시스템 선제 조정, 자원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li> </ul>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0), 제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 2) 신중년(5060대) 경력설계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변화와 기술의 발달 속에서 ‘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5060세대의 활기찬 인생 3모작을 목적으로 2019년 ‘한눈에 보는 신중년(5060대) 경력설계 안내서’를 발표하였다. 신중년 경력설계서에서는 활기찬 신중년의 노후를 위한 준비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으로는 은퇴 후의 변화에 대비하기, 나다운 삶을 위한 직업 선택하기, 경제적으로 탄탄히 준비하기, 주변과 풍요로운 관계 맺기, 여가와 건강 알차게 챙기기로 은퇴 전후의 5060세대를 위한 노후 준비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중 특히 ‘주변과 풍요로운 관계 맺기’와 에서는 중후반기 삶에 찾아올 수 있는 고독과 우울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목 모임이나 취미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대인관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여가와 건강 알차게 챙기기’에서는 은퇴 이후의 자아정체성 유지와 삶의 질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봉사형, 취미형, 학습형, 관계지향형, 문화형, 건강관리형, 여행형 등 다양한 종류의 여가활동을 제시하며 여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는 대부분이 여가에 관한 내용보다는 은퇴 이후의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의 종류에 대해서만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신중년 경력설계서는 5060이라는 특정 세대에 대한 노후 준비 내용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표 3-9〉 신중년(5060) 경력설계 안내서

구분	내용
은퇴 후의 변화에 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 후 신중년이 맞게 될 5가지 변화 (지위, 생활 리듬, 소비 수준, 가정 내 역할, 체력) 제시</li> </ul>
나 다운 삶을 위한 직업 선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생 중후반기 새로운 직업의 도전을 위한 자기 탐색과 역량분석, 흥미 및 적성 분석</li> </ul>
경제적으로 탄탄히 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인 중후반기 삶을 위한 체계적 재무관리 및 ‘일’ 장려</li> </ul>
주변과 풍요로운 관계 맺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친목모임, 취미활동 강조</li> </ul>
여가와 건강 알차게 챙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후반기 삶의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의 중요성과 여가활동의 종류 제시</li> <li>•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활동 강조</li> </ul>

자료 : 고용노동부(2019), 신중년(5060)경력설계 안내서

### 3)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고령화 사회, 공동체 회복 등 현안해결 전략으로서 여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18)을 수립하였다.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은 중점 추진대책으로 여가 참여 기반 구축과, 여가 접근성 개선, 여가생태계 확대를 제시하며 국민에게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가 사각지대에 위치한 아동, 노인, 육아계층 등 사회적 여가약자에 대한 여가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 모두의 참여,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여가환경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여가 참여기반 구축에서는 여가인식 확대를 위한 여가 교육 강화와 일상의 여가 공간 확대 등을 제시하며 생애주기 맞춤형 여가 공간 조성을 통해 국민 모두가 다양한 여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직장인을 대상으로 여가교육을 직무교육범위에 포함시키고 교육 점수로 인정하도록 유도하여 은퇴 전부터 여가 인식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여가접근성 개선 부분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의 확대와 장애 없는 여가서비스 구현으로 어린이, 청소년부터 직장인, 실버세대 별 맞춤형 무장애 여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제시하며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대국민 서비스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통해 수요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중 5060대를 포함하는 실버세대를 대상 정책으로는 노인의 특성, 욕구, 신체건강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생애전환기를 준비하고자 하였다. 여가생태계 확대 부분에서는 여가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가공간의 마련하는 등 수요 기반 인력 공급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여가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했다.

이처럼 모든 국민들의 여가참여 기회를 위해 생애주기 별 맞춤형 여가 공간 조성을 제시하는 등 국민 각각을 위한 세부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 또한 신체, 여가역량 등 제약이 있는 아동이나 노인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4) 무장애 관광도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통한 관광 약자의 관광 향유권 확대와 지역 관광의 경쟁력 제고를 비전으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강릉시를 첫 번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3년간 40억 국비와 지방비를 1:1 매칭 투입해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무장애 관광도시는 기존 ‘열린관광지’ 사업을 확대한 사업으로 도시 내 관광지점과의 연계를 중점으로 한다. 무장애 관광도시의 4대 핵심 요소로 모두가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통합 관광정보 제공, 이동권 및 관광인프라 접근성 보장, 무장애 관광서비스 및 인력 양성 강화를 제시하며 모든 관광객을 위한 관광도시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무장애 관광교통 개선, 관광시설 접근성 개선, 무장애 통합관광정보 안내,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안내센터 구축으로 맞춤형 관광안내 및 활동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여행 전 단계부터 여행 시점까지의 전반적 상담 및 코디네이터 지원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한다. 모든 관광객이 동등하게 관광지의 핵심관광경험을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코디네이터는 여행의 일정 계획 전반에 관한 상담을 담당하며 여행 도움은 이동과 관광활동 보조를 담당한다.

〈표 3-10〉 무장애 관광도시 4대 핵심 요소

구분	내용
관광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두가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내 무장애 관광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li> <li>: 온·오프라인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 개선</li> </ul> </li> </ul>
관광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두에게 평등한 이동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 리프트 장착 특장버스, 미니밴 등 무장애 관광교통수단 도입</li> <li>: 대중교통 연계 및 지자체 협력 강화</li> </ul> </li> </ul>
관광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 내 관광인프라 접근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구역 내 숙박시설, 식음시설, 쇼핑시설 등 접근성 개선</li> <li>: 민간업체 인식 개선 및 자발적 개·보수 참여 유도</li> </ul> </li> </ul>
관광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장애 관광서비스 및 인력 양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내 핵심 관광자원 연계 무장애 관광 여행상품 개발</li> <li>: 무장애 관광안내센터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li> </ul> </li> </ul>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2022), 22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

### 3. 수원시

#### 1) 고령친화도시

수원시는 2016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의 고령친화 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였으며 3년간(2016년~2018년) 시행된 과제를 평가하고 제2기 중장기 계획(2020년~2025년)을 수립하였다(이영안, 2019). 제2기 중장기 계획은 수원시 고령친화도시가 생애주기에 따른 활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원시 고령친화도시의 비전인 ‘노년의 가치를 실현하는 고령친화도시 수원’을 위해 4대 정책목표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3-11〉 고령친화도시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정책목표	중점과제
I. 건강하고 유익한 생활환경 조성	1-1. 건강한 100세 노년, 1-2. 다채로움이 가득한 노년
II.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1. 교통약자 배려 도시, 2-2. 정주하고 싶은 도시, 2-3. 노인이 안전한 도시환경
III. 참여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 조성	3-1. 존중과 사회참여, 3-2. 소통과 정보공유
IV. 활기차고 안정된 경제 환경 조성	4-1. 맞춤형 노년 일자리

자료 : 이영안(2019),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 중장기 계획 수립

정책목표와 중점과제 중 기존 고령층과 차별되는 5060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관된 세부 과제는 〈표 3-12〉와 같다. 해당 계획에서는 다채로움이 가득한 노년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 문화예술 행사, 축제를 지원하고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봉사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타 세대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표 3-12〉 고령친화도시 세부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내용
1-2. 다채로움이 가득한 노년	신노년층(40+) 대상의 평생교육 강화	40세 이상 중장년 대상 평생학습관 운영, 회원 활동 및 역량강화 교육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 지원	노년층이 활동하거나 노년층을 위한 공연 단체에 우대 혜택 제공
	50+ 액티브 시니어 축제	5060대 대상으로 축제 개최
3-2. 소통과 정보공유	어르신 문화나눔 프로그램	60세 이상 대상으로 문화교육 제공 후 봉사단 구성
	실버 중심 특화 프로그램	노년기 어르신 글쓰기, 문집 발간, 실용문인화, 작품 전시회 등 지식배양의 기회 제공

자료 : 이영안(2019),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 중장기 계획 수립

## 2) 무장애도시

수원시는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평등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비전으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 계획(2020~2023)을 추진했다(한연주, 2019). 수원시 무장애도시 추진의 기본 계획에서는 그 대상을 무장애 도시의 주요 대상이었던 장애인에서 나아가 고령자, 영유아, 임산부 등 모든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교통·이동, 의사소통·정보, 차별인식, 제도개선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중 하드웨어 부분의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교통·이동 영역에서는 불편함 없이 권리를 인정받으며 이용, 이동할 수 있는 환경기반의 확대를 목표로 총 19가지 정책을 도출하였다. 세부 정책으로는 장애인편의시설기술센터 운영, 시각 약자 배려 안내사인 설치, 특별교통수단 확대, 전동휠체어 관리시스템 구축 등 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의사소통·정보, 차별인식, 제도개선 부문에서는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및 내실화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대체의사소통 도구의 개발이나 수원시청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강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확대 내실화 등 주로 장애인을 위주로 하는 정책을 도출하였다.

수원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은 그 대상을 장애인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나 대부분이 하드웨어 위주의 영역으로 5개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32개의 정책 중에 20개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5060세대까지 아우르기 위한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다.

〈표 3-13〉 수원시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영역	내용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권리를 인정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환경기반 확대
교통·이동	원하는 곳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기반 확대
의사소통·정보	공감하고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기반 확대
차별인식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권리의식 제고
제도개선	무장애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내실화

자료 : 한연주(2019), 수원시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3) 열린관광지

수원시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원화성 연무대, 장안문 화성행궁 등 3개 지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조성 완료하였다. 열린관광지는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이나 활동의 제약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 관광지를 의미한다(송화성, 2020). 수원시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모두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대하여 열린관광도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열린관광지 조성계획은 맞춤형 정보 및 콘텐츠 제공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모든 시민의 보편적 관광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크게 무장애 동선 조성, 열린 관광 콘텐츠 확보, 정보 제공 강화, 종사자 교육 부분으로 나뉘 세부 사업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대상지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휠체어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무장애 동선을 정비하였다. 또한 수원화성, 화성행궁 관광지의 주요시설물 설명에 대한 시청각자료와 수어자료를 제작하여 장애인이나 약사가 있는 고령자 등이 수원화성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이외에도 화장실과 휴게시설, 주차장,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함께 즐기며 제약 없는 수원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수원시 열린 관광지 조성 계획은 기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하드웨어 개선 위주의 정책에서 나아가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 있으나 여전히 65세 이상의 고령자 위주로 5060대까지 아우르기 위한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림 3-6〉 열린관광지



자료 : 송화성(2020), 수원시 열린관광지 조성방안

### 제3절 사례 분석

연령 및 생애사건에 따라 기존 고령자와 대비되는 5060세대의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외 시설 및 프로그램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5060세대를 위한 제반 여가환경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3-14〉 5060대 여가 사례

구분		분석 대상	특성	
시설	서울시	서울 50플러스	신중년 대표 여가 공간 기반 마련	
		서울특별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고령자를 위한 수준별 여가 프로그램 제공	
	수원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신중년 여가 공간 구축	
		팔달노인복지관	고령자를 위한 여가 공간 구축	
		광고노인복지관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통합적 여가 공간	
프로그램	기존 고령자 대상 프로그램		어뮤즈트래블, 어르신 돌봄 여행	개인 맞춤형 시니어 여행상품 개발
			캐나다SDT, STAY PUT여행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여행 코스
			어르신 체조 프로그램	신체적 제약을 고려한 여가 프로그램
	5060대	50대	사내 동호회	직장을 활용한 여가 접근성 확대
			노후 준비 특강	노후 준비 교육 기회 마련
			50+센터, 캠퍼스 100% 활용하기	노후 여가 준비 컨설팅
		60대	신중년 커뮤니티	심층적 여가 활동
			전래놀이 자격 과정	여가를 통한 사회공헌, 재능기부 연계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	여가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마련
			스마트폰 활용 특강	디지털 격차 해소

## 1. 시설

전통적인 고령자 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의 이용연령은 현재 만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중년 이용센터의 경우는 만50세 ~ 64세로 정하고 있다. 이에 시설사례의 경우 시설 이용 연령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시설을 분류하되 60세를 기점으로 이용에 구분을 두었다. 특히 지역별 역할 분담을 살펴보고자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과 신중년 여가시설을 살펴보았다.

### 1) 서울시

#### (1) 서울 50플러스

- 5060세대를 위한 국내 대표 시설로 중장년 맞춤형 공간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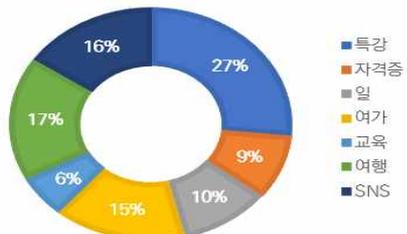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은 국내의 대표적인 50+세대 지원센터로 중장년 세대들을 위한 교육부터 일자리, 여가 및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50플러스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로 일자리, 교육을 위주로 한 활동이 진행되며 취미·여가 활동 프로그램의 비중은 2022년 8월 기준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의 가장 큰 신중년 세대의 지원센터답게 체계적인 운영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0플러스재단의 경우, ‘서울시50플러스포털’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 정보, 교육, 활동, 상담 등 대부분의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검색할 수 있으며 미디어 이용에 미숙할 수 있는 신중년 세대를 위해 포털 사용설명서도 마련이 되어 있다. 진행하고 있는 신중년 프로그램의 카테고리별 분류가 잘 되어 있으며 이용객들을 위한 프로그램 맞춤 키워드를 추천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7〉 서울시 50플러스포털 홈페이지



서울 50플러스 키워드별 운영 프로그램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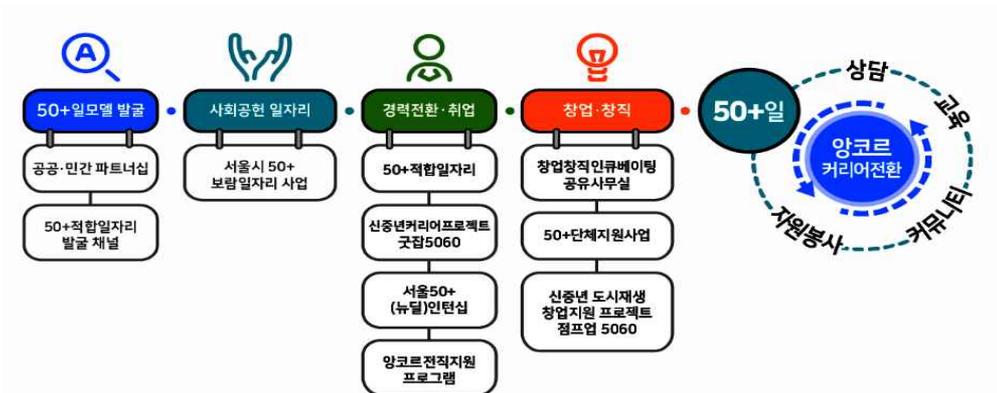
자료 : 서울시 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https://50plus.or.kr/education.do>)

■ 자연스러운 교류와 접근을 위한 체계적 교육·일자리·문화 종합 지원시스템 구축

50플러스재단의 경우 꼭 서울을 거주권으로 갖지 않더라도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는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각 4개의 캠퍼스(서부캠퍼스,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 북부캠퍼스)와 11개의 센터(도심권센터, 동작센터, 영등포센터, 노원센터, 서대문센터, 성북센터, 금천센터, 강서센터, 서초센터, 강동센터, 양천센터)로 이뤄져 있으며 서울시 지역 곳곳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추후 동남캠퍼스와 동부캠퍼스가 각각 강남구와 광진구에 추가로 개관 예정이다.

캠퍼스와 센터는 역할이 구분되는데, 캠퍼스에서는 신중년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 일자리, 문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이자 새로운 신중년 세대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센터의 경우는 보다 작은 규모로 자치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자연스러운 교류와 접근이 가능하다. 센터에서는 각각 자치구의 특성을 담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생재설계 교육, 상담, 사회 참여활동, 사회공헌 아카데미 및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중년 세대의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3-8〉 서울시 50플러스 운영체계



자료 : 서울시 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https://50plus.or.kr/education.do>)

■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통한 교류 및 지역 환원사업 모색

각 캠퍼스, 센터에서는 마을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타 세대와의 교류 활동 기회를 가지며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북50+센터의 경우 지역에 있는 고려대 안암 캠퍼스와 연계한 '1060 문화로 통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대학의 우수 자원을 활용한 강의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고 청년과 중장년층의 세대 융합을 통한 지역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림 3-9〉 서울 50플러스, 세대 소통 프로그램



자료 : 서울시 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https://50plus.or.kr/education.do>)

## (2) 서울특별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

■ 세분화된 수준·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신체적 제약을 최소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여가 영위 지원

서울특별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노년기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영위하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용대상으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주민등록을 서울시에 갖고 있지 않더라도 서울시에 실거주하거나 자녀의 주소지가 서울시라면 복지관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관에서는 이용 대상의 연령층이 높은 만큼 복지를 기반으로 한 노인권익증진사업,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기능회복사업, 재가복지사업, 노인일자리아사업,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중 취미여가사업으로는 교양교육(서예, 명리학, 디카사진반 등), 건강증진(댄스스포츠, 한국무용, 건강스트레칭 등), 취미여가(합창, 오카리나, 민요, 바둑, 장기 등) 컴퓨터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어르신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 활동들이 진행된다. 더하여 노인의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각종 동아리활동 발표회 등의 특별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컴퓨터 초보반, 생활인터넷반, 동영상제작반, 무인단말기활용반 등 이용자의 격차를 고려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건강증진활동들이나 취미활동들 또한 이용자의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어르신들 누구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다양한 취미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표 3-15〉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컴퓨터 프로그램

구 분	내용
컴퓨터 초보반	컴퓨터부팅, 타자연습, 컴퓨터 기본운영방법 등 컴퓨터 기초상식의 이해
생활인터넷반	메일계정만들기, 메일보내기, 인터넷검색, 인터넷 파일 다운로드 등 기초 상식
동영상제작반	동영상의 이해, 동영상 제작 및 편집능력 개발, SNS올리기 등
사진편집 및 영상만들기반	영상개념 이해, 영상제작, 편집, 자막삽입 등
휴대폰활용반	스마트폰 기초, 카카오톡 활용,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활용 등
무인단말기 활용반	무인단말기(키오스크)활용을 위한 교육

자료 : 광진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구성

#### ■ 세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세대통합 지원 사업 운영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역의 어르신과 지역주민 간 소통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세대통합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세대통합 지원 사업은 세대 간 공동체 활동을 통한 교류의 기회를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노인에 대한 고독, 소외감, 선입견 문제를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대통합지원 사업의 구성 프로그램으로는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주제의 교육을 진행하는 세대 교육과 다양한 세대와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대표적인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 ‘슬기로운 스마트세상’ 프로그램은 어르신과 젊은 세대들이 함께 모여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며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대 간 교류활동이 이뤄지는 세대통합축제를 통해 노인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3-10〉 세대통합 프로그램



자료 : 광진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http://www.gsenior.or.kr/>)

## 2) 수원시

### (1) 신중년 이모작 지원센터

■ 수원시 대표 신중년 여가 공간으로 발전 중, 체계적 프로그램 구성 및 접근성 제고 노력 경주  
수원시 신중년 이모작 지원센터는 수원시 대표 5060세대 지원센터로 신중년의 행복한 인생 이모작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주로 인생 후반부의 시작을 돕기 위한 주제(사회적 관계, 일자리, 가정생활, 금융지식, 여가 등)로 인생 재설계부터 모바일, 취미·여가 활동, 역량개발교육, 사회참여 활동 등 신중년 세대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신중년 이모작 지원센터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50세~64세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는 수원시 팔달구에 1개소 위치해있다. 수원시 신중년 이모작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또한 다른 지역의 신중년 센터와 비슷하게 주로 일자리, 교육을 위주로 한 활동이 진행되며 2022년 8월 기준 취미·여가 활동 프로그램의 비중은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6〉 수원시 신중년이모작지원센터 대표 프로그램

구분	내용
특강	여행설계, 타로카드 리딩 노후준비스케치, 스트레스와 마음건강관리 등
제2인생설계	하루체조, 신중년 글쓰기 및 상담, 스마트폰 활용 등
열린강의	종이접기, 가족 공예, 블로그 만들기, 사진편집, 부동산 관리법 등
경력개발	실버공예심리지도사 양성과정, 실버인지돌이지도사 양성과정 등

자료 : 수원시신중년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uwon5060.or.kr)

■ 홈페이지를 통한 접근성 제고 및 수원형 나들이 프로그램 제공으로 흥미 유발  
수원시 신중년 이모작 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는 센터 소개, 운영프로그램, 운영사업, 상담 등 다양한 자료 구독 및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정규 프로그램과 특강으로 나뉘지는데 정규 프로그램은 보통 2개월 과정으로 학기별로 운영되며 학기별로 1인당 2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특강 프로그램의 경우 하루부터 일주일까지 다양하게 진행되며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다.

또한 수원시의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 있는 문화유산 수원화성을 탐방하는 역사 여행 프로그램이나 수원의 팔색길 4코스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프로그램은 정기적 운영 코스가 아닌 특강 형태로 일시적으로 진행되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그림 3-11〉 수원시 특색 여가프로그램



자료 : 수원시신증년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uwon5060.or.kr](http://www.suwon5060.or.kr))

## (2) 팔달노인복지관

- 만60세 이상으로 이용연령 구분, 노인특화 돌봄서비스 제공

팔달노인복지관이 경우 수원시 신증년이모작지원센터가 위치해있는 팔달구에 함께 위치해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팔달노인복지관의 특화사업으로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노인 돌봄 서비스, 주간보호 센터와 함께 간병인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헤아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보다 심층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팔달노인복지관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증진, 취미여가, 평생학습을 카테고리로 하며 1년에 4분기로 진행된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는 성인문해, 외국어, 스마트폰과 PC 활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세부 수준별로 진행한다. 취미여가 프로그램으로는 민요, 노래교실, 서예, 민화 등이 진행되며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는 어르신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기공체조, 시니어댄스, 탁구, 댄스스포츠 등을 진행한다. 또한 팔달노인복지관에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령에 상관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경우 운동 가능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림 3-12〉 팔달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자료 : 팔달노인복지관 홈페이지(<http://pdsenior.or.kr/>)

### (3) 광고노인복지관

- 신도시인 광고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세대 및 지역 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

광고노인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어르신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의 이용대상으로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외에도 지역주민이라면 연령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만 60세 이상이 이용하는 어르신 프로그램과 주민프로그램(미취학, 초등, 성인)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분기별(총 4분기)로 운영되며 지역주민의 각각 세대의 욕구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어르신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주로 노래교실, 무용, 서예, 민화, 탁구, 스마트폰 활용 등 어르신의 정서함양 및 건강한 심신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더하여 광고 노인복지관에서는 젊은 세대에 비해 신체적 제약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온라인 영상을 통해 어르신들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여가 프로그램, 강좌를 즐길 수 있다.

〈표 3-17〉 광고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구분		내용
어르신 프로그램		음악(통기타, 플루트, 장구민요 등) 인문(역사문화탐방, 클래식음악감상, 시창작 등) 언어(원어민영어회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미술/공예(사군자, 서예, 민화 등), 정보화교육(컴퓨터 등) 체조/댄스(한국무용, 라인댄스, 에어로빅 등), 특기교실(탁구, 당구, 포켓볼, 장기, 바둑)
지역주민 프로그램	미취학	키즈밸리, 창의수학, 점핑클레이, 영어동화스토리텔링 등
	아동	주산암산, 세계문화, 이야기한국사, 파닉스 영어, 레고교실 등
	성인	파워다이어트댄스, 줌바댄스, 우쿨렐레 등

자료 : 광고노인복지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구성

-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청춘우리”동아리 사업

광고 노인복지관에서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 사업 “청춘우리”를 진행한다. 공통 관심사, 취미에 따라 활동하며 현재는 합창반, 사진반, 연극반, 난타반의 4개의 동아리가 구성되어있다. 대표적으로는 합창반 “광고시니어콰이어 아리솔”로 평균연령 70세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는 시니어 합창단이 있다. 아리솔은 동아리활동으로 합창 연습을 하는 외에도 지역행사, 봉사활동, 각종 외부 대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청춘우리” 동아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심층적인 취미활동과 함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3〉 광고노인복지관 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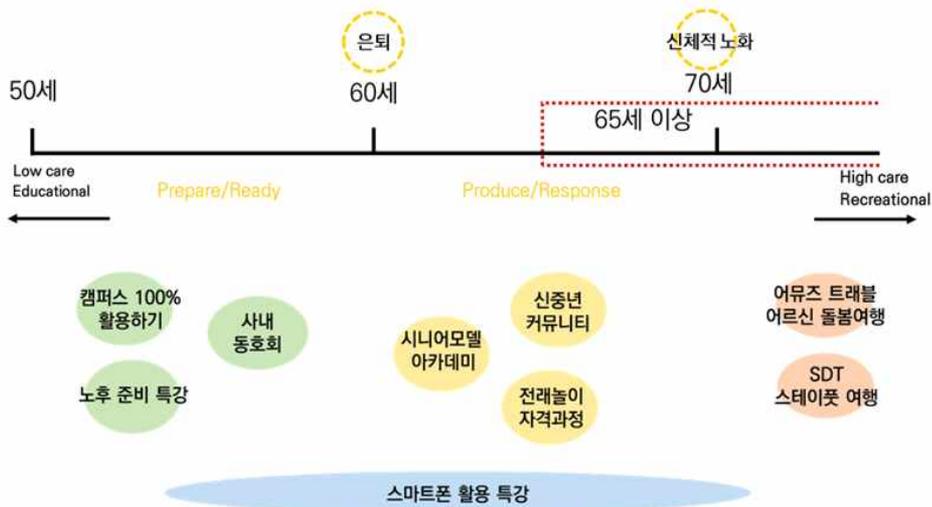


자료 : 광고노인복지관 홈페이지(<http://www.ggsenior.or.kr/>)

## 2.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경우 생애주기 및 주요사건인 신체적 노화와 은퇴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전통적 관점에서의 고령자일수록 신체적 제약을 감안한 돌봄 서비스 제공여부를 살펴보았다. 반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사회적응 및 노후준비의 차원에서 재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그림 3-14〉 프로그램 사례 분석 개요



## 1) 기존 고령자 대상 : 신체적 제약 완화 목표

### (1) 어르신 체조 프로그램

#### ■ 신체적 제약을 고려한 건강 강화 여가 프로그램

각 지역이나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전호흡법, 어르신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을 예방 및 재활하기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 프로그램으로는 어르신들의 기능, 관련성, 난이도 수용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어르신의 개별적인 능력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 체조,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5〉 어르신 체조 프로그램



자료 : 광진노인종합복지관(<http://www.gjsenior.or.kr/>)

### (2) 어뮤즈트래블, 어르신 돌봄 여행

#### ■ 전통적 고령자의 신체적 제약을 감안하여 돌봄 특화 여행 제공

어뮤즈트래블은 관광 약자를 위하여 나이나 신체장애 제약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공하는 무장애 전문 여행사이다. 어뮤즈트래블에서는 가족돌봄 여행, 실버 여행, 장애인 여행에 특화된 다양한 여행 코스 상품을 개발, 제공한다. 그중 고령층을 위한 특화 상품인 어르신 돌봄 여행상품은 공식적으로 여행객의 체력과 취향을 반영한 5개의 여행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 돌봄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은 돌봄이 서비스이다. 시니어를 위한 돌봄이가 여행 내 함께 동행하며 여행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을 제공한다. 이동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는 시니어 여행자들을 위해 경기도 지역 기준으로 여행자의 집에서 단독 차량 픽업 서비스가 이뤄지기도 한다. 또한 여행에 필요한 입장 및 체험비, 식사, 숙소, 여행자 보험, 픽업

서비스, 기사 및 인솔자 등의 대부분 것들이 여행 경비에 포함되어 있어 여행자들은 여행에만 집중하여 편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그림 3-16〉 어뮤즈트래블, 시니어 돌봄 여행



자료 : 어뮤즈트래블 홈페이지(<https://www.amusetravel.com>)

#### 어르신돌봄 여행 지원 서비스

- 고객별 상황 및 니즈에 맞는 개별 맞춤 서비스
- 알러지 등 고객 특이사항 체크 후 간식 및 식사 제공
- 어르신 체력과 취향을 반영한 일정
- 운전, 인솔, 스냅사진촬영, 내부직원 최소 1인 동행
- 돌봄서비스
- 철저한 소독 후 프라이빗 차량 이용
- 집앞 픽업 서비스

#### ■ 시장성이 검증된 개인맞춤형 고비용 여행상품

어르신 돌봄 여행은 최소 4인에서 최대 6인의 소규모로 이뤄지며 기본적으로 철저한 개인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여행객별 특이사항을 확인 후 간식이나 식사가 제공되며 상황이나 요구에 맞는 개별 맞춤 서비스가 진행된다. 공식적인 여행코스 외에도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따라 관광지, 체험, 숙박 등 모든 사항들이 변경 가능하다. 그러나 옵션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어뮤즈트래블의 여행상품은 비용이 타 일반 여행사와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대략 4배 높은 고비용으로 측정되어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호응이 좋으며, 이에 다양한 기관에서 우수 여행사로 선정되었다.

### (3) 캐나다 Senior Discovery Tours, Stay-put여행

#### ■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All-inclusive여행

SDT(Senior Discovery Tours)는 캐나다 대표 노인 전문 여행사로 노인들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여행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SDT 투어의 여행은 전반적으로 여행의 전 과정을 투어 매니저가 여행에 동행하며 여행자를 대신하여 호텔 체크인, 차표 구매 심지어는 여행 팁까지 전달을 해준다. 이 밖에도 SDT 투어에서는 국내 즉 캐나다 내 도시의 경우 시니어 관광객들을 위해 여행자의 집에서 픽업과 하차가 이뤄진다.

여행 비용은 다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지만, 여행 경비에 여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과정(항공료, 자가 픽업 및 하차 서비스, 세금, 숙박, 보험, 식사, 팁, 짐 운반 비용 등)이 포함되어 추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3-17〉 SDT, All-inclusive여행

	SDT투어 포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 픽업 서비스 ( 대부분의 캐나다 도시 해당)</li> <li>• 모든 항공료 및 공항세 *항공 수하물 별도</li> <li>• 대부분의 식사 포함</li> <li>• 엄선된 숙소</li> <li>• 모든 팁(호텔, 운전자, 가이드 &amp; 크루즈 직원)</li> <li>• 여행자 보험</li> <li>• 경험 많은 투어 매니저의 서비스</li> </ul>

자료 : SDT홈페이지(<https://seniordiscoverytours>)

■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천천히 휴식을 취하는 고령자 특화 여행 코스 제공  
SDT는 수많은 여행상품들을 제공하지만, 그중에서도 고령층 여행객의 휴양을 위한 특화 코스인 Stay-put 여행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Stay-put 여행은 말 그대로 여행 일정 자체가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며 과도한 이동을 자제하고 기본적으로 천천히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자유시간을 가지며 투어가 보다 여유롭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젊은 세대에 비해 무리한 일정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고령층 관광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탈리아 투스카니주의 Stay-put 여행 상품이 있다. 이 상품의 여행 코스는 투스카니주의 작은 휴양도시인 비아레조에 머물며 주변의 가까운 도시들을 여유롭게 돌아다니며 도시들의 유명 관광지 및 농장을 방문하고 해변 산책과 쇼핑 등을 즐기는 코스로 진행되고 있다.

〈표 3-18〉 Spring in Tuscany, Italy Stay-Put Holiday 여행 프로그램

구분	내용
체류 기간	14박 15일
운행 경로	1일차 : 자가픽업-Charlottetown 산책 및 가이드투어, 뮤지컬 공연 참석 2일차 : Florence / Viareggio 3일차 : Viareggio 해변 산책, 쇼핑 지역 도보 여행 4일차 : 와인, 올리브오일 농장 방문 5일차 : Viareggio 자유 시간 6일차 : Florence 아카데미아 갤러리, 대성당, 시뇨리아 광장, 미켈란젤로 광장 7일차 : Viareggio 선택 자유 시간 8일차 : Bolgheri / Castagneto Carducci / Livorno 중세마을, 농장 방문 9일차 : inque Terre / Ligure 기차 여행 10일차 : Viareggio 자유 시간 11일차 : Siena / Chianti 대성당, 캄포 광장 방문, 와인 시음 12일차 : Viareggio 자유 시간 13일차 : Pisa / Lucca 피사의사탑, 대성당 방문, 마을 산책 및 자유 시간 14일차 : Viareggio 15일차 : 귀가
금액	\$4,997(세금 포함)

자료 : SDT홈페이지(<https://seniordiscoverytours.ca>)

## 2) 5060세대 대상 : 은퇴 전후 노후준비 차원에서 재교육 제공

은퇴를 기점으로 은퇴 전에는 노후를 맞이하는 세대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으며,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와 함께 심층적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해보았다.

### (1) 사내 동호회: 50대

■ 사내 동아리 운영을 통한 은퇴 전 여유가 부족한 세대들을 위한 여가 접근성 확대  
회사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내 동호회 활동들이 존재한다. 사내 동호회는 일과 가정 때문에 따로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신중년 세대들이 따로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직장에서 쉽게 여가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 동호회 활동은 스포츠 활동부터 꽃꽂이,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 직장인들의 관심사와 흥미에 따라 다양하다. 직장의 분위기 및 특성에 따라 동호회의 성격이나 활동 유형에도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수원시정연구원의 경우 연구기관의 특성을 살려 다른 직장에서는 보기 드문 데이터 분석 동아리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부분이 직무 특성이 반영되어 동아리의 성격으로 나타나는 대표적 특징이다.

〈표 3-19〉 수원시정연구원 사내동아리 운영 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몽게구름 (봉사활동)	몽게구름 (봉사활동)	몽게구름 (봉사활동)	몽게구름 (봉사활동)	몽게구름 (봉사활동)	몽게구름 (봉사활동)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
스피드민턴	오탁구	오탁구	수원트레킹	수원트레킹	수원트레킹
힘을내요 워킹 파워	건강걷기	건강걷기	DSLR (데이터분석)	DSLR (데이터분석)	수스케(그림)
-	요가	꽃꽂이	오탁구	브루잉(커피)	원부(만들기)
-	도시농부(원예)	-	알지ARG (위치기반서비스)	수스케(그림)	화기애애(원예)
-	-	-	브루잉(커피)	원부(만들기)	해방클럽 (스트레스 해소)
-	-	-	서호독서클럽	서호탐조단 (새집설치)	산스장(운동)
-	-	-	-	-	커피리(커피)

자료 : 수원시정연구원 내부 자료

## (2) 노후 준비 특강

### ■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노후 준비 스케치

다양한 기관이나 신중년을 위한 시설에서는 5060대를 위한 다양한 노후 준비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5060대들은 은퇴와 함께 노후를 맞이하는 시점으로 이들을 위해 ‘멋지게 늙는 법’, ‘처음 맞이하는 노후에 대한 대처법’, ‘멋진 인생 웰다잉’ 등 다양한 주제로 특강이 운영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인생 1막을 마무리하며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해 경제적,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 5060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노후 준비 특강 프로그램들은 정규적인 과정과 함께 특강 형태의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은퇴 전 세대들도 쉽고 편하게 수강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18〉 노후 준비 특강



자료 : 수원시신중년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www.suwon5060.or.kr](http://www.suwon5060.or.kr)), 서울 50플러스 포털(<https://50plus.or.kr>)

## (3) 50플러스 캠퍼스 100% 활용하기

■ 처음 캠퍼스를 경험하는 이용객을 위한 캠퍼스 소개 프로그램 제공으로 이용 접근성 확대  
50플러스 캠퍼스에서는 처음 캠퍼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별도의 ‘캠퍼스 100%활용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캠퍼스 100%활용하기는 이용 욕구는 있으나 처음 접해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이용객을 위한 맞춤 과정이다. 캠퍼스 공간 둘러보기부터 캠퍼스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수강 프로그램 및 일, 활동 정보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캠퍼스 관련 정보 외에도 새로운 인생 후반부를 준비하기 위한 인생 후반기 준비 상태 점검, 인생 재설계를 위한 나만의 활용계획 짜기 등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수료 후에는 나이가 다가 비슷한 동년배 컨설턴트에게 1:1 맞춤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림 3-19〉 캠퍼스 100%활용하기 프로그램

자료 : 서울 50플러스 포털(<https://50plus.or.kr/>)

#### (4) 신중년 커뮤니티

■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5060대의 심층적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기회 마련  
 각 지자체에서는 신중년 세대들의 심층적 여가와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 활동비, 전문 교육 등의 지원 커뮤니티 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신중년 세대들의 꾸준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신중년 커뮤니티는 5060세대의 다양한 관심사(일, 학습, 문화, 사회공헌, 취미 등)를 주제로 다양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커뮤니티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커뮤니티 활동의 경우 일회성 취미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연속적이고 심층적인 활동으로 확장해나가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신중년 세대의 커뮤니티의 활동이 재능기부, 사회공헌으로까지 확장되어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활동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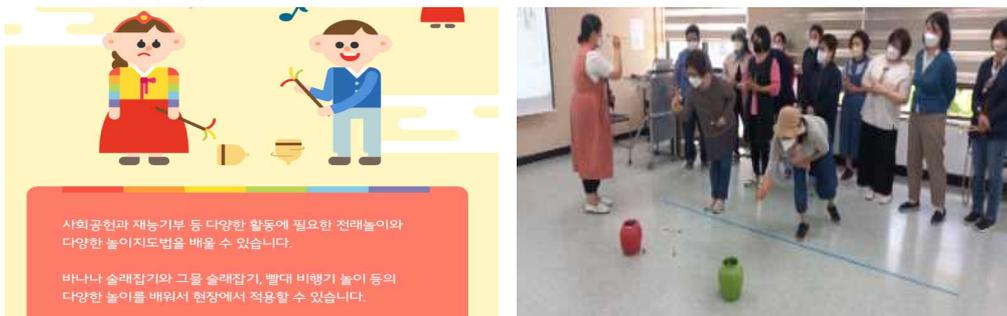
〈그림 3-20〉 신중년 커뮤니티 활동

자료 : 안양시 베이비부머 지원센터(<https://blog.naver.com/abbsc>)

### (5) 전래놀이 자격 과정

■ 여가활동과 심층적 자격 과정 연계를 통한 은퇴 후 세대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전래놀이 입문과정, 심화과정, 자격1,2급 과정 등 수준 별 전래놀이 자격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자격과정인 만큼 일회성 운영이 아닌 정규적인 과정으로 운영되며 보통 짧게는 6주에서 12주간 운영이 된다. 전래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릴 적 추억을 되살리는 실뜨기놀이, 빨대 비행기놀이, 그물 술래잡기 등 다양한 전래놀이와 함께 구체적인 지도 자세나 수업 계획안의 준비법 등을 배운다. 교육 이수와 함께 마지막 과정으로는 창의 전래놀이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육 수료 이후 아동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이나 센터에서 재능기부를 하는 등 사회공헌, 사회참여 활동이 가능하다.

〈그림 3-21〉 전래놀이 자격 과정



자료 : 수원시신증년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www.suwon5060.or.kr](http://www.suwon5060.or.kr))

### (6) 안양 시니어모델 아카데미

■ 시니어모델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5060대의 새로운 도전 기회 제공  
안양시 베이비부머 지원센터에서는 신증년의 못다 이룬 꿈을 펼치기 위한 도전의 기회로 시니어모델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시니어모델 아카데미는 은퇴 이후의 신증년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의 대안과 자신감 있고 활기찬 인생 후반부 삶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는 1년에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총 12주간 운영되며 내용으로는 자세 교정, 워킹, 턴, 포즈, 소품 활용법, 시선 처리 등 시니어 모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이후에는 실제로 패션쇼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는 시니어 모델을 배출하는 등 신증년 세대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 3-22〉 시니어모델 아카데미



자료 : 안양시청(www.anyang.go.kr)

### (7) 스마트폰 활용 특강

- 디지털 시대 속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통한 5060세대의 격차 해소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함께 스마트폰이 보급되며 스마트기기는 일상 속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스마트 기기에 취약할 수 있는 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50+센터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에 미숙할 수 있는 50+세대를 위해 스마트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기 활용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에 미숙한 사람들을 위해 기초부터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 알려주는 기본 스마트폰 활용반은 물론이고 외에도 SNS 활용반, 영상 제작반, 유튜브 활용반, 키오스크 활용반 등 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 활용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3-23〉 스마트폰 활용 특강



자료 : 서울 50플러스 포털(<https://50plus.or.kr/>)

## 제4절 시사점

### 1. 시장 분석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부분 은퇴를 맞이함에 따라 이들의 노후 준비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각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인구 규모를 갖고 있다(Federal Reserve, 2022). 또한 이들은 타 세대에 대비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고 대부분이 2022년 기준 은퇴를 맞이했거나 준비 중으로(Knickman & Snell, 2002; Johnson, Toohey & Wiener, 2016). 은퇴 후 늘어난 시간적 여유와 함께 관광 및 여가활동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AARP, 2020).

미국과 유럽의 베이비부머의 경우 연평균 4~5회 관광/여행 활동을 하며 해마다 관광/여행 투자비용이나 여행 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또한 2020년 노년 관광시장 규모는 약 16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였으며(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2040년에는 노년 관광이 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중국 노년 관광산업 발전 현황 및 추세연구, 2020).

국내의 경우에도 5060대가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했으며(통계청, 2021)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고용노동부, 2021) 이들의 경우 여가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높은 자아실현 및 교육 욕구를 보였다(임정미, 2020).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나 여가산업은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

수원시의 경우에도 5060대 인구 비중은 수원시 전체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수원기본통계, 2020). 그중에서도 특히 영통구는 타 행정구 대비 5060대의 비중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은 가장 높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수원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5060대 인구와 함께 이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5060대의 여가 수요에 맞춘 여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 2. 정책 분석 시사점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5060대의 노후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고령자 정책은 돌봄 중심의 정책으로 건강하고 적극적인 5060대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5060대를 칭하는 신중년이라는 용어는 고용노동부에서 베이비부머의 은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식적으로 사용하여 일자리 중심의 정책 위주로 발표되었다(고용노동부, 2019). 기존 고령층과 다른 5060대의 인식 전환은 이루어졌을 수 있으나 아직 여가 영역의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5060대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집단 내 다양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여가수요의 파악이 필요하다.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고령친화도시’ 등에서 5060대의 노후 준비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여가활동에 대해 일부 언급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자리 혹은 돌봄 서비스 위주로 5060대를 위해 세부적으로 구분된 정책은 미비하다. 그러나 기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5060대는 신체적 제약이나 생애 주기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5060대의 여가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신중년(5060) 경력설계서’ 또한 5060세대의 여가 중요성에 대해 일부 다루고 있지만 여가에 관한 내용은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5060대의 여가 인식 수준이나 여가 수요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5060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만 국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및 정책을 필요하기에 65세 이상의 기존 고령자뿐만 아니라 5060대를 위한 여가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근거가 필요하다. 수원시 또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5060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혜적 복지를 넘어 5060대의 여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별도의 구분된 정책이 필요하다.

## 3. 사례 분석 시사점

국내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5060대가 전체 인구의 약 30%(통계청, 2021)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5060대의 노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5060대 여가 조성 환경을 살펴보면 기존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5060대의 여가 시설 이용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제공 프로그램 또한 각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동일한 중장년층이라도 개인의 생애 주기·사건에 따라 갖고 있는 신체조건이나 사고, 요구 여가 활동에 차이가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국내 50대 경제 활동 참가율은 78.9%로(통계청, 2022) 5060대들이 시간적 여유 부족 문제로 정기적인 여가 활동에는 제한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과 동시에 신중년 노후 희망 활동조사 결과, 취미 활동이 52.8%로 나타났다.(황남희, 2019)

이에 국내의 대표 신중년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50플러스 센터에서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중년을 위한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5060세대의 활기찬 노후를 도모하고 있다. 50플러스 센터에서는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는 자격과정과 연계한 여가활동이나 노후 준비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노인복지관과 차이가 있다.

사내 동호회의 사례에서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을 위한 회사 내의 동아리를 운영하여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 환경 마련을 통해 여가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내 동아리는 은퇴 전부터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은퇴 이후의 노후 생활에도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발판의 역할로 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수원시의 5060대를 위한 시설로는 팔달구에 위치한 신중년 이모작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외에는 단지를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정의 형태로 위치하고 있다. 신중년 이모작 지원센터에서는 일자리,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취미·여가 활동은 약 23% 수준에 그친다.(2022년 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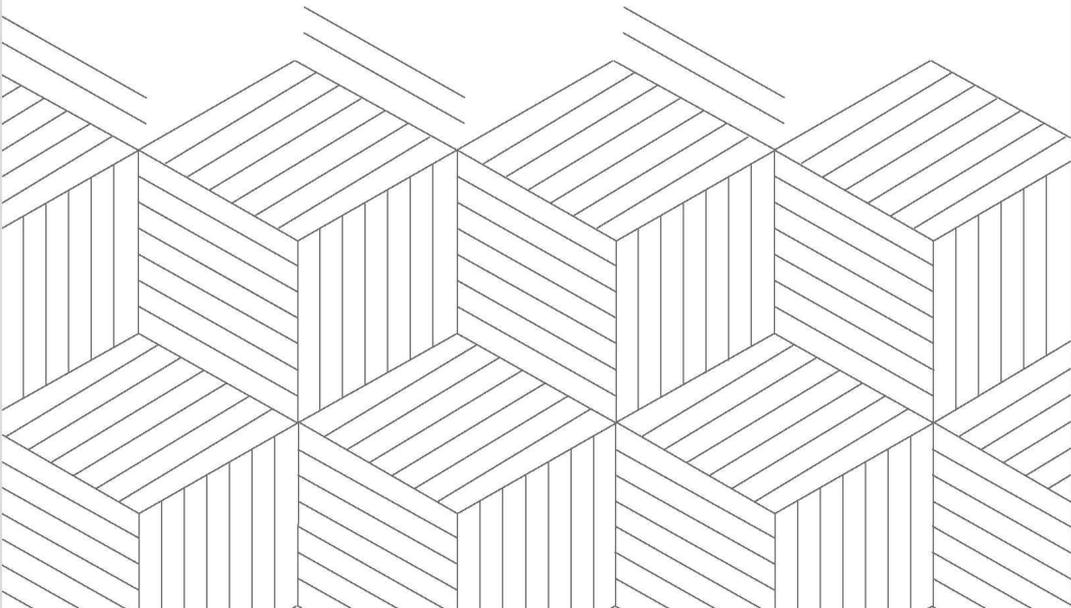
그러나 수원시에서도 5060대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수원기본통계,2020) 5060대를 위한 생애 주기별 구분된 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동호회의 사례와 같이 일회적이고 비연속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하는 등 은퇴 전부터 신중년 세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 환경을 구축하고, 5060대의 개별적 여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대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과 다양한 여가 활동 비율을 증진한다면 5060세대의 능동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정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디지털 기기 사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신중년 세대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수원시 5060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제4장

## 5060대(신중년) 관련 조사 및 분석

제1절 5060대(신중년) 여가 실태  
제2절 문화여가 패턴 분석  
제3절 시사점





## 제4장 5060대(신중년) 관련 조사 및 분석

### 제1절 5060대(신중년) 여가 실태

#### 1. 분석 개요

5060대의 여가 실태는 여가선호 변화 추이, 타 연령대비 성향 및 수원시 특성 파악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2018)’, ‘수원시 사회조사(수원시, 2019)’이며, 해당 조사의 여가 관련 항목과 함께 일반 생활 관련 항목을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분석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전국 5060대의 생활 및 가치관을 조사한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통해 5060세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해당 자료는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2010)’와 비교를 통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의 특성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기에 이를 통해 5060대의 생활패턴 변화를 확인하였다. 둘째, 여가활동을 세분화하여 여가 실태 및 추이를 분석한 ‘국민여가활동조사(2014, 2019)’를 통해 여가활동의 세분화와 변화 추이를 검토하였다. 2014년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50대가 된 해이기에 5년 후인 2019년과 비교 분석하여 베이비부머가 편입된 60대 및 변화된 50대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추가로 2019년을 기준으로 타 세대 대비 5060대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수원시 사회조사’를 사용하여 수원시 5060대 여가 실태 및 지역(시/행정구)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림 4-1〉 분석 자료



## 2.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1) 분석 배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는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통해 5060대의 삶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2010년 대비 변화된 생활상과 가치관을 비교분석한 자료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 일반가정에 거주하는 50-69세 약 4,000명이며, 해당 연구는 2010년 실시한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와 조사항목이 동일하여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46-59세(2010년 베이비부머) 중 50대와 비교하였다.

〈표 4-1〉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목적	신중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생활실태 및 욕구 파악	
조사대상	전국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5060대(50-69세, 유효표본 4,006명)	
조사연도	2019년(2010년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와 50대 비교 가능)	
표본추출	지역별 비례배분(전국 허용오차 0.7%)	
분석항목	<b>구분</b>	<b>세부 항목</b>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 상태, 가구소득
	가족사회관계	부모 부양, 자녀, 친구 연락 등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 만성질환 등
	사회참여	여가활동, 사회참여 활동 등
	노후 가치관	노후 생활비, 연금, 자녀의 부양 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2)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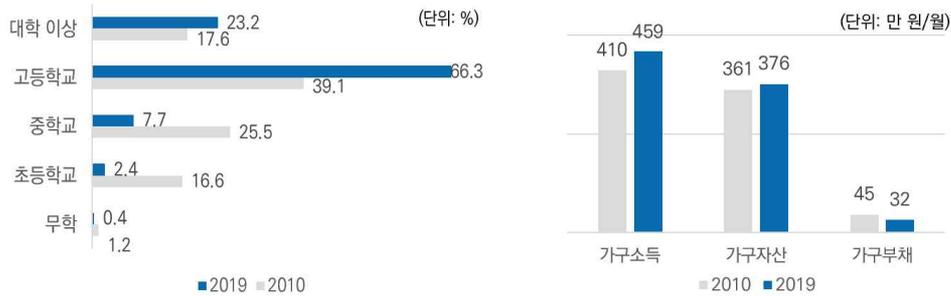
해당 연구의 유효 표본은 4,006명이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58.2세이었다. 약 78.3%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77.4%가 취업 상태였다.

분석 결과, 2010년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대비 2019년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50대의 교육 수준 및 경제 상황이 향상되어 5060대의 고학력 고소득 특성을 확인하였다.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은 2010년 57.5%에서 2019년 89.5%로 증가하였고, 이는 2019년 5060대 전체 평균인 78.3%보다 높아 향후 5060대의 교육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50대의 가구 소득, 자산, 부채를 확인한 결과 가구 소득은 410만 원에서 459만 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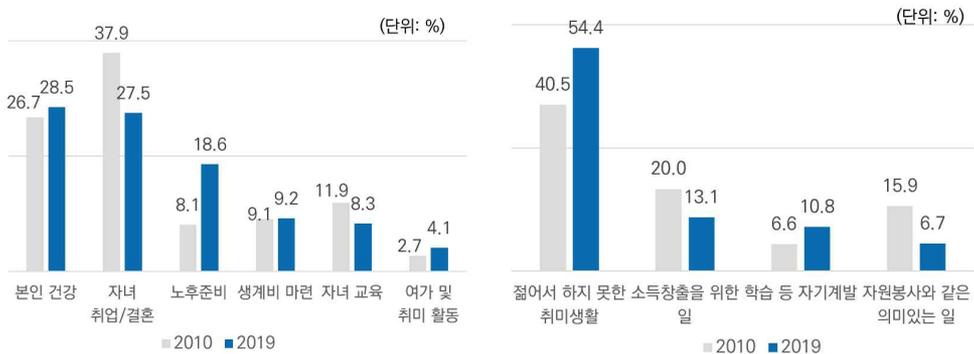
자산은 361만 원에서 376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가구 부채는 45만 원에 32만 원으로 감소하여 실질적 경제 상황의 향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4-2〉 50대 학력 및 경제 상황



한편, 50대 여가 관심 및 의향에 대해서는 여가 관심 및 노후 여가 의향 또한 2010년 대비 2019년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 관심사 중 본인의 건강과 노후, 여가 관심은 증가한 반면 자녀에 대한 관심은 감소해 자신의 노후 준비 관심 증가를 나타내었다. 또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으로 취미생활 및 자기계발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1순위로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겠다는 응답이 40.5%에서 54.4%로 증가하였고, 학습 등 자기계발을 하겠다는 응답이 6.6%에서 10.8% 증가해 변화된 여가 인식과 늘어난 여가 수요를 나타내었다.

〈그림 4-3〉 50대 여가 관심 및 의향



### 3. 국민여가활동조사

#### 1) 분석 배경

‘국민여가활동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 만 15세 이상 남녀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 여가 수요에 미치는 활동 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항목은 조사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2014년 대비 2019년 동일 활동 유형에 새로 추가된 항목은 아래와 같다. 취미·오락 활동 중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공부·학원 등 이용, 원예가 추가되었고, 휴식활동 중 ‘아무것도 안 하기’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는 교육 욕구 증가와 동시에 소극적 여가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여가 트렌드 및 변화하는 여가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구를 통해 5060대의 여가 참여 추이 및 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표 4-2〉 국민여가활동조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조사대상	전국 17개의 시·도의 만 15세 이상 남녀	
조사연도	1차(2006)~8차(2020), 2019년부터 조사주기 변경(2년→1년)	
유효표본	2014년(10,034명), 2019년(10,060명)	
분석방법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를 모집단으로 다단계층화집락추출	
분석항목	구분	세부 항목
	여가활동 참여	A. 문화예술 관람, B. 문화예술참여, C. 스포츠 관람, D. 스포츠 참여, E. 관광, F.취미오락, G. 휴식, H. 사회 및 기타 활동  2014년 대비 2019년 동일 활동유형에 새로 추가된 항목 : F. 취미오락활동→어학·기술·자격증 취득 공부·학원 등 이용, 원예, G. 휴식→아무것도 안하기
	여가활동 동반자	혼자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호회 회원, 직장 동료, 기타
	여가활동 만족도	만족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여가 정책 중요도	다양한 여가시설, 질 좋은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배치, 동호회 육성/지원, 소외계층 여가활동 지원, 법규 제도 개선, 휴가 법적 보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 2) 분석 결과

2014년도 유효표본은 10,034명이며 이 중 50대는 18.0%를, 60대는 11.7%를 차지하여 5060대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약 75.3%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유하였고, 약 7.8%가 600만 원 이상의 가구 소득을 보고하였다.

2019년도 유효표본은 10,060명으로 2014년도 표본 크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5060대

의 비율도 201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각 18.7%와 13.2%로 전체의 31.9%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4년(75.3%) 대비 증가하여 77.0%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 또한 증가하여 5년간 전 국민의 평균 교육 수준과 가구소득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4-3〉 국민여가활동조사 표본 특성

(단위: 명, %)

구 분		2014		2019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성별	남성	4,791	47.7	5,028	50.0
	여성	5,243	52.3	5,032	50.0
연령 (15세 이상)	15~49세	5,834	58.2	5,657	56.2
	50대	1,810	18.0	1,877	18.7
	60대	1,169	11.7	1,324	13.2
	70세 이상	1,221	12.2	1,202	11.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75.3)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77.0)		
	초졸 이하	1,305	13.0	1,151	11.4
	중졸	1,167	11.6	1,164	11.6
	고졸	4,067	40.5	3,940	39.2
	대졸이상	3,495	34.8	3,805	37.8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087	20.8	1,868	18.5
	200~400만 원	3,906	38.9	3,797	37.7
	400~600만 원	3,251	32.4	3,179	31.6
	600만 원 이상	786	7.8	1,216	12.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2014년과 2019년 여가활동 실태 및 추이는 〈그림 4-4〉와 같다. 전체 연령 대비 5060대의 휴식 참여율은 높은 반면 취미·오락 활동은 낮은 특성을 보였다. 2014년 대비 2019년 5060대 세대는 휴식활동의 감소와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 증가로 증가한 여가 욕구를 나타내었다. 특히 취미·오락 참여율은 50대의 경우 9.2%에서 18.0%로, 60대의 경우 3.7%에서 11.3%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문화예술 관람은 예외적으로 2014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몰입도가 더 높은 문화예술 참여 활동은 증가(50대: 0.4%에서 1.7%로) 또는 비슷한 수준(60대: 1.2%에서 1.1%로)을 유지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지속해서 젊은 세대가 5060대로 유입되기에 더욱 풍부한 여가생활 향유를 기대해볼 수 있다.

한편 2019년 5060대 집단 내 차별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휴식활동 이외 여가활동 참여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50대 대비 60대의 사회적 역할 상실 또는 신체

적 문제에 따른 제약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집단 내 차이는 2014년도 대비 전반적 활동에 있어 집단 내 차이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2014년도 50대 대비 60대가 많이 참여한 활동으로 사회 및 기타, 관광 등을 포함하는데 2019년도에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기존 60대와 다른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여가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4-4〉 2014년, 2019년 5060대 여가활동 참여



세부 여가활동 중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은 〈표 4-4〉과 같다. 2014년도 5060대는 TV 시청, 산책, 등산, 목욕, 친구 만남/동호회 모임 등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이 중 50대 대비 60대의 친구 만남/동호회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더 많아짐에 따라 도출된 결과임을 유추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5060대는 TV 시청, 쇼핑/외식, 잡담/통화/문자, 산책, 목욕 등에 많이 참여하였고, 이 중 쇼핑/외식은 2014년도 참여 활동 중 상위 5순위에 들지 않았던 활동이다. 특히 50대는 참여 활동 5순위로 인터넷 검색/1인 미디어 제작/SNS이라 응답하여 2014년도와 차별되는 새로운 여가환경 및 수요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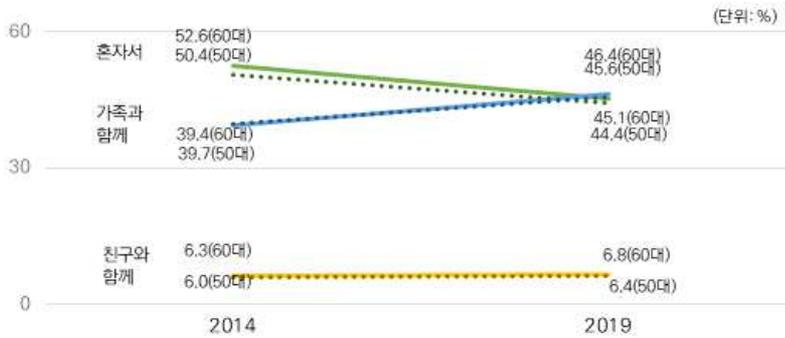
〈표 4-4〉 가장 많이 참여한 세부 여가활동 상위 5순위

(단위: %)

구분	2014년		2019년	
	50대	60대	50대	60대
1순위	TV 시청(83.3)	TV 시청(90.0)	TV 시청(80.0)	TV 시청(86.5)
2순위	산책(35.5)	산책(54.4)	쇼핑/외식(42.2)	산책/걷기(52.2)
3순위	등산(31.3)	친구만남/동호회(33.7)	잡담/통화/문자 (39.4)	쇼핑/외식(38.4)
4순위	목욕 등(29.2)	목욕 등(27.4)	산책/걷기(36.2)	잡담/통화/문자 (34.7)
5순위	친구만남/동호회 (28.4)	등산(24.2)	인터넷검색/1인 미디어 제작/SNS (30.5)	목욕/사우나/찜질방 (30.1)

5060대의 여가활동 동반자의 순위 변동이 확인되었다. 2014년에는 혼자서 여가활동을 하는 50대와 60대가 각각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많았지만 2019년 이 비율이 감소하여 가족과 함께 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외에도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위해 다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한편 2014년과 2019년 두 해 모두 50대와 60대의 동반자 차이는 근소한 것으로 나타나 5060대의 동반자 변화 트렌드는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5〉 5060대 여가활동 동반자



2014년도 및 2019년도 5060대의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림 4-6〉과 같이 경제적 부담 응답비율이 감소하고, 시간 부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60대의 증가한 불만족 이유로는 이전 경험 부족(10.4%), 함께 즐길 사람 부재(4.0%), 그리고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5.7%)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 감소는 평균 가구 소득이 증가함과 더불어 나타난 변화로 유추할 수 있어 여가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또한 시간 부족은 특히 50대의 증가 폭이 컸는데, 이는 직장 생활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기에 은퇴 전인 경우 회사에서 진행되는 동호회 모임 등 직장 내 교류를 통해 여가 정보 획득 및 여가 경험 제고가 필요하다.

〈그림 4-6〉 2014년, 2019년 5060대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2014년 및 2019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가 정책 1순위는 다양한 여가시설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50대와 60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는 30.5%에서 5년 사이 43.4%로 증가하였고, 60대는 26.7%에서 47.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 의향이 높아지며 여가활동이 펼쳐지는 시설의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5〉 5060대 가장 중요한 여가 정책 1순위

(단위: %)

구분	2014년		2019년	
	50대	60대	50대	60대
다양한 여가시설	30.5	26.7	43.4	47.3
질 좋은 프로그램 개발/보급	23.5	24.5	24.0	22.3
소외계층 여가 지원	15.6	18.0	8.0	11.6
전문인력 양성/배치	12.3	11.6	8.8	7.7
동호회 육성/지원	8.3	9.4	4.7	3.2

#### 4. 수원시 사회조사

##### 1) 분석 배경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수집된 자료인 제8회 수원시 사회조사(2019)를 사용하여 해당 항목을 재분석하여 전국 대비 수원시 5060대의 여가생활 실태 및 특성(세대 특성, 집단 내 차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4-6〉 수원시 사회조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조사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조사연도	1차(2012)~9차(2021), 2020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사 중단	
유효표본	3,140명(2019)	
분석방법	수원시 지역별 통계생산을 위하여 구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제곱근비례배분	
분석항목	<b>구분</b>	<b>세부 항목</b>
	기본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 지역
	공연 및 스포츠 관람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참여여부 및 빈도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TV 시청,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자기개발 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여가생활 만족도	만족도, 불만족 이유	

자료: 수원시(2019), 수원시 사회조사

## 2) 분석 결과

수원시 사회조사 8차년도의 유효표본은 3,140명이며 표본의 특성은 <표 4-7>에 제시하였다. 행정구역으로 구분했을 때 권선구(28.1%), 영통구(26.8%), 장안구(24.5%), 팔달구(20.6%)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2019 수원시 사회조사 표본 특성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성	1,150	48.1
	여성	1,630	51.9
연령 (15세-99세)	평균 47.0세 (표준편차 17.6세)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75.3)		
거주지역	권선구	881	28.1
	영통구	841	26.8
	장안구	770	24.5
	팔달구	648	20.6

수원시 5060대의 여가활동 참여율은 전체 연령 대비 문화예술 관람과 컴퓨터 게임/인터넷 참여율이 낮지만 50대의 스포츠 활동(7.0%), 취미/자기 개발(5.3%), 사회/기타(3.3%) 등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중 문화예술 관람활동에 있어 5060대의 참여율이 TV 시청 및 휴식활동 제외 가장 높게 나타나 높은 참여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50대가 60대 참여율의 약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 내 차이도 존재했다. 이는 연령에 따른 선호 활동에 차이일 수 있지만 정보 및 시설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림 4-7> 수원시 5060대 여가활동 참여



지난 1년간의 공연 및 스포츠 관람활동 참여여부는 57.5%의 50대와 33.6%의 60대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전체 연령(59.7%)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총 몇 회 관람활동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60대의 참여 빈도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관람 활동 중 몰입도가 높은 미술관(8.3회), 박물관(4.1회), 무용(3.0회) 관람에 있어 60대의 참여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표 4-8〉 수원시 5060대 공연 및 스포츠 관람활동

(단위 : %)

구분	관람 여부 및 관람 빈도		
	50대	60대	전체 연령
<b>지난 1년간 관람 여부(%)</b>			
관람한적 있다	57.5	33.6	59.7
<b>관람 빈도(회)</b>			
영화	5.1	4.4	5.9
스포츠	3.8	4.4	3.9
음악/연주회	1.9	2.2	2.2
연극/마당극/뮤지컬	2.0	1.2	2.1
미술관	2.0	8.3	2.3
박물관	1.9	4.1	2.5
무용	1.4	3.0	1.9

수원시 5060대가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표 4-9〉과 같으며, 5060대 모두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었다. 연령별 차이로는 50대는 시간부족을 응답한 반면 60대는 체력이나 건강 문제를 여가생활 제약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60대의 경우 은퇴와 같은 생애 사건과 연령에 따른 건강 상태가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노년층의 여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노후 준비를 위해 50대들은 자신의 여가 관심 분야를 탐색하여야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여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4-9〉 수원시 5060대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단위: %)

구분	50대	60대
1순위	경제적 부담 (51.9)	경제적 부담 (53.9)
2순위	시간부족 (30.2)	체력이나 건강 문제(15.7)
3순위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7.0) / 체력이나 건강 문제(7.0)	시간부족 (14.6)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앞으로 필요하거나 늘려야 하는 공공시설 중 여가 관련 시설에 대해 50대는 공원, 녹지, 산책로(25.0%), 사회복지시설(22.6%) 순으로 60대는 사회복지시설(36.1%), 공원, 녹지, 산책로(18.2%)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50대는 사회복지시설 외에 모든 공공시설에서 60대보다 높은 필요성을 제기하여 자신의 신체적 제약이나 선호하는 활동에 따른 차별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행정구별 필요 공공시설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60대 대비 50대는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영통구 60대는 50대 대비 체육 시설과 도서관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지하였으며 타 행정구 60대 대비 공원, 녹지, 산책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 다양한 공공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수원시 5060대 지역별 필요 공공시설

(단위: %)

구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50대	60대								
공원, 녹지, 산책로	25.0	18.2	33.5	18.0	17.1	11.6	24.0	21.7	25.3	21.9
사회복지시설	22.6	36.1	22.8	47.2	12.4	23.2	25.3	40.9	31.0	31.3
문화예술회관	11.9	5.5	9.0	3.3	18.2	9.5	6.7	3.5	13.3	6.3
체육시설 및 경기장	11.5	9.6	13.2	9.0	10.6	9.5	12.0	9.6	10.1	10.9
도서관	6.5	3.9	7.8	4.5	5.9	1.1	7.3	4.3	5.1	6.3

## 제2절 문화여가 패턴 분석

### 1. 분석개요

#### 1) 분석 배경 및 분석내용

수원시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이 있으며, 이를 소재로 ‘정조능행차’, ‘무예 24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수원화성 인근에는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분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여가생활 향유, 특히 여가활동 중 문화관광 및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기 용이하다(송화성, 2021)

수원시(2019)의 수원사회조사 결과, 역사·문화 인프라가 풍부한 수원시의 5060대 시민은 문화체육관광부(2019)의 ‘국민여가활동조사’와 비교해볼 때 전국 동일 연령 대비 문화관광 및 문화예술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시 사회조사는 여가활동에 관한 문항이 제한적이며, 해당 세대에 대한 샘플 수도 적어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여가 패턴을 분석하고 유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여가활동 및 삶의 전반적 영역을 조사한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5060세대의 문화여가 패턴을 이해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서울대학교 노화·고령화연구소(2014)에서 실시한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데이터이다. 해당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베이비부머의 은퇴 전인 2010년부터 격년으로 3차년도까지 진행된 시계열 연구이다. 특히 타 세대 대비 베이비부머의 특성 파악, 해당 집단 내의 이질성 파악, 노부모와 자녀 사이에 위치한 중간 세대로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기에 2014년 기준 베이비부머 세대 전체가 50대로 구분되는 해당 자료를 중심으로 은퇴 전의 여가생활양식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의 3차년도 데이터이다. 3차년도는 <표 4-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국 15개 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베이비부머 4,668명을 추적 조사하여 삶의 전반적인 실태와 가치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체 베이비부머가 50대에 집중된 3차년도(2015) 자료는 수집된 자료 중 가장 마지막 연도이자 정교화된 여가활동 문항을 보유한 자료임이다. 특히 2014년은 베이비부머 세대 전체가 50대에 해당되는 해이기에 50대의 특성을 보기에 용이하다. 이에 해당 데이터를 중심으로 문화여가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표 4-11〉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조사기관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 연구소 및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 공동	
연구목적	한국 베이비부머의 삶을 이해하고 노화에 따른 개인과 가족, 사회적 변화 파악	
조사대상	전국 15개 시/도의 도시 지역,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조사연도	1차(2010)~3차(2014), 격년 조사	
표본추출	권역별 비례배분(전국 허용오차 1.49%)	
조사항목	구분	세부 항목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 상태, 가구소득
	은퇴	은퇴여부(은퇴, 근로자, 해당 없음)
	여가활동	A. 문화예술 관람, B. 문화예술참여, C. 대중문화 관람, D. 대중문화 참여, E. 스포츠 관람, F. 스포츠 참여, G. 관광/여행, H. 취미오락, I. 휴식, J. 사회 및 기타 활동
	여가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가치와 태도	배우고 싶은 운동이나 취미가 많다, 노후에 일자리보다 여가, 취미활동을 하고 싶다
	재무 관리 행동	가계 상황 만족도, 경제적 자원 분배(현재 삶, 노후 삶, 자녀, 부모)

자료: 서울대 노화·고령사회 연구소&Metlife Korea Foundation(2014),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3차년도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4-12〉와 같다. 전체 4,053명 중 고졸 이상은 77.0%이며, 동일년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고졸 이상의 학력이 24.4%로 나타났다(노인실태조사, 2014). 한편 해당 표본의 평균 가구소득은 약 5,385만 원으로 당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평균 소득이 2,305만 원(노인실태조사, 2014)이며, 전국 평균은 5,162만 원(통계청, 2014)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고령자 대비 베이비부머는 고학력·고소득자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퇴자는 약 6.4%를 차지하여 대부분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년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1.5%가 미취업인 것으로 확인되어(노인실태조사, 2014) 50대의 베이비부머와의 차이를 보였다.

〈표 4-12〉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3차년도(2014)

구분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성	1,877	46.3
	여성	2,176	53.7
연령 (51세-60세)	평균 55.03세 (표준편차 2.5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 77.0% *65+ 노인인구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 24.4%(노인실태조사, 2014)		
가구소득	5,385만 원(표준편차 3,168만 원) *65+ 노인인구 소득 2,085만 원; 전국 평균 소득 4,302만 원(통계청, 2014)		
은퇴여부	은퇴자 6.4%, 근로자 81.0%, 전업주부/취업 경험 없는 자 12.6% *65+ 노인인구 미취업 71.5%(노인실태조사, 2014)		

자료: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3차년도 보고(2015); 노인실태조사, 2014; 통계청, 2014

## 2) 문화여가활동의 개념 정의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화여가활동을 Tuisku et al, (2016)의 개념 정의와 같이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활동을 포함하여 소극적 활동(음악 감상 등)에서부터 직접 참여하는 활동(박물관 관람, 유적지 및 축제 참가 등), 적극적인 생산 활동(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문화관광은 문화에 대한 관광이나 대상(물)인 문화 자체를 관광하는 행위(조광익 외, 2022; Richards, 2013) 박물관이나 유적지 등 문화적 성격을 지닌 목적지로의 여행을 칭하며, 역사관광, 전통/민속관광, 대중문화/엔터테인먼트 관광 등 여러 분야와 축제이벤트, TV 여행프로그램 또한 문화관광의 세부 영역으로 포함된다. 한편 문화예술 활동은 TV 시청과 같은 일상적 활동에서부터 미술이나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예술 활동을 포함한다(조광익 외, 2022).

둘째, 문화여가는 시청·감상, 방문·관람, 창조·생산 등 세부 활동의 참여 수준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였다. 여기서 참여 수준은 일상적/진지한 여가(Stebbins, 2008)와 옴니보어·유니보어 이론(Peterson, 2005)을 사용하여 몰입과 다양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일상적/진지한 여가는 여가의 활동 특성 및 참여자의 경험에 따라 분류된다. 예를 들어 많은 노력이나 기술이 필요 없고 즉각적 보상이 뒤따르는 가벼운 활동으로 분류되는 일상적 여가인 반면, 진지한 여가는 기술,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활동이며 경력을 개발할 수 있기에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다양성을 고려한 유니보어(Univore)·옴니보어(Omnivore)이론은 여가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여가 수준에 초점을 맞춘 진지한 여가와 달리 얼마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지에 핵심을 두었다. 유니보어(Univore)는 활동의 폭이 좁은 참여 특성을 의미하며 옴니보어(Omnivore)는 폭넓고 다양하게 문화를 향유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클래식을 즐기는 사람이 대중음악 또한 많이 듣는 것이 옴니보어라면 대중음악만을 깊게 듣는 경우는 유니보어라 정의된다.

## 2.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 (1) 구성항목 및 상관요인

문화여가 패턴분석에 사용된 평가항목은 <표 4-13>과 같이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2014년)의 여가활동의 영역별 세부 활동을 문화여가 및 참여 수준 부합 여부에 따라 분류·선정하였다. 여기에서 참여 수준은 시청·감상, 방문·관람, 창조·생산에 순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스포츠 관람 및 참여, 취미·오락 활동, 사회·기타 활동은 문화여가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대중문화 관람 및 참여는 참여 수준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4-13>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여가활동 항목

영역	세부 활동	조건	
		문화여가	참여수준
1. 문화예술관람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관람, 전통예술공연 관람, 무용 공연 관람, 기타 문화예술 관람	○	○
2. 문화예술 참여	문예창작/문학행사, 미술활동, 악기연주, 전통예술 배우기, 무용 배우기, 사진촬영, 기타 문화예술 참여	○	○
3. 대중문화 관람	영화 관람, 연극/뮤지컬 관람, 연예공연 관람, 기타 대중문화 관람	○	×
4. 대중문화 참여	연기, 뮤지컬 등 연습, 노래교실, 기타 대중문화 참여	○	×
5. 스포츠 관람	스포츠 경기 직접관람, 스포츠 경기 간접관람, 온라인게임 경기 관람, 기타 스포츠 관람	×	○
6. 스포츠 참여	야구, 축구, 테니스, 골프 등 구기 스포츠, 사이클/산악자전거 등, 육상, 조깅, 헬스, 에어로빅, 요가, 줄넘기,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 수상, 빙상 스포츠, 재즈댄스, 댄스스포츠 등, 태권도, 검도 등 격기 스포츠, 암벽 등반, 서바이벌 등, 기타 스포츠 참여	×	○
7. 관광/여행	문화유적방문, 자연명승, 풍경 관람, 삼림욕 온천/해수욕, 해외여행, 지역축제 참가, 기타 국내캠핑/테마파크 등 관광/여행	○	○
8. 취미·오락활동	등산/낚시, 수집, 생활공예, 인테리어, 요리/다도, 원예/텃밭가꾸기, 노래방 가기, 홈페이지/블로그 관리, 쇼핑, 바둑/장기, 미용, 게임, 기타 취미오락활동	×	○
9. 휴식활동	산책,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TV/비디오 시청, 음악 감상, 라디오 청취, 독서, 기타 휴식활동	○	○
10. 사회/기타	사회봉사활동, 종교활동, 다른 사람들과의 클럽/나이트/디스코/카바레 가기, 만남/잡담/연락, 기타 사회활동/기타 활동	×	×

선정된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 참여, 관광·여행, 휴식활동 등 4개 영역의 세부 활동 중 문화여가활동으로 적합하지 않고 참여율이 낮은 활동들은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전통예술 관람(2.4%), 무용 공연 관람(1.2%), 문예창작/문학행사 참여(0.6%), 전통예술 배우기(0.6%), 무용 배우기(0.4%), 연기(0.6%) 등 참여율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선택한 8개의 세부 활동을 참여 수준 혹은 몰입도 수준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첫 번째 낮은 수준의 활동은 TV/비디오 시청, 음악 감상을 포함한다. 이는 시청/감상에 해당되는 활동으로 특별한 노력 없이 쉽게 참여가 가능한 일상적 활동이다. 2단계로 문화관광에 속하는 방문/관람형은 직접 목적지에 방문하여 관람을 하는 노력을 요하기에 중간 수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문화유적 방문, 지역축제 참가를 포함하였다. 특히 문화관광에서 전시회 관람이나 박물관 관람은 문화유적 방문이나 지역축제 참가 대비 몰입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Tuisku et al, 2016).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참여 수준인 창조/생산의 활동은 미술활동 참여와 악기 연주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표 4-14>와 같이 4개 영역 중 TV/비디오 시청, 음악 감상,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문화유적 방문, 지역축제 방문, 미술활동 참여, 악기 연주 등 8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표 4-14>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문화여가활동 선택 항목

영역	참여율 저조 활동	비문화관광/비문화예술활동	최종 선택 활동
문화예술 관람	전통예술공연 관람, 무용 공연 관람, 기타	-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문화예술 참여	문예창작/문학행사, 전통예술 배우기, 무용 배우기, 기타	-	미술활동, 악기 연주
관광/여행	-	사진촬영, 자연명승, 풍경관람, 삼림욕 온천/해수욕, 해외여행, 국내캠핑	문화유적 방문, 지역축제 참가
휴식활동	-	산책,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독서, 기타	TV/비디오 시청, 음악 감상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나이, 학력)을 포함했으며 이러한 특성 외에 여가 참여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약요인을 분석하였다. 내제적 제약은 시간 부족과 연관된 근로여부 및 근로시간(Gibson, 2002; Ullmann, 2011)과 건강상태(Huber, Milne & Hyde, 2018)를 측정하였다. 건강부문에 대하여 본 연구는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을 고려하여 만성질환, 주관적 건강, 우울 증상 경험을 포함하였다. 이 중 우울 증상은 정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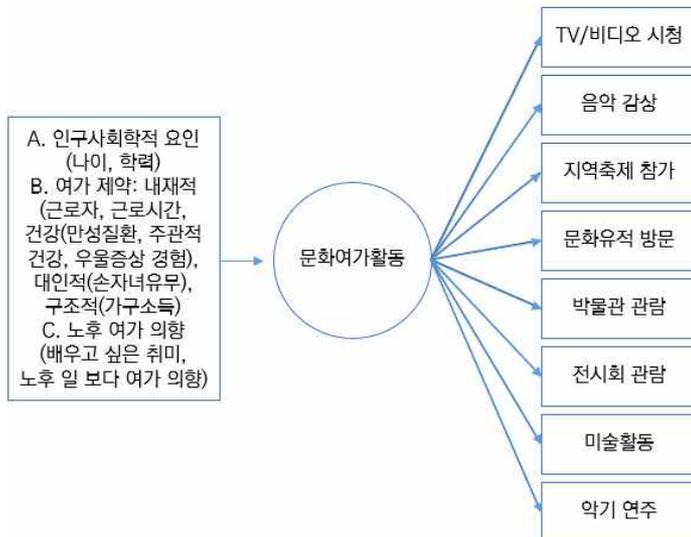
건강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은퇴 전환기에 여가참여가 우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Henning et al, 2021). 손자녀가 돌봄의 대상일 경우 여가 장소 및 프로그램의 제약을 겪을 수 있으며(Dong & Chick, 2005) 가구 소득은 여가참여에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기에(Nyaupane, McCabe & Andereck, 2008) 제약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 밖에 노후 여가 의향도 검토하여 조사 당시 50대였던 베이비부머의 여가 의향이 실제 참여와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중년기에 긍정적인 여가 참여 및 태도가 은퇴 후까지 지속된다는 연구를 바탕으로(Carpenter & Patterson, 2004) 문화여가활동 유형별 노후 여가 참여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모델

본 연구의 모델은 <그림 4-8>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잠재계층분석을 통하여 문화여가활동 유형을 분석한 후 각 집단 유형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여가 제약(내재적, 대인적, 구조적), 및 노후 여가 의향을 분석하였다.

<그림 4-8> 연구모델



## 2) 잠재계층분석

본 연구는 개인 중심적 접근의 대표적인 방법론인 잠재계층분석을 사용하여 베이비부머의 표본 내부에 존재하는 잠재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제반 문화여가 특성을 파악하였다. 개인 중심적 접근은 통합적인 접근 방법으로 연구 대상자들에 대해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다변량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 제공이 가능하여 많이 사용되는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Rector, Christ & Friedman, 2019). 개인 중심 접근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으로는 군집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이 있다(Bauer & Curran, 2004; Williams & Kibowski, 2016). 잠재계층분석은 사용하는 변수의 척도와 관계없이 집단을 세분화하고, 확률값을 통해 각각의 응답자들이 속하게 될 세부 집단을 확정하며 지표를 사용하여 군집의 수를 논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auer & Curran, 2004; Williams & Kibowski, 2016).

잠재계층분석에서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델 적합도 지표는 최적의 유형수를 객관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보편적으로 잠재계층 추정을 위한 적합지표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 Adjusted BIC(sample-size adjusted BIC)가 활용되며, 수치가 낮을수록 모형의 높은 적합도를 의미한다. Entropy 지수는 k개 집단과 k-1개 집단 간의 유의성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지표이며 각 개별 관측 값들의 분류 정확도의 평균을 의미한다.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관측 대상이 특정 집단으로 정확하게 분류됨을 의미한다(Jedidi et al, 1993). 이러한 지표와 함께 잠재집단의 분포 정도(전체 표본 대비 1% 이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Jung & Wickrama, 2008).

본 연구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문화여가활동의 유형을 도출한 후 유형별 특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Mplus 6와 STATA 1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잠재계층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1) 문화여가 일반 특성

2014년 50대였던 베이비부머는 대부분 은퇴 전 상태로(근로자 81%, 전업주부/취업 경험 없는 자 12.6%, 은퇴자 6.4%)로 나타났다. 손자녀가 있는 베이비부머는 16.7%였고, 약 10명 중 2명이(20.1%) 우울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여가활동 중 몰입도가 낮은 활동, 즉 노력과 전문성이 덜 필요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관람형인 문화관광 활동 중 몰입도가 비교적 낮은 문화유적 방문(52.6%)과 지역축제 참가(23.2%)가 박물관 관람(8.5%)과 전시회 관람(8.1%)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또한 가장 높은 참여 수준과 몰입을 요하는 악기연주(2.1%)와 미술 활동(1.7%)이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표 4-15〉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구분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시청/감상	TV/비디오 시청	83.3
	음악 감상	21.3
방문(관광/관람)	문화유적 방문	52.6
	지역축제 참가	23.2
	박물관 관람	8.5
	전시회 관람	8.1
창조/생산	악기 연주	2.1
	미술 활동 참여	1.7

노후 여가에 대한 가치관에 관한 질문 중 65.3%가 노후에 배우고 싶은 운동이나 취미가 많은 편이거나 매우 많다고 응답했고, 81.4%가 노후에 일자리보다 여가, 취미활동을 하고 싶은 편이거나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노후 여가생활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16〉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3차년도(2014) 응답자 가치관

구분	사례수(명)	비율(%)	
배우고 싶은 운동이나 취미가 많다	평균 2.73/4점(표준편차 0.67)		
	전혀 그렇지 않다	113	2.8
	그렇지 않은 편이다	1,292	31.9
	그런 편이다	2,241	55.3
	매우 그렇다	406	10
노후에 일자리보다 여가, 취미활동을 하고 싶다	평균 2.93/4점(표준편차 0.60)		
	전혀 그렇지 않다	58	1.4
	그렇지 않은 편이다	696	17.2
	그런 편이다	2,765	68.2
	매우 그렇다	534	13.2

## 2) 문화여가유형 및 유형별 특성

문화관광 및 문화예술 활동을 포함한 8개 문화여가활동을 사용하여 모델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4개 유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표 중 AIC는 모델의 수가 증가할수록 작아졌지만, Adjusted BIC는 4-Class 모델일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문화여가활동 잠재계층분석 모형 적합도

모델	AIC	BIC	Adjusted BIC	Entropy	VLMR p value
2	21708.64	21815.86	21761.84	0.725	0.000
3	21397.79	21561.78	21479.16	0.788	0.000
4	21352.84	21573.59	21462.38	0.745	0.000
5	21346.14	21623.66	21483.84	0.818	0.003
6	21349.88	21684.16	21515.75	0.834	0.291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화여가활동 참여 유형은 〈표 4-18〉와 〈그림4-10〉과 같다. 전체의 76%를 차지하는 첫 번째 집단은 TV/비디오 시청 외에 문화여가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극적 특성을 보여 ‘소극적 여가참여자(Inactives)’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전체의 15%를 차지하며 TV/비디오 시청, 음악 감상뿐 아니라 지역축제 및 문화유적 방문에 높은 참여율을 보여 일상에서 벗어나 재미 위주의 이벤트 또는 가벼운 교육 등의 경험을 추구하는 관광 중심의 ‘관광객(Tourists)’으로 명명하였다. 첫 번째 집단 대비 문화여가에 참여하지만 활동의 폭이 좁은 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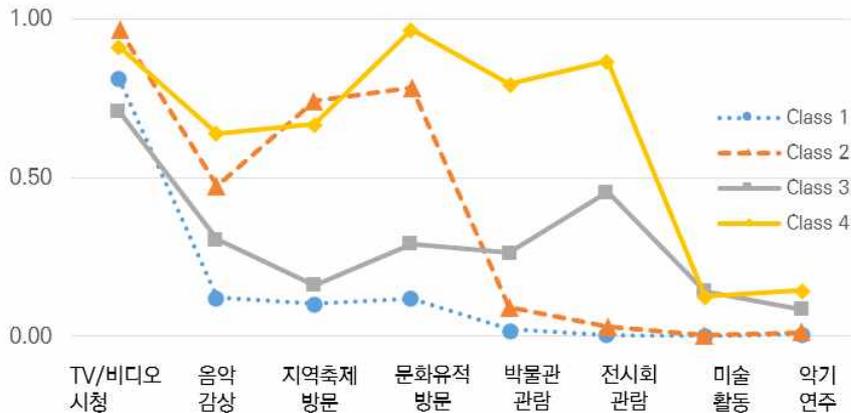
세 번째 집단은 전체의 5%를 차지하여 작은 집단으로 시청/감상 활동, 방문 활동에서 나아가 박물관, 전시회 관람, 미술활동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광관에 있어 더 높은 몰입도를 요하는 관람 활동에 참가함으로 ‘관람객(Spectators)’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관광객(Tourists)’ 대비 활동의 폭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집단은 전체의 4%로 가장 작은 집단이자 가장 다양하고 깊은(수준 높은) 활동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활동과 악기 연주에도 참여하며 직접 창조하고 생산하는 활동까지 참여하는 특성을 보였다. TV/비디오 시청과 지역축제를 제외한 모든 활동에서 타 집단 대비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어 ‘예술가(Artists)’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활동의 폭과 다양성이 높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표 4-18〉 베이비부머의 잠재계층별 문화여가활동 참여

구분	Class 1 (76%) “Inactives”(%)	Class 2 (15%) “Tourists”(%)	Class 3 (5%) “Spectators”(%)	Class 4 (4%) “Artists”(%)
TV/비디오 시청	0.81	0.97	0.71	0.91
음악 감상	0.12	0.47	0.31	0.64
지역축제 방문	0.10	0.74	0.16	0.67
문화유적 방문	0.12	0.78	0.29	0.97
박물관 관람	0.02	0.09	0.27	0.80
전시회 관람	0.00	0.03	0.45	0.87
미술활동 참여	0.00	0.00	0.14	0.13
악기 연주	0.01	0.01	0.08	0.14

〈그림 4-9 유형별 문화여가활동 참여〉



유형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19〉에 제시하였다. 연령은 집단별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베이비부머의 특성상 모두 50대에 속해 있었으므로 평균 54세에서 55세로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학력과 가구소득은 동일하게 ‘예술가(Artists)’부터 소극적 여가 참여자(Inactives) 순으로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폭넓은 여가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19〉 문화여가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Inactives	Tourists	Spectators	Artists	F / $\chi^2$
연령	55.08 (2.58)	54.98 (2.53)	54.85 (2.38)	54.54 (2.57)	2.78*
학력	4.07 (1.05)	4.16 (1.02)	4.66 (1.02)	4.81 (1.18)	43.73***
가구소득	5,175.22 (2978.12)	5,536.16 (3119.97)	6,816.83 (4196.95)	6,929.22 (4006.59)	33.18***

다음으로 근로자의 비율 및 평균 주당 근로시간 또한 집단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관람객(Spectators)’의 근로자 비율이 83.1%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극적 예술참여자(Inactives)’ 81.9%, ‘문화관광객(Tourists)’ 78.1%, ‘예술가(Artists)’ 72.7% 순으로 높았다. 한편 근로시간 또한 ‘소극적 예술참여자(Inactives)’가 38.3시간, ‘관람객(Spectators)’가 35.1시간으로 타 유형 대비 긴 근로시간으로 보고하여 근로와 여가참여 수준에 있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근로자는 직종이나 직급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경험이 다를 수 있기에 단순히 근로여부로 여가참여와의 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상위 직급의 경우 또는 문화예술 관련 직종 등 근로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표 4-20〉 문화여가유형별 근로 특성

구분	Inactives	Tourists	Spectators	Artists	F / $\chi^2$
근로자	81.9%	78.1%	83.1%	72.7%	12.62**
근로시간	38.3 (24.3)	34.3 (22.7)	35.1 (22.1)	30.0 (24.4)	10.20***

손자녀 유무에 있어 ‘관광객(Tourists)’이 22.6%로 타 유형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예술가(Artists)’는 13.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손자녀가 있는 경우 손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유적지 방문 등 관광 중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환경이 증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4-21〉 문화여가유형별 손자녀 유무

구분	Inactives	Tourists	Spectators	Artists	F / $\chi^2$
손자녀 있음	17.9%	22.6%	15.5%	13.0%	11.71**

만성질환은 집단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대부분 1개 이하의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관람객(Spectators)’이 3.3점/5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왔지만 유형별 차이는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베이비부머가 50대에 집중되어있어 비슷한 건강상태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정신적 건강상태, 즉 우울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관람객(Spectators)’가 2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소극적 여가

참여자(Inactives) 21.8%, ‘관광객(Tourists)’ 12.8%, ‘예술가(Artists)’ 11.2%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50대 우울증상 경험율은 약 13.1%(국민건강영양조사, 2013)임을 감안할 때, 관람객과 소극적 여가참여자가 우울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2〉 문화여가유형별 건강 상태

구분	Inactives	Tourists	Spectators	Artists	F / $\chi^2$
만성질환 수	0.6 (0.9)	0.6 (0.9)	0.8 (0.9)	0.6 (0.8)	1.43
주관적 건강	3.4 (0.8)	3.5 (0.7)	3.3 (0.7)	3.5 (0.7)	2.64*
우울증상 경험 있음	21.8%	12.8%	23.0%	11.2%	34.7***

노후 여가 의향은 현재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예술가(Artists)’, ‘관람객(Spectators)’, ‘관광객(Tourists)’, ‘소극적 여가참여자(Inactives)’ 순). 현재 여가에 많이 참여할수록 더 배우고 싶은 운동이 취미가 많아지고 노후에 여가생활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여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후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표 4-23〉 문화여가유형별 여가 만족도 및 노후 여가 의향

구분	Inactives	Tourists	Spectators	Artists	F / $\chi^2$
배우고 싶은 운동이나 취미가 많다	2.7 (0.7)	2.8 (0.7)	2.9 (0.6)	3.0 (0.6)	21.4***
노후에 일보다 여가생활을 하고 싶다	2.9 (0.6)	3.0 (0.6)	3.1 (0.6)	3.1 (0.6)	21.1***

## 제3절 시사점

### 1. 5060대 여가실태 분석

#### 1) 전국 5060대 여가 실태 및 추이

첫째, 2010년 대비 2019년 50대의 여가 관심과 노후 여가 의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여가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여가 참여도 증가하였으며, 휴식활동의 감소와 함께 취미오락, 사회활동, 문화예술 참여 등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9). 이는 관심 증가와 인식개선에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 참여 의향을 나타내기에 향후 경력개발이 이루어지는 진지한 여가 권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황남희 외(2019)의 연구결과와 같이 기존 고령층과 다른 5060대의 특성을 나타내어 이들이 노년 인구로 편입되는 것에 대응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여가제약으로 경제 부담은 줄었으며, 시간·경험부족 응답이 늘어나 여가기회 및 여가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는 갖고 있으나 시작 자체를 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기에 회사나 가정 등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사내 동호회는 다양한 여가를 시도할 수 있는 장으로 여가만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조병철, 2012) 시간 부담으로 인해 여가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대체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5060세대의 여가 동반자로 가족이 가장 많고 과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여가 환경 및 다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관광공사(2019)에 따르면 최근 국내여행의 트렌드 중 하나는 다세대 가족여행으로 나타났다. 이에 응대하며 여행이나 요리 등 가족의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 부모와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속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5060대의 여가참여율이 70대 대비 높을 뿐만 아니라 2014-2019년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 70대의 여가참여율은 2014-2019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기존 고령자와 다른 5060대의 여가 참여 특성이 나타났다. 5060대가 자신의 의향보다 실제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임정미(2020)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5060세대가 보다 능동적으로 여가에 참여하여 자신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가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전체 연령 대비 5060대의 취미오락 참여가 낮은 것은 일 외에 자신의 관심분야를 모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선호 여가 영역 및 관심분야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5060대의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1순위가 ‘젊어서 하

지 못한 취미생활'로 나타난 황남희 외(2019)의 연구결과를 볼 때, 자신의 취미를 잘 이해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다양성뿐 아니라 난이도 수준도 고려하여 여가 경력이 다른 이들을 위한 개별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5060대 집단 내 차이분석결과, 5060대의 집단 비교 결과, 50대는 시간적 제약, 60대는 경험 부족을 제약 요인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내 차별화 방안이 요구된다. 시간 부족은 은퇴 전과 연관되기에 50대를 위한 회사 동호회 모임 등 일상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역할 상실이나 신체적 쇠퇴를 더 많이 경험하는 60대를 위해서는 체력적 소모가 적은 여가, 또는 건강을 주제로 한 여가 프로그램과 다양한 여가 체험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 특히 정책 중요도 응답 분석결과, 다양한 여가시설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 중 60대의 증가율이 50대 대비 높으며 5년 간 약 2배로 증가하여 은퇴 후 60대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함을 나타냈다. 5060대의 약 82%가 노인의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여(황남희 외, 2019)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노인복지관 등)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청년도 노인도 아닌 5060대를 위한 여가 공간이 필요하다.

## 2) 수원시 5060대 여가 실태 및 추이

첫째, 전국 대비 수원시 50대는 문화예술 관람, 60대는 문화예술 참여에 높은 참여율을 보여 문화예술 자원이 풍부한 수원 지역 거주 5060대의 특성을 보였다. 다만 50대의 문화예술 참여는 전국 대비 낮아 관람에서 참여까지 활동의 몰입도를 높여 지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Tsaur & Liang, 2008; 김보경·노정희, 2017).

둘째, 행정구역별 분석결과,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는 공통적으로 60대 대비 50대의 공공시설(공원/녹지/산책로,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경기장, 도서관) 수요가 높았으나 영통구는 60대의 시설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 60대와 같은 추이를 보였다. 영통구는 공원 90개소를 보유하여 팔달구 43개소보다 많지만 비슷한 수준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종합체육시설 또한 6곳으로 상대적으로 많이(장안구 2곳, 권선구 3곳, 팔달구 2곳; 수원시, 2022)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여가 수요를 반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여가 프로그램의 접근성 제고와 함께 여가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수원시의 5060대의 여가 참여율은 70대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 증가에 따라 참여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원시민 평균 대비 5060대의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경험은 낮으나 참여 빈도는 높다. 최초 경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윤소영(2016)의 연구를 감안할 때, 개인의 여가 경력에 따라 몰입도가 낮은 문화예술 활동부터 전문성이 있는 문화예술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와 수준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60대

의 문화예술 참여활동에 있어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가 전문가 양성도 요구된다.

다섯째, 전국 5060대와 마찬가지로 수원시 5060대의 제약에 있어 집단 내 차이를 확인하였다. 50대와 60대는 사회적 역할이 다르다. 따라서 사회적 역할로 인한 시간적 여유가 다르고(Bjorklund, 2018) 신체적 노화 수준에 따라 경험하는 제약이 다를 수 있어(Holloszy, 2000; Infurna, Gestof & Lachman, 2020) 5060대 집단 내 차이는 이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각자의 수요에 맞춘 여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60대의 지속적 여가 참여를 위한 문화예술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며 신체적 무리가 가지 않는 한에서 다양한 여가교육과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2020)<sup>3)</sup>에 따르면 최근 은퇴 연령이 51.0세(2005년)에서 49.2세(2019년)로 빨라지고 있어 연령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여가 경력과 사회적 특성 등 개인의 상황이 고려된 맞춤형 제약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수원시 5060대를 위해 문화예술분야에 전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후에도 적극적 여가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4-24〉 실태 분석 종합

국민여가활동조사(2019) 2014년 vs. 2019년	수원시 사회조사(2019) 수원 지역성
소극적 활동 감소 및 취미오락, 사회, 문화예술 활동 증가	전국대비 50대의 문화예술 관람, 60대의 문화예술 참여 높은 편
경제적 부담 줄고 시간/경험 부족 인식 증가 여가 동반자, '가족과 함께' 증가	젊은 행정구 영통은 타 지역 대비 취미부족으로 인한 불만족 및 다양한 공공시설 필요성 응답
5060대 특성	5060대 특성
전체 대비 5060대 취미오락활동 낮은 참여경향	수원시민 평균 대비 공연 및 스포츠 관람 참여 경험은 낮으나 참여 빈도는 높음
전체 대비 문화예술관람은 낮고, 문화예술참여는 높게 나타나 몰입도 높은 활동 참여 경향	문화예술 참여활동 참여율 높음
5060대 집단 내 차이	5060대 집단 내 차이
50대 대비 60대의 여가활동 참여율 낮은 편	50대 및 전체 대비 60대의 문화예술 참여도가 높으며 문화예술관람 빈도 또한 높음
50대는 시간적 제약음, 60대는 이전 경험 부족을 제약요인으로 응답	60대는 적당한 취미가 없거나 체력/건강 문제 제기

3) 한국노동연구원(2020). 「중·고령자의 은퇴의도와 은퇴행동」.

## 2. 문화여가 패턴 분석

### 1) 분석 종합

문화여가활동유형별 특성을 종합한 결과는 <표 4-15>와 같다. 각 항목별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거나 타 유형 대비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는 것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소극적 여가참여자(Inactives)'의 학력 및 가구소득이 가장 낮았고 '예술가(Artists)'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가구소득은 여가정보에 접근하고 여가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제력(Nyaupane, McCabe & Andereck, 2008; 이철원, 2014)과 연관되어 문화예술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여가 불만족은 2014년 대비 2019년 감소하여(국민여가활동조사, 2019) 여가 비용 부담으로 인한 비참여가 줄어들 수 있어 여가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났는데, '소극적 여가참여자(Inactives)'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고, '예술가(Artists)'가 가장 짧아 시간적 제약에 의한 참여수준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Ullmann, 2011; Strobl et al, 2014). 다만 '관람객(Spectators)'도 비교적 긴 근로시간을 보고하여 제약이 존재하여도 여가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Kay & Jackson, 1991)를 지지하였다. 특히 5060대 중 50대의 시간적 제약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수원시 사회조사, 2019) 이들을 위한 시간적 제약의 완화 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50대의 시간 제약은 근로로 인한 사회적 역할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직장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제약 완화를 통한 여가 참여를 이룰 수 있다. 이밖에 가정 내 다중역할로 인한 시간 부족을 경험할 수 있어 아파트 단지 내 혹은 동네 등 주거환경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요가, 악기 등)을 제안한다.

손자녀가 있는 비율은 '관광객(Tourists)'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손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참여 활동이나 여가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Dong & Chick, 2005; 이운정, 2014)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환경이 필요하다. 여가 동반자로 '가족과 함께'가 증가하여(국민여가활동조사, 2019) 변화하는 여가 트렌드와 이러한 수요에 맞춘 여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아동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활동(예: 농작물 심기, 요리 등)이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정신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우울증상은 '관람객(Spectators)'이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활동은 정신건강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Caltabiano, 1995; 이민영·이유우·한주희, 2015)를 바탕으로 이들의 문화여가참여 수준을 제고하여 관람에서 참여까지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박물관이나 전시회

관람에서 나아가 직접 미술과 음악 등 활동에 참여하여 창조하고 생산하는 것이 참여수준을 높이는 예시이다.

노후 여가 의향을 살펴보면 ‘관람객(Spectators)’과 ‘예술가(Artists)’의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가 경험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경험을 많이 할수록 자신의 여가선호를 이해할 수 있고, 여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Bryan, 1977; Needham et al, 2013). 50대의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1순위가 ‘짧어서 하지 못한 취미 생활’로 나타나(신증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2019) 노후 여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관심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가 홍보가 필요하며, 노후를 위해 은퇴 전 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Carpenter & Patterson, 2004; Infurna, Gerstorf & Lachman, 2020).

〈표 4-25〉 문화여가유형별 특성 종합

구분		CI	CT	CE	CA	F / $\chi^2$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력	4.07 (1.05)	4.16 (1.02)	4.66 (1.02)	4.81 (1.18)	43.73***
여가제약	가구소득	5,175.22 (2978.12)	5,536.16 (3119.97)	6,816.83 (4196.95)	6,929.22 (4006.59)	33.18***
	근로시간	38.3 (24.3)	34.3 (22.7)	35.1 (22.1)	30.0 (24.4)	10.20***
	손자녀 있음	17.9%	22.6%	15.5%	13.0%	11.71**
	우울증상 경험 있음	21.8%	12.8%	23.0%	11.2%	34.7***
노후 여가 의향	배우고 싶은 운동이나 취미가 많다	2.7 (0.7)	2.8 (0.7)	2.9 (0.6)	3.0 (0.6)	21.4***
	노후에 일보다 여가생활을 하고 싶다	2.9 (0.6)	3.0 (0.6)	3.1 (0.6)	3.1 (0.6)	21.1***

## 2) 문화여가 유형별 특성

### (1) 수동적 여가참여자(Inactives)

Inactives는 특별한 노력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활동 이외 다른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수동적 문화여가참여자다. TV/비디오 시청을 선호하는 이들을 위해 해당 매체를 활용한 여가시간 활용법 특강 또는 해외 다큐멘터리 등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 집단의 특성은 긴 근로시간으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및 낮은 가구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제약이다. 이들은 일상적 여가부터 필요한 집단이다. 5060대 중 근로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 집단은 직장/주거지역에서 취미개발(예: 직장 동아리 활용)부터 시작하게 하여 여가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김애순, 2015; 윤소영, 2016).

5060대가 노후에 가장 즐기고 싶은 여가활동 1순위는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으로(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2019) 나타났으며, 최근 이러한 수요에 맞춘 랜선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서울시 50플러스센터, 2022)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 5060대 대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들을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여가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50대 중 취업자의 비율이 75.1%로(경제활동인구조사, 2021) 취업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직장에서 동호회를 통해 여가 경력을 쌓고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취미에 맞는 동호회를 결성하여(수원문화재단, 2019) 일상적 여가의 단계를 이룰 수 있다.

### (2) 관광객(Tourists)

Tourists는 축제나 문화유적지와 같은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문화관광객이다. 진지한 문화 소비보다 가볍고 흥미 위주의 요소를 더 추구하는 특성과 함께 손자녀가 있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을 위해 활동의 폭을 넓혀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손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여가 경험 확대가 필요하다. 이들은 야외활동에 참여하여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참여활동에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특정 취미를 만들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여가 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몰입도를 보이는 여가에 참여하는 이들은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여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Veal, 2017). 다만 진지한 여가보다 가벼운 접근으로 흥미를 유발하여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예를 들면 ‘박물관은 살아 있다’ 프로그램과 같이(50플러스센터, 2022) 단순 관광이 아닌 박물관 관람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체험하게 하며 그 안에 재미적 요소를 추가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들은 타 집단 대비 손자녀가 있는 비중이 높으며 손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또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미국의 모어댄어카페는 시니어를 위한 복합문화 공간이지만 주말에는 손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Mather Lifeways)하여 지역사회 여러 세대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문화여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손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른 공간에서 진행되거나 손자녀와 함께 즐기는 미술/음악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

### (3) 관람객(Spectators)

Spectators는 문화관광활동 중 문화예술적 요소 및 몰입도가 높은 활동에 참여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미 박물관과 전시회에 많이 참여하기에 관람에서 참여로 수준을 제고하여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여가 전문성 제고는 만족도를 높이고(Tsaur & Liang, 2008; 김보경·노정희, 2017) 활동의 지속성에도 도움이 되기(Stebbins, 2017) 때문이다.

수원시 50대는 문화예술관람에 참여율이 높아(수원시 사회조사, 2019) 이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힐링 아트 테라피’ 프로그램과 같이 직접 미술에 참여하며(50플러스센터, 2022)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수원문화지도(수원문화재단, 2022)과 같이 문화예술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한 통합서비스는 접근성을 제고하여 여가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담은 플랫폼이 필요하다. 지역의 동호회, 문화예술단체 등 정보로 수요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여 여가 참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 (4) 예술가(Artists)

Artists는 문화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들은 고학력, 고소득의 특성을 보여 고령층과 차별화되는 5060세대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몰입도가 가장 높은 예술 활동(미술, 악기) 참여율도 타 집단 대비 높아 여가 단계가 가장 높은 집단이자 옴니보어로(Peterson, 2005; 박주연·신형덕, 2018)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경제적 부담이나 시간 부족 등 제약이 적어 전문화/고급화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만족도를 높이며 자신의 전문성을 전수하는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5060대가 주체적으로 동아리를 결성하면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안양 베이비부머 센터, 2022)은 여가 경력 개발과 함께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여 여가 전문화에 도움이 된다. 또는 5060대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대구 태평살롱)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

이 될 수 있다. 특히 수원시 60대의 문화예술참여율이 높아 Artists 집단과 같이 타 세대와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여가활동과 신체적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 추구가 활기찬 노년기를 위한 중요한 준비가 될 수 있다 (Iwasaki, Coyle & Shank, 2010; 윤소영, 2016).

〈표 4-26〉 잠재계층유형별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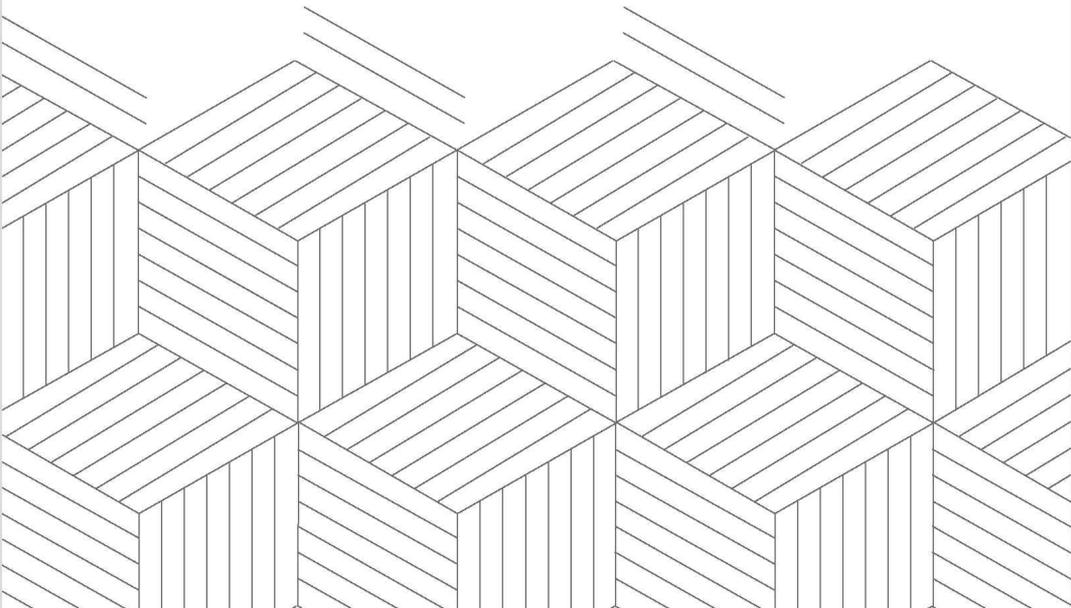
구분	특성	시사점
Class 1 수동적 여가참여자 Inactives	참여활동: 낮은 몰입도(TV 시청)의 여가활동 참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속한 유형으로 특별한 노력이나 전문지식이 필요 하지 않는 활동 외 다른 문화여가활동에 비참여
	참여자: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자원, 긴 근로시간과 낮은 여가 만족도 및 노후 여가 의향	긴 근로시간으로 인한 시간 부족 및 경제적 자원 부족으로 현재 여가 만족도 뿐 아니라 노후 여가 의향도 낮아 문화여가에 대한 홍보와 교육 선행 필요, 자신의 취미를 찾고 다양한 활동을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Class 2 관광객 Tourists	참여활동: 시청/감상형 활동 외에 축제, 문화유적지 방문	축제나 문화유적지와 같이 일상에서 벗어나 재미적인 요소를 찾는 관광활동에 참여
	참여자: 높은 손자녀가 및 비수도권 거주 비율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거나 문화여가활동에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한다면 손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복합문화 공간 또는 프로그램의 제공 필요, 다세대가 소통하고 즐기는 여가문화 활성화
Class 3 관람객 Spectators	참여활동: 문화관광에 있어 박물관, 전시회 등 관람형 활동에 참여,문화적 요소 추구	박물관 전시회를 즐기는 문화관광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관람활동 참여, Class 2와 차별성 보여
	참여자: 높은 근로자 및 수도권 거주자 비율, 낮은 건강수준, 높은 노후 여가 의향	근로자와 수도권 거주 비율이 높아 지역 공간을 활용한 일상적 문화예술 향유 방안 필요, 또한 우울증상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문화관람의 전문화를 통한 내재적 보상 및 행복감 제고
Class 4 예술가 Artists	참여활동: 모든 활동 참여율 높음	참여하는 문화관광 활동 뿐 아니라 창조/생산하는 예술활동까지 참여로 높은 여가 단계에 도달한 유형
	참여자: 사회경제적 자원이 높고, 높은 여가 만족도 및 노후 여가 의향	경제적 부담이나 시간 부족 등 제약이 적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나타나 전문화/고급화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만족도를 제고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의 전문성을 전수하는 역할 장려 필요

아직 여가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한 5060대에게는 교육이나 일상에서 접하기 편한 활동으로 시작하게 돕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미 여가를 즐기고 있는 5060대를 위해서는 이들이 선호하는 여가의 전문성을 높여 노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여가 경력을 개발하고 가족 및 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환경의 조성이 이들 세대의 여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5장 결론

제1절 종합 분석  
제2절 정책적 제언





## 제5장 결론

### 제1절 종합분석

#### 1. 연구 분석

본 연구는 기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구별되는 5060대의 여가 실태 및 특성 파악을 통한 맞춤형 여가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내·외 문헌 분석을 통해 5060대의 여가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여가생활주기, 여가 제약, 여가 단계 등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5060대의 시장 동향이나 조성 사례 및 정책 등 여가 환경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 및 조사를 활용하여 5060대의 여가 실태 및 패턴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060대의 여가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5060대의 여가생애주기 및 여가제약, 여가단계를 검토하였다. 여가생활주기에 따른 5060대와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중년기부터 시작되는 신체기관 및 인지적 저하가 노년 후기에 명확히 나타났는데 고령자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신체적 기능, 반응 능력에 저하가 나타났고 의존성 및 우울감의 증가로 물리적 환경의 개선 및 돌봄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반면 5060대는 은퇴 전환기로 노후 여가 중요성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과 사회참여나 공헌활동을 통한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김애순, 2015). 이처럼 단순히 성인기와 노인기로 구분하는 것보다 세분화된 여가주기별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 특히나 성인기와 노인기에 걸쳐있는 5060대는 기존 노인과 대비하여 상이한 특성의 반영이 필요하다. 여가제약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5060대의 여가제약이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들은 건강의 악화나 이동의 한계 등 신체적 노화로 인한 제약이 나타났고 5060대는 사회 및 사정 내 역할로 인한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여가 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여가 단계에 따라 5060대는 전문능력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참여는 활동 영역을 넓히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5060대의 은퇴 여부가 진지한 여가 참여에 유의한 관계를 보임에 따라 시간적 여유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른 문헌분석 전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생애주기, 여가제약, 여가단계를 반영하여 기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5060대 및 5060대 집단내 차이에 따른 특성 기준을 마련하였다.

둘째, 5060대 여가의 시장 동향 및 조성 환경을 살펴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기대수명 증가 및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UN, 2020)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중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20%로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으로(통계청, 2021)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 또한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였고 그 중 5060대가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수원기본통계, 2020). 이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은퇴와 함께 찾아오는 ‘제 3의 인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기존의 5060대 여가 조성 환경은 주로 65세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복지적 차원의 시혜적 성격이 강하다. 대부분의 국내 정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하드웨어 위주의 개선 사업이나 돌봄 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으로 5060대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신중년(5060대) 경력설계(2019)’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등 5060대(신중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정책·사업에서는 신중년의 일자리 제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후 준비로 여가를 언급하고 있지만 여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의 여가 조성 사례 또한 5060대와 노인을 위한 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5060대의 특성을 반영한 여가 프로그램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사건을 바탕으로 한 5060대의 맞춤형 여가 환경의 구축 및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수원형 신중년 여가활동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수원시사회조사’를 통해 5060대 여가 실태를 분석하였다.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 요구 조사’에서는 신중년의 전반적인 생활 및 가치관을 파악했으며 50대의 9년간(2010-2019)특성 변화 추이를 확인하였다. 2010년에 대비하여 2019년 50대의 교육 수준이나 가구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중년의 고학력, 고소득을 확인하였고 이전 대비 여가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 수준이 증가하였다.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타 세대 대비 신중년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했으며 2014년과 2019년을 비교하여 5060대의 여가활동 세분화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2014년 대비 5060대의 여가활동 참여 항목에서 휴식활동이 줄고 취미오락·사회활동·문화예술 참여가 증가하며 적극적 여가 참여로 변화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이 증가하였으며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로 경제적 부담은 감소한 반면 시간이나 여가 경험부족이 증가하여 여가의 생활화 및 여가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수원시 사회조사에는 타 연령 대비 수원시 5060대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수원시 5060대는 전국과 대비하여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이 나타났으며 60대에 대비하여 50대의 문화예술 참여도가 낮게 나타났다.

넷째, 수원시 5060대의 문화예술 참여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추가적 이해가 필요하여 문화여가패턴(문화관광+문화예술 활동 참여수준)분석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문화여가활동 유형 4가지(수동적 문화여가소비자/문화관광객/문화관람객/문화예술가)를 도출하였다.

각 집단은 학력, 소득 등 사회경제적 자원 및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 등 유형별 차이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각 유형에 대한 제약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방안의 필요성과 함께 각 유형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속한 유형인 수동적 문화여가소비자들에게는 직장이나 주거지역에서 취미활동을 하는 등 일상적으로부터 여가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적극적 여가 참여 유형인 문화유형인 문화예술가는 사회공헌으로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형 활동을 선호하는 문화관광객 유형은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문화 체험이나 손자녀 동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겠다. 또한 관람형 활동을 선호하는 문화관람객 유형에게는 관람에서 참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향유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양질의 문화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겠다.

##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시민 여가의 시작으로 일반 노인 집단과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 5060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수원 맞춤형 정책 제안을 통해 여가적 측면에서의 고령 친화 도시 모색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5060대의 집단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존 고령층과 5060대의 차이 및 5060대 집단 내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현재 국내의 신중년 정책은 일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여가 논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5060대의 구체적인 여가 특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에 있다. 또한, 신중년, 고령자, 중장년 등 용어의 혼용과 함께 고령자의 경우에도 연령 표기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존 고령자와 60대의 분류를 함께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또한 기존 실태조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5060대의 여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항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문헌분석을 토대로 한 기존 노인과 5060대의 차이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수원시 사회조사의 경우에는 원자료의 비공개로 2014년 이전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각 조사 년도 별로 상이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비교분석이 어려웠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중 관련 조사(2022) 중지 및 재개로 자료가 불안정하여 코로나 확산 이전의(2019) 자료를 주로 분석함에 따라 일상의 여가 및 가족동반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5060대의 여가 제약요인, 특성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5060대의 여가시설(관계자) 대상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여가제약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5060대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닌 시설 운영(관계자)을 통해 5060대의 여가 특성을 확인하였기에 연구 결과와 실제 5060대의 내재적 제약에 일부 차이가 있을 우려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 5060대의 실태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여가 조사가 요구된다.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심의 시혜적 차원으로 운영되는 여가환경을 5060대까지 확대하고자 했으며, 일자리 위주로 다뤄지던 5060대의 논의를 여가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석을 활용하여 기존 노인과 5060대의 차이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5060대의 집단 내에서도 여가제약이나 특성을 비교하여 수요자 욕구를 고려한 여가생애주기 및 제약을 고려한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제2절 정책적 제언

### 1. 5060대의 실태파악을 위한 여가 조사 실시

‘국민여가활동 조사(문화체육관광부)’, ‘수원시 사회조사(수원시)’ 등 기존 연구를 통해 5060대를 아우르는 여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각 연구는 조사대상을 만 15세 이상의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포함하였기에 5060대의 명확한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5060대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는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요구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을 통해 대략적인 5060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여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제반적 사회조사이기에 여가 부문에 대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수원시 사회조사’의 경우 동일한 조사 내에서도 표<5-1>과 같이 각 년도 별로 상이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이 불가했으며 중앙의 조사 결과와도 비교 분석이 어려웠다.

〈표 5-1〉 수원시 사회조사(2014, 2019) 문화여가 부분 설문 문항

문항		2014	2019
문화관람	문화관람 횟수	○	○
여가활동	여행, 등산, 스포츠 활동 및 관람, 자기개발, TV·DVD 시청, 사회활동	○	×
공연·스포츠 관람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극, 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	○
주말 및 휴일 여가	TV 시청,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취미·자기개발, 휴식, 사회 및 기타 활동	×	○
여가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	○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혼잡 및 이용교통수단 불편, 여가시설 부족,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적당한 취미 부재, 체력이나 건강 문제, 여가 동반자 부재	×	○

자료 : 수원시(2014, 2019), 수원시 사회조사

이에 수원시 5060대 여가 환경 조성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기존의 산발적이고 형식적인 통계를 대신하여 타 세대에 대비하여 5060대만의 차별성이나 집단 내 다양성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여가 조사 및 통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사회조사의 ‘문화여가’ 부분 중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문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 위해 〈표5-2〉과 같이 추가 항목(안)을 구성해보았다.

기존 수원시 사회조사의 경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기에 5060대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가 요구사항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여가 제약 요인’과 ‘추후 요구 사항’ 항목을 추가 구성하고 5060대의 ‘손자녀 양육’ 등과 같은 5060대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문항을 구성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5060대의 여가 환경 조성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에서 5060대 여가 조사를 실시한다면 기존의 조사나 연구에서 확인이 불가능했던 5060대의 여가·관광 현황 및 특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최초로 5060대만의 여가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통계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2〉 5060대 여가 실태조사 추가 항목(안)

여가 생활 불만족 이유		
기존 문항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혼잡 및 이용교통수단 불편, 여가시설 부족,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적당한 취미 부재, 체력이나 건강 문제, 여가 동반자 부재
추가 항목(안)	여가 제약 요인	두려움, 심리적 위축, 흥미부족, 손자녀 양육, 가족반대 및 지지부족, 디지털 활용능력 부족
	추후 요구 사항	타 세대와의 소통, 동일 세대와의 교류, 다양한 여가시설, 빈도수 증진, 프로그램 질 개선, 비용 개선, 동호회 육성, 동일세대와의 교류, 여가 정보 확대, 전문인력 배치, 기타

자료 : 수원시(2019), 수원시 사회조사

## 2.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여가활동 지원

5060대를 대상으로 한 문헌, 실태, 사례분석 등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신체·기능적 수준은 물론 여가 제약요인이나 요구하는 여가활동 및 수준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5060대의 생애주기·사건별 보편적 특징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들은 일과 일상 그리고 자아와의 관계 정립을 중요히 생각하고 있었으며 은퇴 후에도 여가 및 취미활동에서 일과 같은 성과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동일한 5060대 집단 내에서도 개인에 따라 여가 수준이나 선호 활동에서 다양한 차이가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신체·기능적 쇠퇴는 50대 대비 60대가 더 많이 경험했으며 이에 따라 신체적 무리가 되지 않는 여가활동을 더 선호할 수 있다. 또한 은퇴 전과 은퇴 후에 따른 시간적 여유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특성이 나타났으며 50대는 주로 일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반면 60대는 사회공헌 활동이나 취미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국내의 5060대 여가 조성 사례를 살펴보면 여가동행서비스나 노인 돌봄여행서비스 등 대부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시혜적 차원의 돌봄 위주의 지원 활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들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여가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생애주기 및 사건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여가 활동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5060대의 대표적인 생애 주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은퇴를 기준으로 하여 은퇴 전 세대에게는 미리 여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내 동호회나 노후 준비 특강 등과 같은 여가 준비 환경을 구축하고, 은퇴 후 세대에게는 여가활동을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심층적 과정을 마련할 수 있겠다.

더하여 5060대 여가 관련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센터 프로그램 수강에 있어 고급 과정을 마치더라도 지속해서 머물며 해당 구성원들과 교류를 원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교육 과정에 있어 동일 세대에게 배움을 습득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수원시에서 보편적인 수준별 단계 프로그램의 구성 외에도 커뮤니티 구성이나 모임 활동을 지원하거나 5060대가 여가의 수요자에서 나아가 공급자로서 제공할 수 있는 심층적인 여가 과정을 개발하는 등 5060대의 지속적인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면 5060대의 활기찬 노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수원시 특성을 반영한 여가 콘텐츠 구성

실태 조사 결과 5060대는 이전 세대에 대비하여 교육·소득 수준이 높고 손자녀를 동반한 여가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나 수원시 5060대의 경우 전체 연령 대비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및 수요가 높다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에 따른 수원시 5060대의 전반적 여가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패턴분석을 실시하였고 Class4 유형의 집단에서 특히나 높은 문화예술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며 연중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는 문화관광도시로서 여가생활 중 문화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다(수원시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 2021).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원시 신증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도 수원화성과 정조를 주제로 한 역사 문화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에는 수원화성 외에도 생태·농업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고령친화도시로 세대 통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더하여 실태분석과 패턴분석을 바탕으로 한 수원시 5060대의 다양한 여가욕구를 확인하였기에 이를 바탕으로 한 여가 콘텐츠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060대 여가 수요와 함께 수원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원시 특화 5060대 여가 콘텐츠를 <표5-3>와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본 구상안에서는 수원시 5060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손자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를 구성하였으며 높은 문화·예술 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고색 뉴지엄’, ‘아트스페이스’ 등 수원의 문화예술 시설을 코스에 반영하고 있다.

본 제안과 같이 수원시에서 더 이상 고령자의 여가를 복지 측면에서의 접근만이 아닌, 문화여가에 수요가 높은 수원시 5060대 여가 특성 반영과 함께 수원시만의 훌륭한 문화자원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상한다면 다른 지역과 다른 수원시만의 차별화된 여가 활동을 제공함과 동시에 수원시 5060대의 여가 참여율 및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3> 수원시 5060대 여가 콘텐츠 구상(안)

문항	
주제	손자녀와 함께하는 조부모 친화 프로그램 : “조부모 채움 여행, 손자녀 배움 여행”
구성 방향	손자녀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체험과 배움 여행을 위한 조부모가 알려주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 구성
코스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교를 중심으로 수원만의 이색적인 문화 예술 체험이 가능한 테마 여행 : 고색 뉴지엄 → 111CM → 지도박물관 → 아트스페이스 광고 → 광고 어린이 천문대</li> <li>• 농업 연구의 중심지로서 수원의 정체성을 반영한 농업 테마 배움 여행 : 국립농업박물관 → 농민회관 → 축만제 → 권업모범장 표석 → 푸른시대 터 → 경기상상캠퍼스</li> </ul>

자료 : 송화성(2022), 수원‘무장애 관광도시’지정을 위한 관광약자 특화콘텐츠 구상

#### 4. 타 세대가 함께 소통·공존할 수 있는 여가 환경 구축

선행연구 결과 5060대의 여가 동반 유형 1위는 가족으로 나타났으며 광고노인복지관의 인터뷰를 통해 여가 참여 제약요인 중 하나로 ‘손자녀 양육’이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의 5060대 여가 환경의 경우 대부분이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한정지어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원시 5060대의 여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타세대가 함께 공존하며 소통할 수 있는 여가 환경의 구축을 제안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시니어 시설로 손꼽히고 있는 ‘모어댄어카페’ 사례에서는 연령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시니어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말에는 손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타 세대와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연결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인터뷰를 진행한 수원시 광고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방문 제약 요인을 반영하여 이용 대상을 노인으로만 한정 짓지 않고 어르신과 손자녀가 한 건물에서 즐길 수 있는 윈스탑 이용 시설로 개발하였다. <표 5-4>와 같이 어르신 프로그램부터 미취학, 초등, 성인 프로그램으로 구분된 다양한 세대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손자녀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르신들도 편하게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광고노인복지관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타 지역 주민에게도 시설의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개방·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우선 수강권이나 무료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으로 한정 짓고 있지만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까지 아우르며 세대 및 지역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선 이후 실제로 이용객 수가 증가했으며 복지관 이용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5060세대가 가족과 함께하며 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이용공간을 구축한다면 5060대의 여가 접근성을 완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여가공간의 구축이 아니더라도 수원시의 경우 세대별 통합 여가를 운영하는 공간으로써 컨벤션센터, 박물관, 미술관 등 다양한 수원시의 기존 공공시설 및 서비스를 연계 및 활용하여 통합적 one-pass 여가공간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활용할 수 있겠다.

<표 5-4> 광고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2022)

구분	내용
어르신 프로그램	장구민요, 역사문화탐방, 클래식 음악감상, 시창작, 영어회화, 미술/공예, 정보화교육, 한국무용, 장기, 바둑 등
미취학	키즈밸리, 창의수학, 점핑클레이, 영어동화스토리텔링 등
아동	주산암산, 세계문화, 이야기한국사, 파닉스 영어, 레고교실 등
성인	파워다이어트댄스, 줌바댄스, 우쿨렐레 등

자료 : 광고노인복지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구성

### 5. 시민 여가전담부서 혹은 통합 조직 구축

현재 수원시의 경우 주요 여가시설인 ‘해우재’를 청소자원과에서 담당하는 등 수원의 주요 여가 담당 부서 및 업무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5060대의 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 또한 시니어클럽 업무를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업무와 신중년 5060지원 사업을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등 비슷한 유형의 5060대 여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표5-4>와 같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여가의 특성상 생태, 문화, 환경, 역사 등 여러 부문들이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나 5060대의 여가의 경우 복지, 일자리 등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유사한 사업의 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거나 부서별 관련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여가 행정기구 ISPAL(Institute for Sport, Parks & Leisure)와 같이 여가업무 전담 부서 설립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여가 전담 조직 구축을 제안하는 바이다. 화성시의 경우에도 국내 최초로 ‘반려가족과’를 신설하여 흩어져 있던 반려동물 정책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수원시에서도 ‘여가활성화 정책 개발 TF’를 구성하여 각 부서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아가서는 시민 여가전담부서나 통합 조직을 구축한다면 더 이상 여가 업무를 어느 과에서 어디서든 다 하는 부분적 접근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진척관리 및 성과관리와 함께 보다 체계적으로 여가 업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5> 수원시 주요 관광자원 소관 부서 / 수원시 여가 관련 부처

관광자원	소관부서	여가관련부서	담당업무
해우재	청소자원과	관광과	수원제반 관광정책, 마케팅, 축제, 컨벤션 등 업무추진
광교어린이 천문대	민간시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행사 지원, 문화시설 관리, 문화복합공간 관리 등
농업테마 학습원	농업기술 센터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축제 개최, 신중년5060지원사업, 평생교육 운영계획,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운영 등
광교호수 공원	공원녹지 사업소	노인복지과	고령친화도시 추진, 노인의 날 행사, 시니어클럽 운영 등
칠보환경 체험교육관	환경정책과	생태공원과	생태프로그램 운영, 산림 축제 및 문화행사, 교육개발 등
고색뉴지엄	기업지원과	농업기술과	과수공원 체험 운영, 도시농업 문화행사 및 문화예술 협력사업 등
		일자리정책과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운영,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자료 : (좌) 수원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우) 수원시청 홈페이지 참고하여 재구성

##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강은나, 김혜진, 김영선. (2017). 도시지역 1인가구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유형과 우울수준. 「보건사회연구」. 37(2). pp.184-215.
- 경기도. (2021). 「주민등록인구통계」.
- 경인지방통계청. (2019). 「최근 10년간 수원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
- 고보숙, 최병길. (2010).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 참여동기와 제약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2(1). pp.249-269.
- 고용노동부. (2017).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
- 고용노동부. (2019). 「신중년(5060) 경력설계 안내서」.
- 관계부처합동. (2020).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김미경·김지은. (2017). 노인들의 여가제약이 여가만족 및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32(8). pp.91-109.
- 김미령. (2013). 준고령자와 고령자의 은퇴만족도 영향요인 비교분석. 「한국노년학」. 33(3). pp.617-636.
- 김병숙. (2012). 「은퇴 후 8만 시간」. 서울: 조선북스.
- 김보경, 노정희. (2017). 여가활동으로서 스마 참여 선택속성과 진지한 여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관계. 「여가학연구」. 15(2). pp.101-120.
- 김애순. (2006).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시그마프레스.
- 김애순. (2015). 「장, 노년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김예성·하용용. (2015). 독거노인의 생산적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35(4). pp.344-374.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110대 국정과제」.
- 문화체육관광부. (2018). 국민여가활성화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22).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 안내서.
- 박지수·박경란. (2009). 중년후기 성인이 지각하는 여가제약 및 여가충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8(3). pp.689-703.
- 보건복지부. (2021.11.23.).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송화성. (2019). 수원형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송화성. (2020). 수원시 열린관광지 조성방안. 수원시정연구원.

- 송화성. (2021). 수원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수원시. (2020). 「수원기본통계」.
- 수원시. (2022). 「2021년(제9회)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 양현미. (2018). 생애전환기 디지털에이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윤소영, 김현. (2014). 여가관련 자격증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 「여가학연구」. 12(2). pp.69-85.
- 윤소영. (2010). 여가에 대한 생애주기 관점과 여가생활주기 단계별 모형 개발. 「가정과삶의질연구」. 28(4). pp.103-115.
- 윤소영. (2016).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모형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상경·남윤희·고동우. (2016).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여가 활동의 심리적 편익. 「관광학연구」. 40(6). pp.145-162.
- 이영안. (2019).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 중장기 계획 수립
- 이철원. (2014). 중년 남성의 여가 제약과 여가 권태에 관한 질적 탐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2). pp.1-16.
- 임정미. (2020). 신중년의 사회참여 실태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20(9). pp.45-55.
- 정은하. (2014).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서울복지재단」
- 조광익, 심창섭, 최석호, 황희정, 윤혜진, 송화성, 이윤정, 김소혜, 김현곤, 서용석, 정란수 (2022). 「문화관광론」. 백산출판사.
- 조원희, 계봉오, 류재린. (2018). 한국의 초저출산과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투자: 인구구조 변화, 사회적투자, 연금재정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1(2). pp.61-90.
- 주보혜(2020). 노인의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과 서비스 연계 방안. 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19).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2021). 「2021 고령자통계」.
- 통계청.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2022). 「인구총조사」.
- 한경혜, 김주현, 백옥미. (2012).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와 건강 준비의 관련 요인 탐색: 심리적 요인과 자원 요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8. pp.133-162.
- 한경혜·이정화. (2012). 「지금, 중년을 말할 때: 대한민국 중년을 치밀하게 분석한 보고서」. 교문사.
- 한경혜, 최현자, 은기수, 이정화, 주소현, 김주현(2011). 「Korean Baby Boomers in Transition: 한국 베이비부머들의 삶의 지평.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1차년도 보고서」.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 MetLife Korea Foundation.

- 한경혜, 우석진, 최혜경, 하정화. (2013). 「베이비부머 삶의 변화와 지속성, 2010-2012: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2차년도 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2018 생애전환기 디지털에이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 한연주. (2019). 수원시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현정·황용석. (2017). 노인집단내 정보격차와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 가구구성형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3). pp.359-386.

#### 〈영문 자료〉

-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2015). 「2015 Travel Trends」.
-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2016). 「2016 Travel Trends」.
-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2017). 「2017 Travel Trends」.
-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2018). 「2018 Travel Trends」.
-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2019). 「2019 Travel Trends」.
-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2020). 「2020 Travel Trends」.
- Andel, R., Silverstein, M., & Kåreholt, I. (2015). The role of midlife occupational complexity and leisure activity in late-life cognition.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70(2). pp.314-321.
- Anstey, K., Stankov, L., and Lord, S. (1993). Primary aging, secondary aging, and intelligence. 「Psychology and Aging」. 8(4). pp.562-570.
- Argan, M., Argan, M. T., & Dursun, M. T. (2018). Examining relationships among well-being, leisur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Research & Health Sciences」. 7(4). pp.49-59.
- Bauer, D. J., & Curran, P. J. (2004). The integration of continuous and discrete latent variable models: potential problems and promising opportunities. 「Psychological methods」. 9(1). pp.3-29.
- Bjorklund, B. R. (2018). 「The journey of adulthood」 (2nd ed.). (이승연·박혜원·성현란·최은실·장희순·송경희 역). 시그마프레스.

- Brown, C. A., McGuire, F. A., & Voelkl, J. (2008). The link between successful aging and serious leisur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6(1). pp.73-95.
- Bryan, H. (1977). Leisure value systems and recreational specialization: The case of trout fisher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9(3). pp.174-187.
- Carpenter and Patterson. (2004). The leisure perceptions and leisure meanings of a mid-life couple around the time of retirement. 『World Leisure Journal』, 46(2). pp.13-25.
- CBI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0). 『The European market potential for babyboom tourism』.
- Codina, N., Pestana, J. V., & Stebbins, R. A. (2020). Fitness training as a body-centered hobby: The serious leisure perspective for explaining exercise practice.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9(2). pp.73-81.
- Crawford, D. W. & Godbey, G. (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2). pp.119-127.
- Expedia Group. (2017). 『British Multi-generational Travel Trends』.
- Expedia Group. (2017). 『German Multi-generational Travel Trends』.
- Fang, M. L., Canham, S. L., Battersby, L., Sixsmith, J., Wada, M., & Sixsmith, A. (2019). Exploring privilege in the digital divide: implications for theory, policy, and practice. 『The Gerontologist』, 59(1). pp.1-15.
- Federal Reserve. (2022).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 in the U.S. since 1989』.
- Fleischer, A., & Pizam, A. (2002). Tourism constraints among Israeli senior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1). pp.106-123.
- Froese, J. E., McDermott, L., & Iwasaki, Y. (2020). The other side of suicide loss: the potential role of leisure and meaning-making for suicide survivors. 『Annals of Leisure Research』, 23(3). pp.322-338.
- Gao, J., & Kerstetter, D. L. (2016). Using an intersectionality perspective to uncover older Chinese female's perceived travel constraints and negotiation strategies. 『Tourism Management』, 57. pp.128-138.
- Hall, C. M., & Page, S. J. (2014). 『The geography of tourism and recreation: Environment, place and space』. London: Routledge.
- Heo, J., Chun, S., Kim, B., Ryu, J., & Lee, Y. (2017). Leisure activities, optimism, and personal growth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Educational Gerontology』, 43(6). pp.289-299.

- Heo, J., Stebbins, R. A., Kim, J., & Lee, I. (2013). Serious leisure, life satisfaction, and health of older adults. 『Leisure Sciences』, 35(1). pp.16-32.
- Holloszy, J. O. (2000). The biology of aging. 『Mayo Clinic Proceedings』, 75(1). pp.3-9.
- Howard Hogan, Deborah Perez and William Bell. (2008). Who (Really) are the First Baby Boomers?.US Census Bureau
- Huber, D., Milne, S., & Hyde, K. F. (2018). Constraints and facilitators for senior tourism.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27. pp.55-67.
- Infurna, Gerstorf, and Lachman. (2020). Midlife in the 2020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merican Psychologist』, 75(4). pp.470-495.
- Iwasaki, Coyle, & Shank. (2010). Leisure as a context for active living, recovery, health and life quality for persons with mental illness in a global context.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5(4). pp.483-494.
- Jackson, E. L. (1988). Leisure constraints: A survey of past research. 『Leisure science s』, 10(3). pp. 203-215.
- Janssen, M. A. (2004). The effects of leisure education on quality of life in older adults. 『Therapeutic Recreation Journal』, 38(3). pp.275-288.
- Jedidi, K., Ramaswamy, V., & DeSarbo, W. S. (1993). A maximum likelihood method for latent class regression involving a censored dependent variable. 『Psychometrika』, 58(3). pp.375-394.
- Johnson, R. W., Toohey, D., & Wiener, J. M. (2016). Meeting the long-term care needs of the baby boomers: How changing families will affect paid helpers and institutions.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 Personal Psychol Compass 2. pp.302-317.
- Kay, T., & Jackson, G. (1991). Leisure despite constraint: The impact of leisure constraints on leisure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4). pp.301-313.
- Kelly et al. (1986). Later life leisure: How they play in Peoria. 『The Gerontologist』, 26(5). pp.531-537.
- Kelly, J. R., & Godbey, G. (1992). 『The sociology of leisure』. Pennsylvania: Venture Publishing Inc.
- Kelly, J. R., & Godbey, G. (1992). 『The sociology of leisure』. Pennsylvania: Venture Publishing Inc.

- Knickman, J. R., & Snell, E. K. (2002). The 2030 problem: caring for aging baby boomers. 『Health Services Research』. 37(4). pp.849-884.
- Kwon, Y. H., Cheung, Y. K., & Ahn, B. W. (2021). Effect of outdoor sports participants on leisure facilitation, recreation specializ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Yacht and golf particip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15). pp.8128-8139.
- Laslett, P. (1987).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Ageing and Society』. 7(2). pp.133-160.
- Levinson, D. J. (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1(1). pp.3-13.
- Liechty, T., Genoe, M. R., & Marston, H. R. (2017). Physically active leisure and the transition to retirement: The value of context. 『Annals of Leisure Research』. 20(1). pp.23-38.
- Liechty, Yarnal, and Kerstetter. (2012). 'I want to do everything!': Leisure innovation among retirement-age women. 『Leisure Studies』. 31(4). pp.389-408.
- Neal, J. D., Sirgy, M. J., & Uysal, M. (1999). The role of satisfaction with leisure travel/tourism services and experience in satisfaction with leisure life and overall lif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44(3). pp.153-163.
- Needham, M. D., Scott, D., & Vaske, J. J. (2013). Recreation specialization and related Concepts in leisure research. 『Leisure Sciences』. 35(3). pp.199-202.
-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0). 『The European Market Potential for Babyboom Tourism』.
- Nilsson, I., & Fisher, A. G. (2006). Evaluating leisure in the oldest old. 『Scandinavian Journal Occupational Therapy』. 13. pp.31-37.
- Nyaupane, G. P., McCabe, J. T., & Andereck, K. L. (2008). Seniors' travel constraints: Stepwis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urism Analysis』. 13(4). pp.341-354.
- Peter Uhlenberg. (2000).
- Peterson, R. A. (1992). Understanding audience segmentation: From elite and mass to omnivore and univore. 『Poetics』. 21(4). pp.243-258.
- Peterson, R. A. (2005). Problems in comparative research: The example of omnivorousness. 『Poetics』. 33(6). pp.257-282.
- Platts, L. G., Webb, E., Zins, M., Goldberg, M., & Netuveli, G. (2015). Mid-life occupational grade and quality of life following retirement: a 16-year follow-up of the French GAZEL study. 『Ageing and Mental Health』. 19(7). pp.634-646.

- Rector, J. L., Christ, S. L., & Friedman, E. M. (2019). Well-being and long-term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in midlife adults: a latent class analysis.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53(1). pp.53-64.
- Rogers, W. A., Ramadhani, W. A., & Harris, M. T. (2020). Defining aging in place: The intersectionality of space, person, and time. 『Innovation in Aging』 4(4). pp.1-11.
- Scott. (2012). Serious leisure and recreation specialization: An uneasy marriage. 『Leisure Sciences』, 34(4). pp.366-371.
- Siegenthaler & O'Dell. (2003). Older golfers: Serious leisure and successful aging. 『World Leisure Journal』, 45(1). pp.45-52.
- Silverstein, M., & Parker, M. G. (2002). Leisure activities and quality of life among the oldest old in Sweden. 『Research on Aging』, 24(5). pp.528-547.
- Snape, R. (2019). Leisure, voluntary action and social change in Britain, 1880-1939. Bloomsbury Publishing.
- Statistica. (2022). 『U.S. Population by Generation 2020』.
- Staudinger & Bluck. (2001). A view on midlife development from life-span theory. 『Handbook of Midlife Development』, pp.3-39.
- Stebbins, R. A. (1982). Serious leisure: A conceptual statement. 『Pacific Sociological Review』, 25(2). pp.251-272.
- Stebbins, R. A. (2013). 『Planning your time in retirement: How to cultivate a leisure lifestyle to suit your needs and interests』.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 Stebbins, R. A. (2017). 『Serious leisure』. Routledge.
- Tian, H., Zhou, W., Qiu, Y., & Shang, Y. (2021). The impact of cycling specialization on successful aging and the mediating role of loneli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 pp.19-31.
- Toepoel, V. (2013). Ageing, leisure, and social connectedness: How could leisure help reduce social isolation of older peop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3(1). pp.355-372.
- Torkildsen, G. (2012). Leisure and recreation management. Routledge.
- Tuisku, K., Virtanen, M., DE-BLOOM, J., and Kinnunen, U. (2016). Cultural leisure activities, recovery and work engagement among hospital employees. 『Industrial Health』, 2015-0124.

- Ullmann, D. A. (2011). Can't sing, can't dance, can't draw: How leisure constraints and negotiations impact midlif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creative arts. Master's Thesis, San Jose State University, San Jose, CA.
- United Nations. (2019). 「World Population Ageing」.
- United Nations. (2020). 「World Population Ageing」.
- Veal, A. J. (2017). The serious leisure perspective and the experience of leisure. 「Leisure Sciences」, 39(3). pp.205-223.
- Vu, T., Finch, C. F., & Day, L. (2011). Patterns of comorbidity in community-dwelling older people hospitalised for fall-related injury: a cluster analysis. 「BMC Geriatrics」, 11(1). pp.1-10.
- Vu, T., Finch, C. F., & Day, L. (2011). Patterns of comorbidity in community-dwelling older people hospitalised for fall-related injury: a cluster analysis. 「BMC Geriatrics」, 11(1). pp.1-10.
- Wildman, J. M., Moffatt, S., & Pearce, M. (2018). Quality of life at the retirement transition: Life course pathways in an early 'baby boom' birth cohort.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07. pp.11-18.
- Wiles, J. L., Leibing, A., Guberman, N., Reeve, J., & Allen, R. E. (2012). The meaning of "aging in place"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52(3). pp.357-366.
- Williams, G. A., & Kibowski, F. (2016). Latent class analysis and latent profile analysis. Handbook of methodological approaches to community-based research: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pp.143-151.
- Zach, S., & Lissitsa, S. (2016). Internet use and leisure time physical activity of adults-A nationwide surve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0. pp.483-491.

#### 〈중문 자료〉

- “银发经济”持续升温：老年人开启消费新风尚 养老产业待深度掘金. 证券日报. (2021.03.23.). 文化和旅游部. (2021). 「中国老年旅游产业发展现状和趋势研究」.
- 中国社会保障学会. (2019). 「中国历年出生人口 (1949-2019)」.

#### 〈기타 자료〉

- MIRAE ASSET. 2019.12.06. 캐나다 대표 시니어 여행사. SDT의 5가지 성공 전략
- 기호일보. 2018.05.09. 2015년 이후 멈춘 수원 베이비부머 정책 발굴.
- 시니어신문. 2021.10.29. 일본, 퇴직은 있어도, 은퇴는 없다... 단카이세대 중심 다양한 사회참여 인기

전국매일신문. 2021.0.13. 수원시 ‘장애 걱정 없는’ 열린관광지 선도.

중국전문가포럼. 2021.03.24. 중국 실버경제 호황, 노인층 소비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라.

충청일보. 2021.09.16. 중장년과 신중년은 누구인가요?

〈웹사이트〉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Website]. (<http://www.aarp.org/>)

SDT홈페이지(<https://seniordiscoverytours>)

University of the Third Age[Website]. (<http://www.worldu3a.org/>)

광고노인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ggsenior.or.kr/>)

광진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gjsenior.or.kr](http://www.gjsenior.or.kr))

로드스칼라 홈페이지([www.roadscholar.org](http://www.roadscholar.org))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https://50plus.or.kr/education.do>)

수원시신중년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www.suwon5060.or.kr](http://www.suwon5060.or.kr))

안양 시청([www.anyang.go.kr](http://www.anyang.go.kr))

안양시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

어뮤즈트래블 홈페이지(<https://www.amusetravel.com/>)

유럽연합 홈페이지(<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ip-aha>)

팔달노인복지관 홈페이지 (<http://pdsenior.or.kr/>)



# Abstract



## Promoting Leisure Participation For 50s and 60s (New Middle-Aged) In Response To A Super Aged Society

Later life leisure has been raised as an essential societal issue due to prolonged expected age and the rapid aging. Specifically, Yeongtong-Gu in Suwon, the youngest of all municipalities in Korea, became an aging society in 2020. This suggests the need for a preemptive response to a super-aged society. The 50s and 60s are in a transitional period, and they need to be prepared for their later lives as they have more positive leisure attitudes and higher needs for self-actualization and education than their earlier cohorts.

This study explores strategies to promote leisure for the 50s and 60s who have different needs from previous generations. The efforts should be shifted from a care-giving approach and culminate leisure-friendly environment.

The literature, environment, and current state analyses showed that the 50s and 60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such as leisure involvement, needs, and constraints within the group and from the existing aged 65 and over. Domestic policy and market analyses suggest that most services focus on providing care services and improving hardware for those 65 years or old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leisure environment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50s and 60s as consumers. Therefore, we propose a customized leisure program that is differentiated from the older adults aged 65 and older.

A leisure program considering the leisure life cycle and constraints. For example, a one-time program has better accessibility in terms of time to prepare for later life, and balanced work and leisure life. Meanwhile, in-depth leisure opportunities can be provided for the 60s to develop leisure careers and expand simple hobbies to social participation, volunteering, and assigned social rol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a survey of leisure for the 5060 group needs to be conducted, addressing characteristics between and within generations. Second, it is required to support leisure activities in stages according to individual life cycles and events. Third, it is necessary to compose leisure content tailored to Suwon 50s and 60s, reflecting a high demand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isure environment where other generations can communicate and coexist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and satisfaction. Finally, a department in charge of leisure or an integrated organization with consumer-oriented integrated support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provision of leisure.

Keyword : New Middle-aged, 50s and 60s, Life cycle, Leisure needs, leisure constraints, leisure environment



| 저자 약력 |

### 송화성

여가·관광학 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hssong@suwon.re.kr

###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 ‘무장애 관광도시’ 지정을 위한 관광약자 특화 콘텐츠 구상」 (2022,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2021,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열린관광지 조성방안」 (2020, 수원시정연구원)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접근가능한 수원화성 관광환경 조성방안」 (2019,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형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2019, 수원시정연구원)

「관광 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여가제약 비교 연구」 (2021, 관광연구)

「Comparing resident and tourist perceptions of an urban park」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021)

「Tourism Destination Management Strategy for Young Children: Willingness to Pay for Child-Friendly Tourism Facilities and Services at a Heritage Sit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20)

「Value-Based Profiles of Visitors to a World Heritage Site: The case of Suwon Hwaseong Fortress (in South Korea)」(2019, Sustainability)

### 김본

노년학 박사

동국대학교 공동연구원(현)

E-mail: bkim3422@gmail.com

### 주요 논문 및 보고서

「“Till Death Do Us Part”, Dying Matters, Beyond the Individual: Advance Care Planning Patterns among Older Couples」 (2022, Journal of Aging and Health)

「Dyadic Profiles of Health Behaviors Among Korean Baby Boomer Couples」 (2021,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Living arrangement and health behavior profiles of midlife and older adults」 (2020,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 **이경서**

관광학 학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현)

E-mail: ks1220@suwon.re.kr

##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평가 및 활성화 방안」 (2022, 수원시정연구원)

「수원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방안」 (2022, 수원시정연구원)





